

전북 지역 고대 정치세력과 가야  
학술대회





전북 가야의 역사적 뿌리를 복원하기 위한

# 전북 지역 고대 정치 세력과 가야 학술대회

주최 |  전라북도

주관 | 전북사학회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 | 일 정 |

|          |             |   |
|----------|-------------|---|
| 등록       | 09:50~10:00 | 참가자 등록  |
| 개회식      | 10:00~10:15 | 내빈소개, 국민의례  |
|          | 10:15~10:20 | 개회사    이동희(전북사학회 회장)  |
|          | 10:20~10:30 | 환영사    황철호(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br>축   사    장영수(장수군수)<br>기념촬영               |
| 1부<br>발표 | 10:30~11:00 | 발표1_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전북 지역의 정치세력<br>발표자: 이종철(전북대박물관)<br>토론자: 한수영(호남문화재연구원) |
|          | 11:00~11:30 | 발표2_ 호남 지역 철기문화 중심 세력의 성격과 특성<br>발표자: 김상민(목포대)<br>토론자: 김재홍(국민대)       |
|          | 11:30~12:00 | 발표3_ 백제의 '전북 지역' 진출 과정과 추이 변화<br>발표자: 김병남(국가기록원)<br>토론자: 정재윤(공주대)     |
|          | 12:00~13:00 | 점심 시간   |
| 2부<br>발표 | 13:00~13:30 | 발표4_ 기문·대사와 그 주변<br>발표자: 이용현(국립경주박물관)<br>토론자: 윤용구(인천도시공사)             |
|          | 13:30~14:00 | 발표5_ 반과국 위치 재론<br>발표자: 백승욱(국립해양박물관)<br>토론자: 이도학(한국전통문화대)              |
|          | 14:00~14:10 | 휴식 시간   |
| 종합<br>토론 | 14:10~15:30 | 발표자, 토론자 전원<br>좌장: 조법종(우석대)   |



# | 차례 |

일정 \_4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전북 지역의 정치세력 \_이종철 ..... 7

- I. 머리말 / 8
- II. 주요 정치세력의 분포 / 9
- III. 정치세력의 성격과 변천 / 16
- IV. 맺음말 / 40

토론문 \_한수영 / 44

호남 지역 철기문화 중심 세력의 성격과 특성 \_김상민 ..... 47

- I. 머리말 / 48
- II.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고고학적 현상 / 49
- III. 호남 지역 철기문화 중심 세력의 성립과 전개 / 57
- IV.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중심 세력과 3세기 대 지역 정치체의 등장 / 71
- V. 맺음말 / 81

토론문 \_김재홍 / 84

백제의 '전북 지역' 진출 과정과 추이 변화 \_김병남 ..... 87

- I. 머리말 / 88
- II. 전북 지역 고대 정치체의 상황 / 89
- III. 백제의 남방 진출과 전북 지역의 양상 / 92
- IV. 백제의 재진출과 전북 지역의 추이 / 106
- V. 맺음말 / 112

토론문 \_정재윤 / 117

기문·대사와 그 주변 -지명 비정과 사료 분석을 중심으로- \_이용현 ..... 121

- I. 머리말 / 122
- II. 己汝 南原說의 當否 / 122
- III. 繼體紀 己汝과 帶沙에 대한 분석 / 133
- IV. 梁職貢圖의 上己文과 그 주변에 대한 이해 / 143
- 토론문 \_윤용구 / 147

반과국 위치 재론 \_백승욱 ..... 149

- I. 머리말 / 150
- II. 연구사 / 151
- III. 사료의 검토와 위치 비정 / 160
- IV. 맺음말 / 177
- 토론문 \_이도환 / 182

#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전북 지역의 정치세력

---

이 종 철 | 전북대학교박물관

I. 머리말

II. 주요 정치세력의 분포

III. 정치세력의 성격과 변천

IV. 맺음말

---

## I. 머리말

정치세력 또는 정치체는 사전적 의미로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집단이나 정치권위의 행사를 통해 조직된 사회’를 말한다. 그렇다면 정치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과 권력을 얻거나 확장시키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교섭하고 정략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란 국가를 배경으로 통치자 또는 통치집단과 피통치집단의 존재가 설정되어야 가능한 개념인 동시에 하나의 사회(집단) 내에서도 가능한 범주로 볼 수 있다. 비록 국가나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정치조직이나 정치집단의 존재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집단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삼국시대는 물론 원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나타났으니, 일정 영역을 이루던 삼한(三韓)의 여러 국(國)이 바로 그것이다. 호남 지역에는 마한 54국 중 여러 나라가 각기 다른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다양한 정치·경제적 교섭을 통해 사회를 유지해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이해되는 고조선은 이미 청동기시대에 존재했던 나라[國]였기 때문에 대내외적 정치 행위와 활동의 존재를 청동기시대까지 소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특정 나라[國]로 알려져 있지 않은 청동기시대의 여러 문화들에 대해서는 원초적인 정치집단이나 정치세력으로 같음할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시기에 전북 지역에서는 전국적 분포를 이루는 송국리형문화가 흥기하고 있었으므로 이 문화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을 통해 원초적인 정치집단과 그 사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는 전북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삼아 청동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 원초적인 정치집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발표자는 초기철기시대보다 철기시대

를 시기 구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 이견이 상존하여 편의상 초기철기시대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북 지역의 모든 유적을 살펴보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는 중심 유적을 바탕으로 취락의 형성과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중심 유적은 많은 유적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시적 표출이 두드러져 일정 수준의 규모와 조직적인 체계나 구조를 추출할 수 있는 취락을 말하며, 사회적 위계화가 잘 반영된 주거군이나 무덤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고창 지역의 지석묘 사회와 만경강 유역 및 진안 용담댐 일원의 송국리형문화 집단이 대표적이다.

## II. 주요 정치세력의 분포

### 1.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의 다양한 유적이나 집단들 가운데 정치·사회적 성격으로 접근해 온 가장 일반적인 대상은 지석묘 집단(사회)이다. 지석묘는 북방계와 남방계로 대별되기 때문에 그 출자에 대한 연구 역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전남 지역의 지석묘 유적에서 나타나는 상석의 규모, 채석, 출토유물, 농경과 잉여생산물 등을 통해 족장사회(Chiefdom Society)에 접근해 보고자 하는 연구(최몽룡, 1990)는 지역을 달리하여 산재하는 다양한 지석묘 유적의 성격을 검토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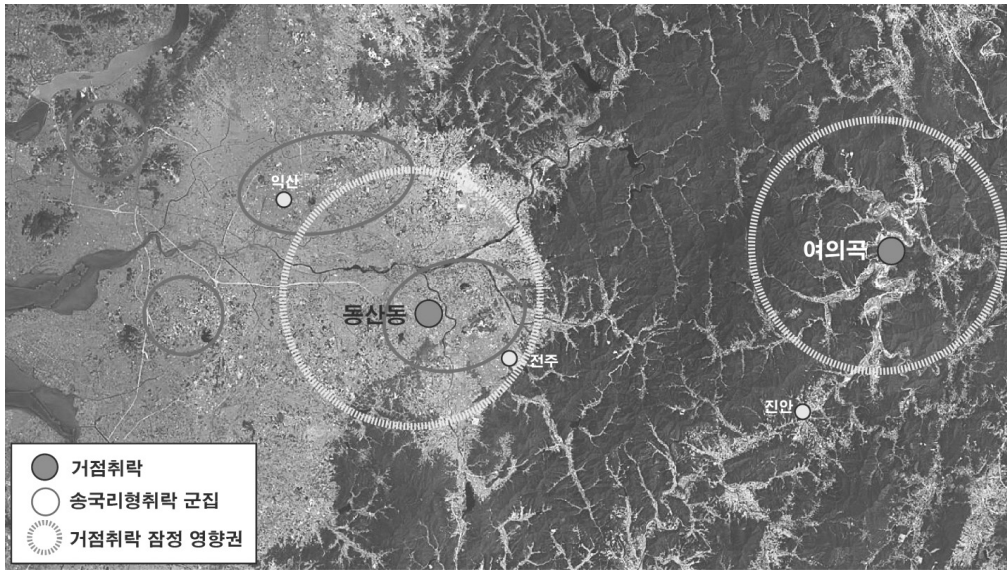
그러나 지석묘 유적은 무덤 전용 유적이라는 점에서 온전한 취락으로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죽은 자들만의 매장영역이기 때문에 삶이 오롯이 투영된 주거 영역과의 연계성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상으로 고창 지역에 밀집 분포하는 지석묘 유적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석묘는 3만여 기로 추정되며, 이중 2만여 기가 호남 지역에 집중되

어 있다. 그리고 2,600여 기로 집계된 전북 지역의 지식묘 중 63.3%인 1,665기가 고창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단일 구역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인다(이영문·신경숙, 2009). 이러한 지식묘 유적이 주거유적과 결부되어 조사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주체세력을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지식묘에서는 이른 시기의 유물뿐만 아니라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유물과 늦은 시기인 점토대토기도 출토된다는 점에서 시기별, 집단별 성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송국리형취락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고창 지역에는 고도의 정치집단이 존재했을 가능성만 미리 전제하고, 본 발표에서는 주거유적과 무덤유적을 서로 견줄 수 있는 송국리형취락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송국리형취락은 송국리형문화를 기반으로 기원전 9세기~기원 전후까지 한반도(대륙)에 잔존했으며, 제주도에서는 삼국시대 일부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통시적인 관점에서 정치세력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송국리형문화는 한반도를 양분하는 군사분계선 이남에만 분포하는데, 인천 구월동-가평 달전리-고성 송현리를 잇는 선을 북한계로 한다. 일반적으로 강이나 하천을 따라 군집되는 양상을 보이며, 한강유역권·강원 동해안권·아산만유역권·충남 서해안권·금강유역권·영산강유역권·전남 남해안권·섬진강유역권·낙동강유역권·제주도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이종철, 2015).

송국리형문화의 형성지로 알려진 금강유역권에는 부여 송국리, 전주 동산동, 진안 여의곡유적이 거점 취락을 이룬다. 본 발표는 전북 지역에 한정하여 살펴보기 때문에 전주 동산동과 진안 여의곡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두 유적은 동시대에 전북 동부 내륙 지역과 서부 평야지대를 배경으로 성장했던 거점취락이었기 때문에 좋은 비교 대상으로 판단된다(그림 1~2).



〈그림 1〉 전북 지역 거점취락의 분포



〈그림 2〉 거점취락 전주 동산동(전북문화재연구원, 2015)(왼쪽)과 진안 여의곡(전북대학교박물관, 2001)(오른쪽)

송국리형문화 또는 송국리형취락에서 거점취락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이종철, 2015).

첫째, 취락의 구성은 단위주거 - 단위주거군 - 단위취락 - 단위취락군 - 대취락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성은 집(1번지) - 여러 집(1~5번지) - 여러 집+여러 집(1~5번지+6~10번지) - 작은 마을(1~30번지) - 큰 마을(=작은 마을+작은 마을: 1~100번지)로 확장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취락설계에 따라 공간의 영역화(zoning)가

이루어지며, 환상·열상배치 등 일정한 패턴의 분포 양상을 띤다. 영역화는 주거, 생산, 매장, 저장·보관, 의례 공간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구별은 취락의 규모와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다.

둘째, 취락 내에는 부족사회의 대인(Big man)과 같은 유력자의 설정이 가능하며, 그는 사회적 위계의 정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거영역에서는 가옥의 규모에 따라 위계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매장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확인된다. 취락사회에서 유력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공의 이해와 사회적 균형·통합·안정을 위해 관리자적 지도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부의 축적과 지배체제 강화를 위해 사회를 통합하고 조직화하는 착취적 지도권을 발동(김범철, 2006)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위계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이념체계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거점취락에서는 대지 조성, 대규모 공사, 매장영역의 설정과 무덤의 계획적인 축조, 취락의례 등 구성원의 결집과 통합을 위한 사회적 질서가 존재했으며, 이 과정에 부의 재분배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정치·경제·사회적 위계체계를 공고히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취락사회는 논·밭농사 등 농경에 비중을 두면서 수렵·어로·채집 경제에 의존했으며, 수준 높은 토기·석기를 전문적으로 제작했던 장인집단이 존재했다. 지역적 통합과 위세품의 소유를 위한 지역연계망과 유통체계가 존재했으며, 동검과 석검을 대표적인 위세의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동산동 취락은 전주천과 넓은 충적대지를 근간으로 성장한 주거유적 중심의 거점취락으로서 크게는 만경강 유역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송국리형취락은 만경강을 배경으로 동산동 거점취락이 있는 전주천 일원을 비롯하여 봉동 일원, 익산 일원, 김제 일원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성과에 의하면, 동산동 취락을 능가하거나 견줄 수 있는 취락유적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취락군들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자연



스럽다. 다만, 만경강 하류나 익산 일원에 또 다른 거점취락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만경강유역권 전체에 대한 확실한 영향력은 추후로 미루기로 한다.

동산동 취락은 송국리형주거지 65기, 굴립주건물지, 수혈, 구상유구, 의례유구, 옹관묘 등 취락의 구성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유적의 연대는 방사성탄소연대로 미루어 보아 기원전 7~6세기를 중심연대로 볼 수 있다. 유적의 중앙에는 의례유구가 분포하고, 의례유구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넓은 공지(광장)가 형성되어 있다. 동쪽에는 수혈군이, 북쪽과 남쪽에는 각각 취락군이 분포한다. 주거군은 대규모 군집 내에 소규모 군집이 여러 개 분포하는데 2~5기가 하나의 소군집을 이루며, 소군집 수 개가 모여 대군집을 이룬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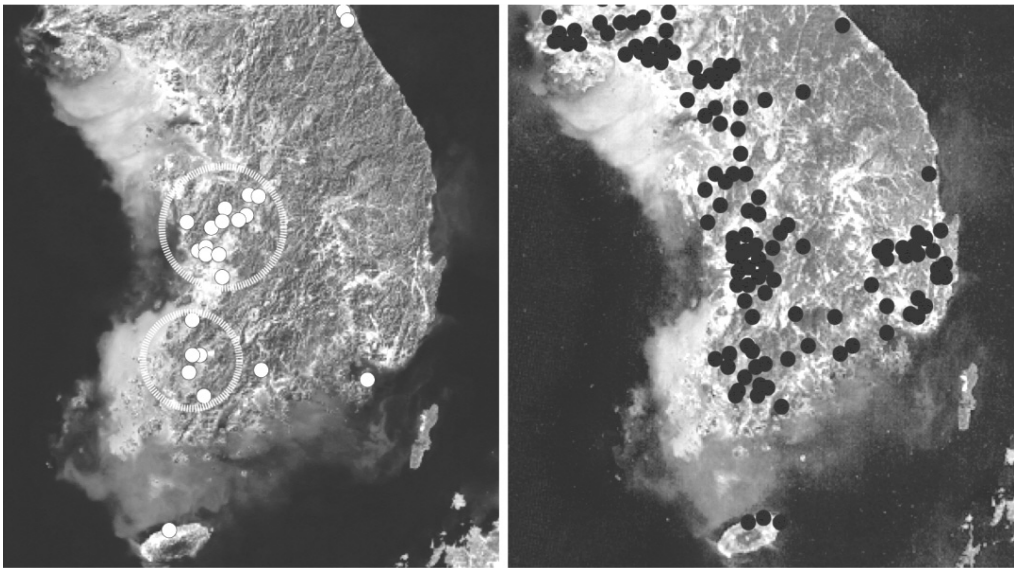
여의곡 취락은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으로서 주거유적보다는 무덤유적으로 더 잘 알려진 거점취락이다. 용담댐 수몰 지역에는 여의곡 취락이 있는 정자천 유역, 지석묘 중심의 안자천 유역에 취락이 발달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자천 유역은 상류로부터 여의곡으로 이어지는 지역연계망의 설정이 가능하며, 하류의 대단위 충적대지를 배경으로 발전한 여의곡 유적이 거점취락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이종철, 2105).

여의곡 취락은 송국리형주거지 7기(50기 내외로 추정), 지석묘 등 무덤 65기, 상석운반로, 밭, 구상유구, 집석유구, 제의유구[立大木 祭儀] 등이 확인되었다. 기원전 8세기를 전후하여 형성되었고, 기원전 7~6세기에 최전성기를 이루다가 기원전 4세기까지는 존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취락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주거영역, 생산영역, 매장영역 등 공간적 설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지석묘를 비롯한 무덤들은 열상분포를 이루면서 7개의 군집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규모의 집단무덤이 한곳에 마련되어 있는 반면, 유력자나 유력세대공동체의 무덤이 일정 공간에 단독으로 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전북대학교박물관, 2001). 이 유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청동기시대 지석묘를 축조하면

서 상석을 운반했던 통나무 운반로가 조사되었고, 호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청동기 시대 밭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거군 - 무덤군 - 경작지를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취락의 개념을 수립한 고고학적 성과를 이루었다(이종철, 2014).

## 2. 초기철기시대

청동기시대에 전북 지역에서 다양한 취락을 형성했던 송국리형문화는 기원전 4세기를 전후하여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거점취락으로 군림했던 동산동 취락은 자취를 감추었고, 대부분 몇몇 가옥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마을들만 존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송국리형문화와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요소의 복합 현상(왼쪽)과 한국식동검 관련 유적의 분포(오른쪽)(이종철, 2015)

기원전 5세기부터는 요령 지역을 비롯한 북방의 원형점토대토기문화가 한반도로 유입되기 시작하는데<sup>1</sup> 이 과정에서 송국리형문화와 문화접촉 또는 복합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금강유역권에서 가장 활성화되었으며, 송국리형주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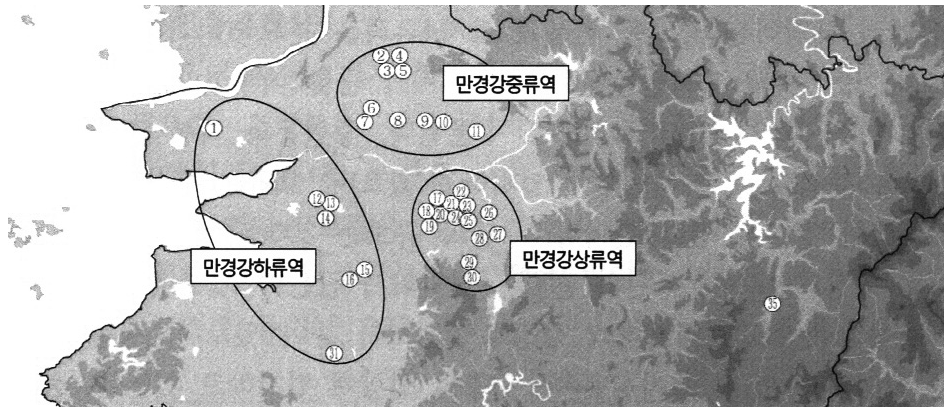
원형점토대토기를 비롯한 관련 유물들이 출토되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3). 그러나 이것은 두 문화의 문화접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문화 정체성을 지닌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점토대토기문화 집단들의 분포역은 좀 더 넓고 다양하게 균집하는 경향을 보인다.

초기철기시대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300년~기원 전후 시기를 일컫는 문화와 시대 명칭이다. 이 시기는 철기의 현지 생산, 청동 이기(利器)의 실용성 상실, 청동 제품의 급증, 청동기술의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실질적인 철기 사용 단계를 의미한다(김원룡, 1986). 이 시기의 전반기까지는 원형점토대토기와 한국식동검[細形銅劍]이 공반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청동기시대 후기와 중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철기의 등장기부터 철기시대로 보는 것이 시대를 구분하는 용어로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의 속성은 시대가 변했다고 하여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초기철기시대에 전북 지역으로 이주하여 삶의 터전을 이룬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대부분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과 익산 일원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주천과 넓은 충적대지를 배경으로 하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은 익산 지역과 달리 매우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고, 그 규모도 익산 지역보다 훨씬 커서 전북 지역의 중심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출토유물 역시 대량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동기문화의 핵심지역으로 볼 수 있을 정도다. 다만 일정 규모의 주거유적[취락]이 거의 없다는 점은 맹점이다.

---

1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유입 시기에 대해서는 방사성탄소연대를 바탕으로 기원전 7세기까지 올려보는 견해도 있고, 기존 편년관을 그대로 따라 기원전 4~3세기로 보기도 한다. 발표자는 기원전 5세기로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입 시기에 대한 다양한 편년관에도 불구하고 공통되는 것은 점토대토기문화는 북방 지역으로부터 이주한 외래문화라는 점이다.



〈그림 4〉 전북 지역 초기철기시대 무덤유적의 분포(한수영, 2015)

만경강 유역에 터전을 잡은 초기철기시대인들은 군산 선제리, 전주 만성동과 같은 적석목관묘 단계를 거쳐 완주·익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보이는 목관묘나 토광묘 단계로 전환(최완규, 2015)되는데, 이른 시기에는 반교리나 조문경·흑도장 경호가 출토되는 여의동유적과 같은 송국리형문화 전통의 석개토광묘도 계속 유지(한수영, 2015)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송국리형문화 전통을 유지해 왔던 토착민(재지민)과 점토대토기 및 청동기문화가 복합된 문화집단이 지역(지점)을 달리하여 상호관계를 유지했던 고고학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원전 2세기 초에 고조선의 준왕(準王)이 위만조선에 쫓겨 남천(南遷)한 역사 기록을 통해 최상위 정치집단의 이주 및 현지 적응과 변천 과정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유적의 성격과 정치집단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 Ⅲ. 정치세력의 성격과 변천

#### 1.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의 유력한 정치세력으로는 고창의 지식묘 집단, 동산동 집단, 여의곡

집단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고창의 지식묘 집단은 자료적 한계로 논의에서 제외하고 동산동과 여의곡 취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전주 동산동 취락사회

동산동 취락은 대규모의 마을, 공간의 영역화(zoning), 주거의 단위화 및 위계화 등을 고려할 때 거점취락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거점취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주 동산동유적의 취락설계 양상을 살펴보면 <표 1> 및 <그림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이종철, 2019).

전주 동산동 취락의 특징으로는 ①송국리형문화 발전기의 취락으로 기원전 7~6세기 중심, ②범람원인 전주천변과 특정 저습지(구하도?)를 배경으로 취락지 선택, ③1개의 대취락 내 2개의 단위취락(남/북)-광장-골목(大小)-저장·보관영역-매장영역의 취락설계, ④공동체의식을 고무하는 구심점으로서 광장 설계, ⑤저장·보관영역 관리체계 유지, ⑥주거의 초대-대-중-소 체계, ⑦단위주거군(세대/가구 관계)의 결속력 유지 등을 추출할 수 있다.

<표 1> 전주 동산동유적의 취락 구성

| 대취락                    | 주거영역                          |          | 생산영역          | 매장영역   | 저장·보관영역            |            |  |  |
|------------------------|-------------------------------|----------|---------------|--|--------------------|------------|--|--|
|                        | 북 취락                          | 남 취락     |               |  | 서군                 | 동군         |  |  |
| 동산동<br>취락:<br>거점<br>취락 | 단위주거군5                        | 단위주거군6   | 천변(?)<br>밭(?) | 전주천변 쪽<br>용관묘군(12)<br>토광묘군(11)<br><br>another(?) | 관리<br>주86          | 관리<br>주76  |  |  |
|                        | 단위주거 ○□                       | 단위주거 ○□  |               |  | 굴립주<br>10          | 굴립주<br>1   |  |  |
|                        | 대-중-소                         | 초대-대-중-소 |               |  | 독립된<br>위치          | 남북취락<br>공동 |  |  |
|                        | 굴립주건물                         | -        |               |  | 광장 내 5개<br>2개의 방향성 |            |  |  |
|                        | 평지 배경                         | 저습지 배경   |               |  |                    |            |  |  |
|                        | 군집분포                          | 열상·군집분포  |               |  | 의례영역               |            |  |  |
|                        | 광장을 중심으로 열상·환상분포<br>광장 직경 50m |          |               | 공동의 장소: 취락의 중심부<br>특정 제외영역의 존재 가능성(?)            |                    |            |  |  |
|                        | 광장 서쪽으로 큰 골목(폭 25m)           |          |               | 제사유구(?): 북→남 5개 수혈 시간성                           |                    |            |  |  |
|                        | 광장 동쪽으로 저장·보관영역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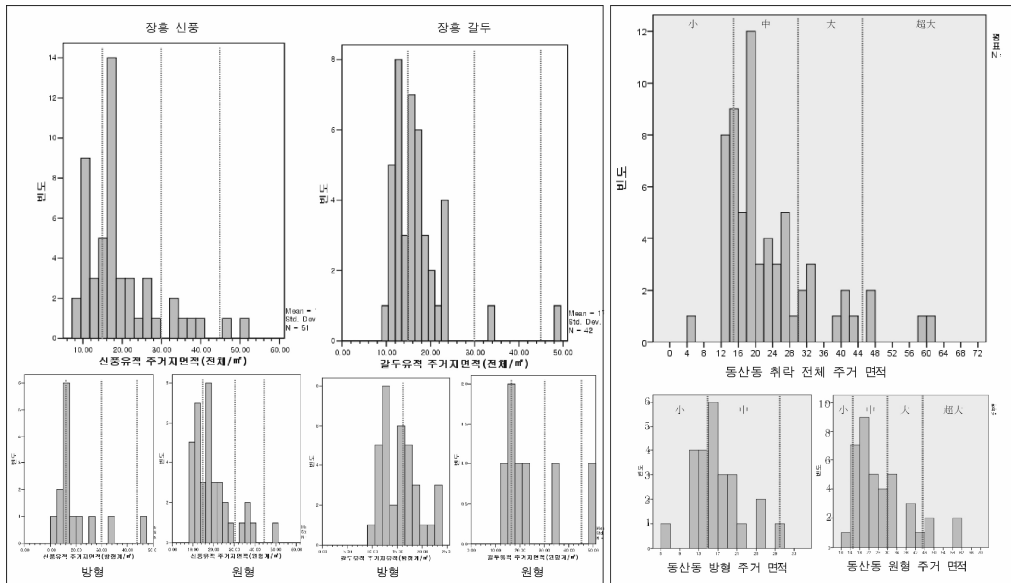
〈그림 5〉 전주 동산동 취락의 공간구성(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 도면은 필자 재편집)

동산동 취락은 주거지가 대표적인 표본자료이기 때문에 주거를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산동 남취락 서편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송국리형주거 2동이 확인되었다. 가장 큰 67호(60.7㎡)와 그 다음으로 큰 68호(59.5㎡)는 8m 남짓한 거리를 두고 축조되었기 때문에 시기성과 기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초대형의 건물들이 남취락에 집중되어 있고(78호:47.7㎡), 북취락에도 일부(64호:47.1㎡) 존재하는 것에 대해 공동체적 기능이나 유력자의 소유적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이나, 취락의 중심부가 아닌 한쪽 끝에 위치하는 점과 이 주거들이 증축·확장형이라는 점에서 유력자의 특정 공간과 연관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러한 초대형 건물의 축조에 건축기술자와 같은 특정 장인집단의 존재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준있는 사회발전단계의 단편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송국리형취락에서 나타나는 주거 규모의 양상은 장흥 신평과 갈두유적의

자료를 표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동산동 취락의 주거는 ①초대형의 범위가 매우 커서(45㎡ 이상~60㎡ 내외) 여러 채의 가옥이 있었거나 여러 번 축조되었을 가능성, ②대형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큰 점(30㎡ 이상~43㎡ 미만), ③면적을 알 수 있는 64기 중 중형 주거가 76%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활성화된 점, ④주거 면적의 기본적인 틀[가치]은 원형 주거에 있으며(초대형-대형-중형-소형) 중형 주거의 활성화에 비해 소형 주거가 극히 적은(2기) 반면, 방형 주거는 중형 주거에만 집중(33%/49기)되어 있고 소형 주거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9기)이 특징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의거하면, 일반적인 취락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중형 주거의 활성화는 안정적이고 대규모적인 구성원의 비율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형과 초대형의 발달은 집체적 성향의 공동체의식은 물론 일부는 유력자의 표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인집단과 전문화·분업화의 양상을 추출해 볼 수 있다(그림 6).



<그림 6> 장흥 신풍·갈두유적 및 전주 동산동 취락 주거 면적 비교

셋째, 남취락과 북취락의 중앙에 있는 광장은 두 취락의 대표지뿐만 아니라 동산동 대취락의 최상위 유력자가 집단의 통합과 결속을 강화하는 공개적이면서 공식적인 장(場)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족지 자료에 의하면, 의례를 통해 유력자나 빅맨들이 그들의 정당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위계를 더욱 공고히 해왔기 때문이다(키징,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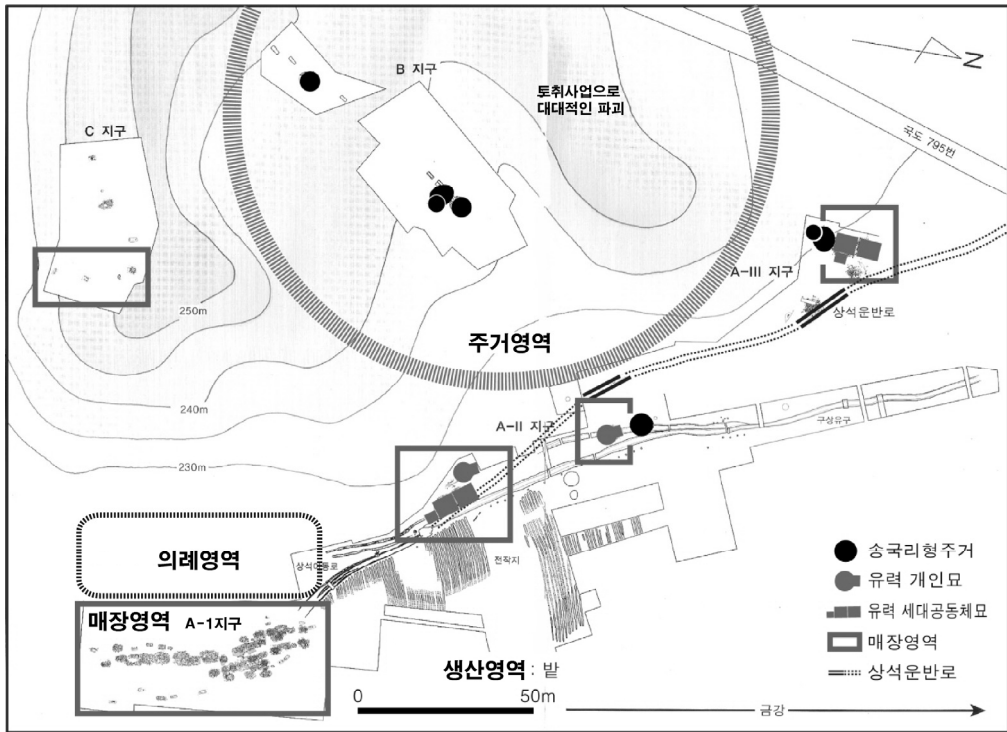
## 2) 진안 여의곡 취락사회

진안 여의곡 취락은 용담댐 수몰 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복합유적이다. 동산동 취락과 마찬가지로 금강 및 정자천과 넓게 펼쳐진 충적대지로 이루어진 자연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공간의 영역화가 반영되었다. 동산동 취락보다는 주거영역의 규모가 현저하게 작지만, 취락설계의 양상은 훨씬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의곡 취락의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표 2>,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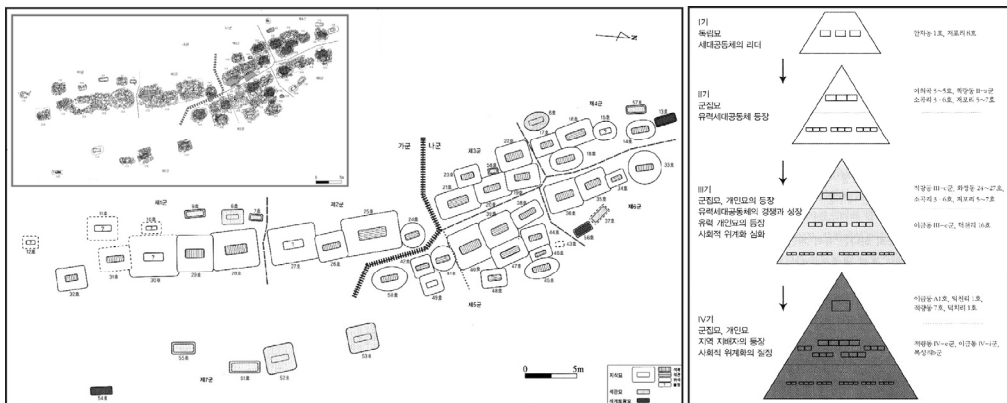
<표 2> 진안 여의곡유적의 취락 구성

| 구분                     | 주거영역                           | 매장영역                          | 의례영역  | 생산영역                                    |
|------------------------|--------------------------------|-------------------------------|---|---|
| 여의곡<br>취락:<br>거점<br>취락 | 산사면에 집중<br>(과괴)                | 충적대지: 주거-하천 사이                | 충적대지: 매장영역 옆  | 밭: 호남 최초 靑·代                            |
|                        | 송국리형주거:<br>7기(50여 기 내<br>외 추산) | 군집묘, 단독묘                      | (원초적)입대목 제의   | 충적대지: 금강변                               |
|                        |                                | 지석묘, 석관묘, 옹관묘,<br>석개토광묘 등 65기 | 1,500㎡의 공터 활용<br>야산(주거군)-무덤 사이:<br>종교적 경관<br>조상신, 자연신 | 3,280㎡(1,300평) 조사<br>3,000여 평 추정        |
|                        | 열상분포 가능<br>성: 능선, 등고<br>선      | 유력자, 유력세대공동체                  |   | 두둑+고랑                                   |
|                        |                                | 묘역식 지석묘 □○ 우세                 | 강제적 규율: 세습 흔적?  | 수목류 구조체 없음<br>밭층에서만 매우 높은 양<br>의 구조체 확인 |
|                        | 상석운반시스템                        | 무덤 축조 장송의례:<br>토기, 석기 파쇄 행위   | 벼과식물: 조, 피, 울무,<br>기장류 가능성                            |   |





<그림 7> 진안 여의곡 취락의 공간구성(김승옥·이종철, 2001; 이종철, 2015)



<그림 8> 진안 여의곡 취락의 무덤 배치(김승옥·이종철, 2001)와 사회적 위계(김승옥, 2007)

여의곡 취락은 동산동 취락보다 더욱 구체화된 사회적 위계화 양상과 취락설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동산동 취락에서 볼 수 없었던 매장영역에서의 체계성과 기획성에 기인한다. 매장 공간의 선정과 기획, 무덤 축조와 지속적인 관리, 필요에

따른 제의의 수행 등 일련의 과정들은 매장영역의 완성인 동시에 취락시스템의 완성이라고 할 만하기 때문이다. 특히 체계적인 열상분포, 7개 무덤군의 축조 시간성을 고려한 공간배치의 기획성, 각 무덤군의 주축열과 연결부가 되는 무덤열의 위계, 유력자와 유력세대공동체 무덤의 등장은 무형적 가치체계의 가시적 표현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그림 8).

무엇보다도 여의곡 취락에서는 대규모 노동력을 이용해야만 했던 집체적 사회구조가 확인된다. ①지석묘 축조와 상석운반시스템의 운용, ②대규모 밭을 경작하고 수확하기 위한 노동체계, ③조상신[자연신]에 대한 입대목 제의와 같은 취락의례의 존재가 그것이다. 이러한 노동력의 집결과 운용은 특정 유력자나 정치세력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데, 매장영역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위계체계와 의례영역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의례를 통한 그들의 정당성 강화는 여의곡 취락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적인 사회체계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동일한 사회체계와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 거석물의 축조와 그에 따른 공혼잔치가 부와 권력이 있는 상위 신분자들의 경쟁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경제적 재분배의 순환구조를 가지게 되고, 상위 신분자들은 씨족공동체의 결속 강화와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사회체계(이송래, 1999)와 궤를 같이한다.

이상과 같이 청동기시대 거점취락에서는 중소규모의 취락에서 볼 수 없는 체계적이면서 조직적인 사회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거점취락은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 정치·경제·사회적 우월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주 동산동 취락은 삼천과 전주천, 나아가 만경강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의 수계 연계망이다. 즉 익산 일원의 취락군 - 동산동 취락 - 송천동 일원의 취락군(전주천), 혁신도시 일원 취락군, 효자동 일원 및 효천지구 일원 취락군(삼천)과의 연계망이다. 진안 여의곡 취락은 정자천 하류역(금강 합류지)의 대단위 총적대지를 기반으로 여의곡(하류) - 망덕 - 모곡 - 진그늘 - 농산(상류)유적으로 이어지는 일방형 수계 연계망이다. 이 유적들은 약간씩 시기 차이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

지만 1~2km 거리를 두고 서로 공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이종철, 2015). 두 유적의 관점에서 고창 지식묘 사회 역시 일방형이나 방사형 지역연계망을 바탕으로 지역적 통합을 도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송국리형문화 취락사회의 사회발전 양상

| 구분                    | 형성기(기원전 9세기 대)                      | 발전기(기원전 8~6세기)  | 쇠퇴기(기원전 5~3세기)   |       |
|-----------------------|-------------------------------------|---|--|-------|
| 주요 유적                 | 보령 관창리 .....                        | 보령 관창리 .....  | .....  |       |
|                       | 부여 송국리 .....                        | 부여 송국리 .....  | .....  |       |
|                       | (서부 해안지대?)                          | 진안 여의곡 .....  | .....  |       |
|                       |                                     | 전주 동산동 .....  | .....  | ..... |
|                       |                                     | 장흥 신 풍 .....  | .....  | ..... |
|                       |                                     | 장흥 갈 두 .....  | .....  | ..... |
| 나주 운곡동 .....          | .....                               | .....   |  |       |
|                       | 진주 대평리 .....                        | .....   |  |       |
|                       | 대구 동천동 .....                        | .....   |  |       |
|                       | 사천 이금동 .....                        | .....   |  |       |
|                       |                                     |   | 보령 진죽리 .....   |       |
|                       |                                     |   | 제주 삼양동 .....   |       |
| 취락 구성과 수준<br>(상대적 관점) | 중-----상-----                        | ---최상-----  | --하-----<br>상---최상---중---  |       |
|                       | 환경 적응기, 거점화                         | 지역 거점 취락의 성장  | 소취락으로 전락·존속  |       |
| 사회현상                  | 취락 조성과 인구 통합<br>사회체계 구축<br>관리자적 지도권 | 취락설계의 절정<br>인구 증가<br>사회적 위계화 정립 : 관리<br>자적 지도권 유지 및 착취<br>적 지도권 발생<br>지역사회 연계망·통합<br>대규모 공사·노동력 운용<br>취락의례의 융성<br>조직적인 부의 재분배<br>전문 장인집단의 성장<br>유통망 구축·장거리 교역 | 거점취락의 부재(미발전)<br>취락사회의 헤게모니 상실<br>과 규모 축소<br>대대적인 이주<br>신진세력의 결집(제주)<br>대외교역<br>문화접촉 |       |
| 사회체계                  | 족장사회 : 무형적 가치                       | 족장사회의 체계 완성 :<br>무형적·유형적 가치   | 취락사회의 대전환 : 사회<br>적·환경적 격변   |       |

둘째, 취락의례를 통해 유력자는 자신의 정치경제적 우월성과 사회적 위계체계를 공고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산동 취락에서는 남취락과 북취락의 중앙에 마련된 광장에서, 여의곡 취락에서는 매장영역과 생산영역을 마주하는 공터에서 취락 구성원들과 함께 집체적인 행사를 거행했다고 추정된다.

셋째, 모든 취락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송국리형문화의 거점취락들은 <표 3>과 같은 양상(이종철, 2019)을 보이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점차 쇠퇴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거점취락의 부재는 취락의 헤게모니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쇠퇴기의 사회적 양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북방으로부터 이주 또는 파급된 여러 문화집단과의 접촉이나 복합 양상이 쇠퇴기에 급증하는 현상도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초기철기시대

초기철기시대의 유력한 정치세력 또는 정치체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의 청동기문화 집단이 단연 으뜸이다. 그러나 이 집단에 대한 정체성은 현재 물음표(?) 상태이다. 전북 지역에서 가장 발달된 청동기문화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큰 매장영역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주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제왕운기』,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고조선 준왕의 남천지가 금마라는 기록에 근거하여 익산 일원에서 조사된 청동기 출토 토광묘들을 준왕의 남천과 연결 짓는 연구(김정배, 1976; 김원룡, 1977)로 말미암아 익산으로 집중되었던 고고학·역사적 관심도 한몫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의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 성과를 정리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왕성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지만<sup>2</sup> 역사 기록과 고고학적 성과는 평행

2 국립전주박물관·호남문화재연구원, 『금강의 새로운 힘-2100년 전 완주 사람들』 특별전 도록, 2011.  
국립전주박물관, 『益山익산』 전북의 역사문화전 12, 2013.  
국립전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완주 상림리 靑銅劍의 재조명』 학술세미나, 2014.

선을 달리고 있을 뿐이다.

### 1) 정치세력의 설정과 성격

초기철기시대 전북 지역의 정치세력은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원형점토대토기 또는 원형점토대토기와 청동기가 조합을 이루는 집단으로서 기원전 3세기 이전 시기와 기원전 3세기대의 문화집단이다. 다른 하나는 청동기와 전국계 철기가 공반하면서 원형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등이 조합을 이루는 기원전 2세기대 집단과 한식 문물 및 삼각형점토대토기 관련 유물들과 조합을 이루는 기원전 1세기대의 집단이다. 전자는 검파형동기, 조문경, 한국식동검 등 북방계 청동기 문화와 원형점토대토기를, 후자는 기원전 2세기 초 고조선 준왕의 남천과 결부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청동기문화의 지속과 전국계 철기의 보편화를 특징으로 한다. 다만, 기원전 2세기대는 한반도 남부로 철기의 파급이 보편화되는 데, 물질문화의 보편적 유통과 특정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 더 밀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1) 기원전 3세기대까지의 정치세력

청동기시대 후기, 즉 원형점토대토기문화 단계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의 문화변동 과정에 대해서는 <표 4>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국립전주박물관, 『완주 상림리 靑銅劍』 특별전 도록, 2015.

익산시·한국고대사학회, 『고조선과 익산』, 2015.

국립전주박물관,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혁신도시 유적, 유물, 발굴, 그리고 전시』 특별전 도록, 2016.

익산시·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지역 마한 풍속의 지역전략화 조사 연구』, 2018.

완주군·국립전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만경강유역의 고고학적 성과』 공동 학술대회, 2019.

국립전주박물관,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 특별전 도록, 2019.

〈표 4〉 기원전 5~3세기 문화집단의 현황

| 시기 구분     |          | 문화적 성격   | 관련 유적   |
|-----------|----------|--|---|
| 기원전 5~4세기 | 청동기시대 후기 | ·송국리형문화 지속, 문화접변<br>·○점토대토기문화 등장<br>·북방계 청동의기류(4前)<br>·한국식동검문화의 등장(4前) | 송·주거지+○점토대토기<br>수석리<br>동서리·괴정동·남성리 등<br>동서리·괴정동·남성리 등 |
| 기원전 3세기 대 | 철기시대 전기  | ·송국리형문화 지속, 문화접변<br>·한국식동검문화 보편화<br>·한반도에 철기문화 도래                      | 송·주거지+○점토대토기<br>북한 지역 전국계 철기                          |

기원전 5~3세기는 청동기시대 후기와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이지만, 남한에 국한해 보면 문화적으로 청동기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철기문화의 개시를 기원전 4세기대로 소급해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기원전 3세기 부터로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아직까지 남한 지역으로의 과급 양상은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송국리형문화의 쇠퇴기로, 지역적으로는 거점취락의 소멸(부재), 취락 사회의 해계모니 상실과 규모 축소, 대대적인 이주를 특징으로 하며, 기원전 3세기 대부터는 제주도에서 신진세력들과의 결집 또는 통합을 통해 삼양동유적과 같은 새로운 국제적 성격의 거점취락을 형성하기도 하여 제2의 부흥기를 맞기도 한다(이 종철, 2019). 금강유역권을 중심으로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집단과의 문화접촉도 발생하는데, 송국리형주거를 축조하면서 송국리식토기와 점토대토기와 같은 복합적 성격의 물질문화를 이루게 된다. 다만, 이 시기에는 두 문화의 복합이든,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이든 취락의 규모가 매우 작고 구릉이나 고지대에 입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양상으로 미루어 보아 요령 지역 일원의 점토대토기문화가 전쟁이나 크고 작은 정치사회적 파동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이주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위략(魏略)』에서 보이는 연나라와 고조선 간의 군사적 갈등(기원전 4세기 후반), 연나라 장수 진개(秦開)의 고조선 침공(기원전 3세기 후반), 기원전 221년 진(秦)나라의 중국 통일과 중국 내 반란 등으로 연(燕)·제(齊)·조(趙)나라의 백성들

이 고조선 준왕에게로 피난하는 기록들(국사편찬위원회, 2004)은 당시 정세를 살필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된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대에는 청동의기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식동검문화가 대전 괴정동, 예산 동서리, 아산 남성리 등 충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됨으로써 청동기시대 후기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이러한 물질문화의 발견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군산 선제리(전북문화재연구원, 2017)에서 이와 유사한 문화 양상이 확인되었다. 유적에서는 검과형동기 3점, 한국식동검 8점, 동부 1점, 동사 1점, 동착 1점과 원형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환옥 131점이 출토되었다. 보고지는 적석목관묘로 보았으나 2단 형태 또는 깊은 토광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당시 여러 형태의 무덤 구조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적은 금강 이남에서 처음으로 검과형동기가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원전 4세기대 청동의기의 출현은 기원전 3세기대 청동방울류의 등장과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팔주령과 같은 동령구는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에서 출토되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청동의기로서(조현종, 2006: 205) 이전 시기와 의 문화적 획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나팔형동기·검과형동기·방패형동기 등의 청동의기류는 분명한 성격을 알 수 없지만, 동시기로 판단되는 농경문청동기에 나타난 입대목과 새의 존재를 통해 제정분리사회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준다. 이러한 생각이 가능하다면 기원전 4세기대에는 탁(鐸)이나 원개형동기 등을 두드려 소리를 냄으로써 귀신과 접신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동의기류는 사회적 위계화를 극대화하는 위세품인 동시에 신과 교통하는 상징적인 표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에 반해 팔주령·쌍두령·간두령 등 소리를 내는 방울류는 입대목에 걸기보다는 제사장과 한 몸을 이루어 소리를 내는 용도로 전용됨으로써 제정분리사회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天君)과 같은 인물<sup>3</sup>의 표징으로 확립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 시기는 기원전 3세기대로 『삼국지』 「동이전」에 기록된 한(韓: 馬韓)의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면, 기원전 3세기는 발달된 청동기를 배경으로 제사장의 전성기로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며, 『삼국지』 「동이전」에 언급된 <입대목현령고(立大木縣鈴鼓)>의 전성기로서 한국식동검은 물론 동령류 세트를 표지로 하는 청동기문화의 발전을 볼 수 있는 시기이다(이종철, 2018: 24). 청동기문화의 지속적 인 파급 과정에서 사회적 위계상 최상위 계층을 이루는 신지(臣智)는 천군과 함께 이 시대를 이끌었던 최고의 정치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韓: 馬韓)은 호서·호남 지역에 크고 작은 ‘國’으로 분포했을 것이다.

이러한 ‘國’과 관련될 법한 지역에서는 한국식동검, 세문경(정문경), 동부, 원형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등을 적석목관묘에 부장하던 정치집단이 존재한다. 주로 기원전 3세기대로 추정되는데 전주 원만성유적<sup>1</sup>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유적은 대규모의 2단 토광과 적석의 전통에 한국식동검 2점, 세문경편(주연부) 1점, 동착, 동사, 관옥 등 상대적으로 소량이 출토되었지만, 화순 대곡리 무덤과 같은 계통이면서 전북 지역에서는 유일한 무덤으로 평가된다. 당시 최상위의 위계를 보유했던 인물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제의와 관련한 유물이 부장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천군과 같은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신지와 같은 성격의 최상위자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적석목관묘 계열의 최상위자 무덤 외에도 조문경·흑도장경호가 출토된 석개토광묘 계열의 전주 여의동, 조문경(직경 10.7cm)·동포가 출토된 석곽묘(?) 계열의 익산 다송리 등 여러 형태의 상위 무덤들이 동시대에 존재하였다. 아마도 당시 재지의 토착민과 유이민 간 통합 및 견제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기원전 3세기대에 간과할 수 없는 고고학자료가 완주 상림리에서 출토된 26점의 동주식동검[중국식동검]이다. 제사나 봉헌용의 매납유적일 가능성이 높은

3 천군(天君)은 국읍(國邑)에서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天神)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으로서 ‘名之天君’으로 불리게 된 시점이 있었을 것이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역할로 상정한다.



상림리유적은 전국시대 후기인 기원전 3세기대부터 중국 동북지방 일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의해 이주한 유이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건무, 2014).<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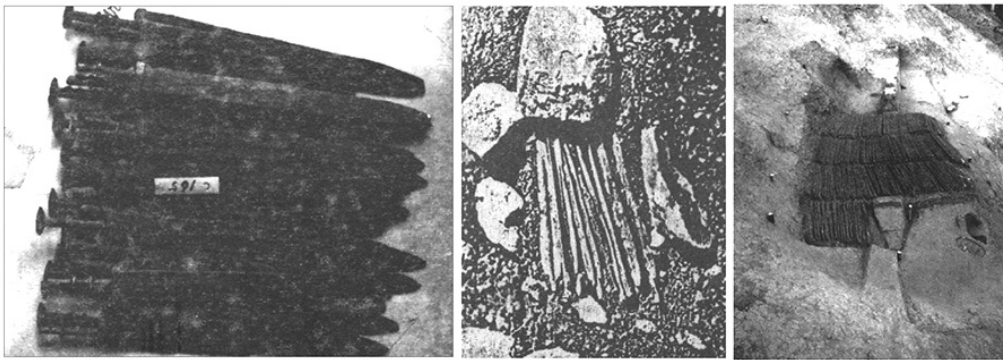
이 집단에 대해서는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동검에 내포되어 있는 특성(이나경, 2014)은 ①26점의 동검은 동일한 거푸집으로 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없어 제작에서 사용, 폐기까지 서로 다른 과정을 겪음, ②일부 동검의 날에서는 마연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에 실용기로 썼을 가능성, ③검신 하단부에 인위적인 손상 부위가 확인되어 제작 후 훼손되었을 가능성, ④일부 동검은 병부의 두께가 얇게 제작되어 있어 비실용적인 성격을 보임, ⑤동검의 검수 평면 형태가 모두 부정형이며 고정공이 없는 것이 대부분, ⑥주조 당시부터 주조 결함이 있었으며 동검의 완성도가 매우 낮음, ⑦검의 합금비가 매우 큰 차이를 보임, ⑧동검의 납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반도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노지현, 2015)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26점의 동검은 일괄 주조하여 한꺼번에 매납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사용된 것, 비실용적인 목적으로 모방하여 만들고 인위적으로 훼손을 가한 것, 비실용적으로 제작된 것, 제작 과정에서 주조 결함이 발생한 것 등 다양한 동검들이 하나의 구덩이에 가지런히 묻혔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 본다면, 상림리의 동검은 우리나라 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을지라도 중국식의 동검이기 때문에 3세기대 한(마한)의 결과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다양한 종류의 동검을 모아 매납했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주섬주섬 모아’ 모종의 제의행위를 했다는 결과로 귀추된다. 따라서 이 집단이 서해를 가로질러 유입된 집단이든, 중국 동북지방 일대에서 이주한 유이민이든 당시 정치사회적

---

4 동주식동검은 요동 지역과 한반도에서 기원전 3세기 후엽부터 기원전 2세기 전엽에 걸쳐 유행하는데, 상림리 동검은 함평 초포리 동검과는 형태적 차이가 있고 평양 석암리 동검과 유사하기 때문에 기원전 3세기 말로 보는 견해(조진선, 2014)도 있다.

상황으로 한의 땅에 들어온 중국계 유이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들의 향후 행적이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집단을 이끌던 리더(유력자)나 제사 주관자 등 일정 규모의 정치세력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6점이나 되는 동검을 멀고 먼 타향의 어떤 곳에서 염원이나 기원을 위해 상징적으로 제의에 활용해야만 했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장인 집단의 매납품이었다면 그 순도가 높지 못하여 염원이나 기원으로 바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림 9〉 완주 상림리 동검과 매납유적  
(여순 광기둔·일본 시마네현 고진다니: 국립전주박물관, 2015)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기원전 4~3세기 주요 정치세력의 문화적 성격

| 구분       | 주요 유적   | 주요 유물             | 무덤 형식                                  | 비고                             |
|----------|---|-------------------|--|--------------------------------|
| 기원전 4세기대 | 군산 선제리  | 검과형동기, 한국식동검      | 적석목관묘(?)                               | 금강 하류역                         |
| 기원전 3세기대 | 전주 여의동<br>전주 원만성1<br>전주 원장동<br>익산 다송리<br>익산 오룡리 | 조문경<br>세문경, 한국식동검 | 석개토광묘계<br>적석목관묘(2단, 廣大)<br>석곽묘(?), 토광묘 | -전주·완주혁신<br>도시 일원<br>-금강 이동 지역 |

매납 주체의 성격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여순 노철산(老鐵山) 광기둔(郭家屯)유적의 15점의 요령식동검, 일본 시마네현 고진다니(出雲神庭荒神谷)유적에서 확인

된 358자루의 동검과 동령·동모를 매납한 것(국립전주박물관, 2015 재인용)과 궤를 같이한다(그림 9).

## (2) 기원전 2세기대의 정치세력

초기철기시대에 전북 지역의 유력한 정치세력은 청동기를 기반으로 집단의 통합과 질서유지를 완성하였다. 제정이 분리된 상태에서 각 ‘國’에는 신지와 읍차(邑借) 등이 최상위 계층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이러던 차에 기원전 2세기 초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準)이 위만 세력에게 패퇴당하여 바다를 건너 한(韓)으로 쫓겨가는 사건이 발생한다. 고려~조선시대의 여러 문집과 역사지리서에서는 지금의 익산인 금마로 들어왔다고 적음으로써 지금까지도 유력한 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원전 2세기대는 준왕의 남천 사건과 전국계 철기의 보편화를 특징으로 한다. 준왕 집단은 서북한 지역의 전국계 철기문화를 향유하고 있었고, 그들의 남천으로 말미암아 전국계 철기문화가 호남 지역에 유입될 수 있었다. 준왕 집단이 만경강 유역으로 들어오기 전인 기원전 3세기 후반대에 전국계 철기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원전 2세기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성숙한 발전상을 보이는 청동기문화에 전국계 철기가 공반하는 유적이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에서 대단위로 조사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무덤유적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오랜 기간 동안 점유해 온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는 황방산·홍산 일원을 장기적으로 점유했던 정치세력이었음에 분명하다. 특히 철기의 현격한 출토량과 함께 세문경이 갈동에서 2점, 원장동 1호에서 2점, 신평에서 10점이 출토됨에 따라 신평유적을 비롯한 이 일대의 지역적 위계의 수준(한수영, 2017)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무덤유적에 상응하는 대규모 또는 단위별로 군집하는 주거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유력한 정치집단의 존재를 고고학적 증거로 상정할 수 있는 부족함 없는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 주체세력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다.

이에 기원전 2세기대 준왕의 정치세력에 대해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익산 금마에 대한 문헌적 가치를 인정하여 고고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고려~조선시대의 기록에서는 준왕의 남천과 그 마한의 존재에 대해 익산 지역의 금마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고고학적 증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문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취락을 구성하는 핵심 구성원의 거주지가 금마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단위 무덤유적과 주거유적의 존재가 밝혀진다면 문헌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의 특성상 어느 시점에 굴절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헌기록으로는 전해지지 않지만, 전주·완주 혁신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정치세력과 연관될 수 있는 무덤유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마에 대한 문헌적 가치를 뛰어 넘는 새로운 정치체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야트막한 구릉지대에서 매장영역과 주거영역의 분리뿐만 아니라 취락의 구성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분명하고도 불변의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무덤유적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황방산 일원의 구릉과 경사면에 대단위 취락이 존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무덤유적과 가장 인접해 있고, 주변이 모두 저지대인 데 반해 황방산은 외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규모 주거유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3의 지대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

셋째,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성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익산 일원을 주거 중심의 취락지로,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대를 무덤 중심의 매장영역으로 접근해 보는 이원적 취락체계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론은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주거영역이 취락의 핵심이기 때문에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금마 지역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매장영역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마을

[村이, 邑, 國]을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준왕의 남천은 위만 세력의 침공으로부터 초래되었으며, 기원전 2세기 초의 일이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 준은 한(韓)의 땅으로 도망하여 한왕(韓王)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은 위만의 침공으로 인해 나라를 찬탈당했음을 의미하며, 적으로부터 쫓겨서 안전하게 살아갈 땅을 찾아 도망하는 급박한 상황을 암시한다. 따라서 준왕의 남천에는 전쟁과 추격에 대한 불안감, 이주지의 선택과 그 토착민들과의 갈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이주지(익산 일원)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제2차, 3차 침공에 대한 걱정과 취락사회의 안전을 도모해야 했을 것이다. 특히 이주 1세대의 무덤 조성을 취락 내에 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 별도의 공간에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했을 터다. 왜냐하면 외부 세력(위만 등)의 침략으로 조상묘와 조상신이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안전 문제를 고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준왕 집단은 이주 1세대 묘를 침략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해 좀 더 안전하고 은폐가 가능한 전략을 썼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곳이 바로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일 가능성이 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은 만경강에 인접하는 첫 번째 구릉지대이다. 이곳은 분지형의 구릉지대를 이루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이다. 동쪽과 남쪽으로는 황방산·홍산과 상대적으로 높은 구릉이 병풍처럼 솟아 있고, 이와 연결된 낮은 구릉이 서쪽으로 휘감고 있다. 북쪽에는 크고 높은 구릉지대로 막혀 있는 형상이다. 북쪽 인근에는 신평유적과 동일한 문화 양상을 보이는 갈동유적이 자리한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에서 기원전 2세기대의 대표적인 유적은 신평유적이다. 81기 무덤이 6개의 군집을 이루며, 남북으로 형성된 하나의 구릉에 5개의 군집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조성되었다. 무덤의 수와 축조 시간성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력한 무덤 군집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평유적이 북쪽 군집에서 남쪽 군집으로 축조되어 간 것으로 확인된 점은(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무덤 축조 주체의 방향성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군집별로 약간의 시간적 공존이 존재할지

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시간적 방향성과 매장영역의 확장(북→남)이 핵심인 것이다.

신평유적의 시간성을 고려하면,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이 위만조선에 패퇴하여 도망한 곳은 바다를 건너 익산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만경강 이남, 즉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과 가까운 지대에 정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가장 이른 시기의 사료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익산 설의 근거로서 박약할 뿐만 아니라 익산이 갖는 고색창연한 고대문화의 연원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높다. 준왕이 바다를 건너 익산으로 들어왔다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기록은 모두 고려~조선시대의 것으로서, 가장 이른 시기의 사료는 13세기 말에 쓰여진 『제왕운기』로 알려져 있다. “준왕이 기자의 41세손이며, 그가 정착한 곳이 마한 내에서 금마군(金馬郡, 오늘의 익산)”이라는 내용이다(노태돈, 2015). 5세기대 중국 사서인 『후한서』에 “한지(韓地) 중에서 마한”이라고 지칭한 이후 800여 년이 지난 고려시대에 금마로 좁혀진 것이다. 그러나 『고려사절요』 제24권 「충숙왕(忠肅王) 16년 기사」에 보면, “3월에 도적이 금마군에 있는 마한(馬韓)의 조상 호강왕(虎康王)의 능을 도굴하였기에 체포하여 구금하였으나 달아났는데, 무덤을 판 자가 무덤에 금(金)이 많은 것을 본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 호강왕릉은 백제의 고총으로 판단되는바,<sup>5</sup> 백제의 영토가 과거 마한의 땅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전통성과 인식에 기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따라서 마한 땅에서 백제가 형성되었고, 백제의 중심에 금마(미륵사지와 왕궁 일원)가 역사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마한의 연원을 금마에 두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신라의 최치원(崔致遠)이 “마한은 고구려, 변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라고 한 것을 김부식(金富軾)이 옳다고 받아들인 것, 조선 초 권근(權近, 1352~1409)이 “마한은 백제, 변한은 고구려, 진한은 신라”, 그리고 한백겸(韓百謙, 1552~1615)이 “마한은 백제, 변한은 가야, 진한은

5 전북 익산시 석왕동에는 쌍릉(사적 제87호)이 있어 백제 무왕(武康王)과 왕비의 무덤으로 전해진다.

신라”라고 주장한 것(정구복 외, 1997)과 궤를 같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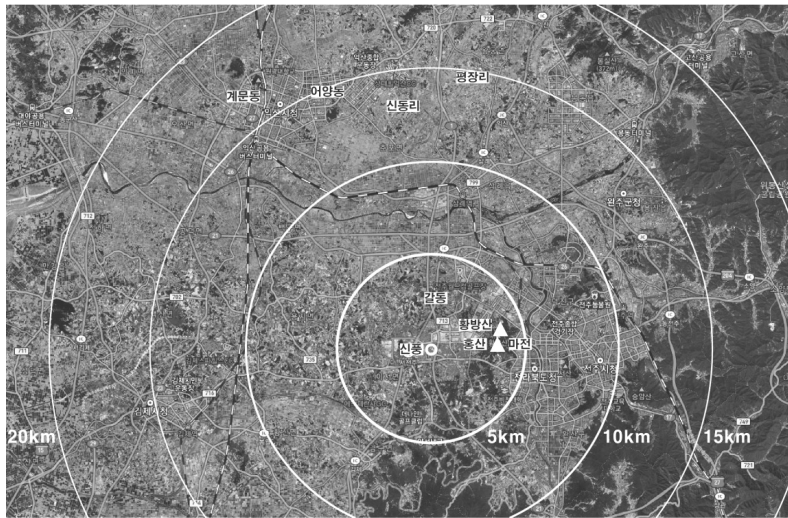
고려와 조선시대 기록에 ‘마한=금마’라고 하여 준왕의 남천지를 곧바로 익산으로 비정하는 것은 마한의 변천을 획일적이고 단선적으로 보는 시각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대한 무비판적 접근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준왕이 한의 땅에 들어올 때의 물질문화는 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를 비롯한 무문토기 전통, 한국식동검과 세문경 등의 청동기 전통, 철부와 철사 등 전국계 철기 전통이었다. 박순발(2018)의 전기 마한에 해당한다. 그리고 준왕의 혈통이 끊어져 절멸된 상태로 지속되다가 타날문토기와 방형의 수혈 주거, 토광묘와 주구묘의 전통을 지닌 집단이 대대적으로 발생하면서 호서·호남 전역에 분포하게 되니 후기 마한에 해당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3세기 후반에 중국 사서인 『삼국지』의 「동이전」에 마한의 한 ‘國’으로서 ‘乾馬國(건마국)’이 나타나고 이를 금마국(金馬國)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설령 ‘건마국=금마국’이라고 하더라도 건마국은 고고학적 정황상 전기 마한보다는 후기 마한과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익산 영등동에 2세기를 전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중구조의 환구가 별읍의 소도와 같은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종철, 2018)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마한의 금마국과 백제 무왕의 익산 경영, 그리고 후백제 건국이 삼국의 시작을 마한으로, 백제의 개국을 금마산으로 지칭함에 따라 ‘마한=백제’의 등식은 ‘마한=금마’의 관계를 성립시키고 ‘금마=준왕’의 남천지라는 추론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기원전 2세기 초를 기준으로 청동기와 철기의 조합을 이루는 대규모 유적은 익산이 아니라 만경강 이남인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이다. 고조선의 준왕이 바다를 건너 육지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문화는 한국식동검과 세문경을 비롯하여 철기를 소유한 집단이었다. 일반적으로 준왕의 남천 시기에 대해서는 기원전 2세기 초로 이해되고 있다. 기원전 2세기대의 철기가 공반되는 무덤유적은 익산에 소수 분포하는 반면,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에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 성과를 발굴조사와 개발의 한계로 말미암은 반론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신평유적에서 조사된 5개 단위의 조직적인 무덤 조성과 시기는 전기 마한 지역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만경강 유역은 바다를 건너 육지로 들어온 준왕 세력의 활동 배경이었음에 분명하다. 그리고 익산·완주·전주를 포괄하는 만경강 수계권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청동기·철기문화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분포역이다(최완규, 2016). 그러나 익산과 전주의 세부 지형과 환경은 그 의지하는 배경이 서로 다르다. 익산은 미륵산(429.9m)과 용화산(321.1m)을 배경으로 왕궁면, 금마면, 황등면, 삼기면 등 대단위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어 금강으로부터 개방적 성격이 너무 강하다. 반면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은 홍산(216.5m)과 황방산(194.4m)을 배경으로 서쪽과 동쪽을 갈라 주고, 삼천과 전주천에 면해 있어 상대적으로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다. 준왕 세력은 능동적으로 이주해 온 집단이 아니다. 위만조선에 침략당하여 쫓겨 도망한 집단이기 때문에 익산처럼 개방적인 곳보다는 방어와 은폐의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수많은 무덤이 황방산 서편에 자리하는 이유는 서쪽으로 공개되지 않는 황방산 동편 일원에 대단위 취락이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0). 신평이나 갈동유적과 같은 대형 군집묘의 탄생은 중심 촌락의 형성과 촌락 간의 사회적 계층화를 상징할 수 있는 근거(김승옥, 2017)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황방산 동편에 자리하는 마전 I·II·IV 유적(호남문화재연구원, 2008)의 수혈과 구상유구에서 출토되는 원형점토대토기편, 조합식우각형과수부토기편, 두형토기, 편평삼각석촉 등의 존재는 주목할 만하다. 신평유적은 원형점토대토기 일색이며 조합식우각형과수부토기가 공반되는 것이 특징이고, 갈동유적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결국,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가 기원전 2세기대를 대표하는 무문토기로서, 삼각형점토대토기는 기원전 1세기대의 표지유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10〉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과 주변 지역과의 거리 비교

셋째, 취락의 구성과 관련하여 백제와 신라 등 고대사회에서 주거지역과 매장지의 거리는 대략 5km 내외에 자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10km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평유적을 중심으로 만경강 유역을 살펴보면 5km 범위 내에 황방산과 홍산을 중심으로 동사면을 이루는 지대와 남쪽의 효자동 일원의 구릉들이 분포한다(그림 10). 이곳은 동향(東向)을 이루고, 삼천을 동쪽 경계로 하는 배산임수의 완만한 구릉지대로서 주거지역으로 추측해 볼 만하다. 준왕의 남천은 일반적인 국가의 천도와 성격이 달랐을 것이라는 점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그들은 쫓겨서 도망온 것이므로, 궁실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장애요소들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유사』 「고구려」 조에 “주몽이 오이 등 세 사람과 함께 부여를 탈출한 뒤 졸본주(卒本州)에 이르러 도읍을 하였고, 미처 궁실을 지을 여유가 없어 비류수(沸流水) 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여 국호를 고구려로 삼았다.”는 기록을 보더라도 쫓겨 도망한 이주집단의 정착은 여러 가지로 녹록치 않았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면, 준왕의 궁실을 비롯한 주거영역[마을]에는 전국계 철기뿐만 아니라 철기를 제작하는 공방, 원형점토대토기를 비롯한 흑도장경호, 그리고 늦은 단계(기원전 2세기 말~기원전 1세기)에 삼각형점토대토기 등이 발견

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

만경강 유역은 한국식동검문화와 전국계 철기문화가 복합을 이루어 새로운 정치 세력의 탄생을 만들어 낸 곳이다. 준왕 집단 이주 1세대와 2세대들은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을 배경으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였고, 드디어 기록에서와 같이 한왕(韓王)으로 등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통합과 안정의 시대를 겪으면서 혁신도시 일원의 분포역은 익산 일대까지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익산 평장리 출토 운문지사엽사리문경(雲文地四葉四螭文鏡)은 이러한 추론의 근거가 된다. 평장리 사리문경은 한국식동검과의 공반관계상 기원전 1세기로 편년되어 왔지만, 일본 한경 편년의 수정안에 따라 기원전 2세기 2/4분기까지 소급(岡村秀典, 2007; 정인성, 2015 재인용)되었기 때문이다.<sup>6</sup> 따라서 기원전 2세기 초에 터전을 마련하고 기원전 2세기 중반을 전후하면서 만경강 유역의 정세를 완전히 장악해 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로 마한왕으로서의 헤게모니 쟁탈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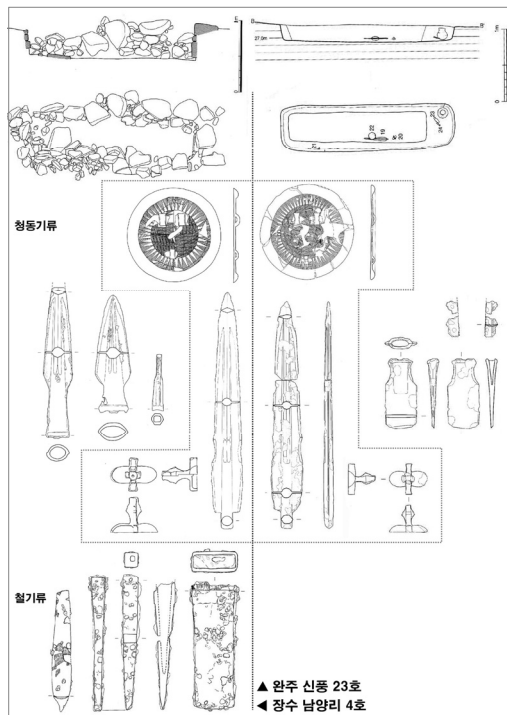
이러한 세력 확장은 기원전 2세기대 중반을 전후하여 정치체의 지역적인 분산, 이주(移駐)와 같은 형태로 구체화되는 동시에 준왕 이래 절멸의 시대가 점점 도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에서 전통성을 유지하며 정착했던 특정 세력은 결국 쇠락의 운명을 맞게 되고, 각 지역으로 분산된 세력들은 후기 마한의 원동력 역할을 했거나 통합 또는 병합의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장수 남양리유적의 성격은 간과할 수 없다. 원형점토대토기, 전국계 철기와 한국식동검, 동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넓게 보면 기원전 2세기대(조진

---

6 정인성(2015)은 평장리 사리문경(또는 蟠螭文鏡)의 연대가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2/4분기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사리문경보다 제작 연대가 소급될 수 있는 전국계 주조철부의 연대를 당연히 올려야 할 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의 단조철기와 와질토기의 발생 연대도 소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원전 2세기 말에 (위만)조선의 우거왕(右渠王)이 진국(辰國)과 한(漢) 간의 교역을 방해했던 것을 고려하면 2세기대에 한의 문물이 특정 계층에, 직·간접적으로 마한 지역까지 교류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전방위적 연대 소급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선, 2005; 한수영, 2015), 좁혀 보면 기원전 2세기 중반~후반 사이에 조성된 유적으로 볼 수 있다(한수영, 2016). 이 유적은 장수 지역이 갖는 교통로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문물교류의 내륙 루트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곽장근, 2003) 유적의 성격과 형성 배경은 매우 중요하다. 서북한 지역의 문물이 영남 지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거나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의 준왕 세력의 일부가 지역적 확장 또는 분산 과정에서 형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적의 시기로 미루어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추정된다. 남양리 4호 출토 한국 식동검, 검과두식, 다뉴세문경(3뉴)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완주 신평유적 나지구 23호 토광묘 출토품들과 매우 유사한 전통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질이 자갈층으로, 청동제 공구류(동부, 동사)가 전국계 철제 공구류(철부, 찰착, 철사)로 대체되었을 뿐이다(그림 11). 그렇지만 이 문제는 유물 간 친연성을 넘어 물질문화의 유통과 교류적 관점에서 좀 더 밀도 있는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11〉 완주 신평 23호-장수 남양리 4호 비교(축척 동일)

기원전 1세기대에 들어서면 가장 현격한 특징은 한(漢)의 문물이 급속하게 과급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적들은 대부분 익산 일원에서 조사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평장리 출토 사리문경이 한경(漢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준왕 집단의 2세대 정도에서는 익산 일원이 개방성에 따른 불안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훨씬 유용한 지역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판단은 기원전 1세기대까지 유지되었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기원전 2~1세기 주요 정치세력의 문화적 성격

| 구분       | 주요 유적  | 주요 유물   | 무덤 형식                   | 비고                                       |
|----------|--|---|-------------------------|--|
| 기원전 2세기대 | 혁신도 신평·갈동<br>전주 효자동4<br>익산 평장리--<br>장수 남양리-- | 한국식동검, 세문경, 간두령 동모, 동과<br>철부, 철착, 철사, 철검<br>한경(사리문경), 유리환<br>원형점토대토기 지속(중심) | 토광묘 :<br>(목관묘)<br>(직장묘) | 신평 토광묘 81기<br>-6개群(나지구 포함)<br>주변 지역으로 과급 |
| 기원전 1세기대 | 익산 신동리<br>익산 어양동<br>익산 계문동                   | 한국식동검, 검과두식<br>철부, 철촉, 철도자<br>삼각형점토대토기 중심                                   | 토광묘<br>옹관묘              |  |

#### IV. 맺음말

지금까지 청동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 전북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동기시대의 정치세력은 개인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교섭이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위계를 형성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정치경제적 구도를 완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초기철기시대는 전쟁, 이주, 문물교류와 문화적 과급 등 이전 시대보다 좀 더 동적인 정치세력의 설정과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문화적 복합 양상이 뚜렷하며, 세력 간 견제와 통합이라는 측면을 역사 기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점은 강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전북 지역의 정치세력의 특징을 압축·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 지역에서 정치세력의 형성은 고창 지식묘 사회, 만경강 유역과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의 송국리형문화 취락사회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특히 만경강 유역은 전주천을 배경으로 하는 전주 동산동 취락이고, 진안 용담댐 일원은 정천면 여의곡 취락으로 특정할 수 있다. 두 취락은 청동기시대에 거점취락으로서 지역연계망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정치세력은 초기철기시대에 들어와 '國'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회조직과 위계체계로 공식화되는데, 이러한 정체세력의 원초적인 중심지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으로 판단되며, 황방산과 홍산을 배경으로 하는 이 지역 일대는 전북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치의 오리진(Origin)이었다고 사료된다. 특히 청동기시대에는 가까운 거리에 동산동 거점취락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전통성과 역사성은 더욱 공고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과 익산 일원을 포괄하는 만경강 유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의 동일 분포역으로, 토착의 재지민들과 유이민들의 통합과 견제가 존재했던 지역적 역사성을 가지며, 무덤의 다양성은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 준다. 특히 마한 54국 중 여러 '國'들의 형성과 궤를 같이할 뿐만 아니라 별읍인 소도의 존재가 결부되기 때문에 신지와 천군의 관계 속에서 정치·사회적 관계를 밀도 있게 살펴 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전북 지역의 좀 더 구체적이고 특정할 수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황방산·홍산 일원에 대한 정밀조사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매장지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三國遺事』
- 광장근, 『長水郡의 古墳文化』, 長水文化院, 2003.
- 국립전주박물관,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혁신도시 유적, 유물, 발굴, 그리고 전시』 특별전 도록, 2016.
- \_\_\_\_\_,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 특별전 도록, 2019.
- \_\_\_\_\_, 『완주 상림리 靑銅劍』 특별전 도록, 2015.
- \_\_\_\_\_, 『益山익산』 전북의 여가문물전 12, 2013.
- 국립전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완주 상림리 靑銅劍의 재조명』 학술세미나, 2014.
- 국립전주박물관·호남문화재연구원, 『금강의 새로운 힘-2100년 전 완주 사람들』 특별전 도록, 2011.
- 국사편찬위원회, 『中國正史 朝鮮傳 譯主』 一, 2004.
- 金範哲, 「중서부지역 靑銅器時代 水稻 生産의 政治經濟-錦江 中·하류역 松菊里型 聚落體系의 위계 성과 稻作集約化-」, 『한국고고학보』 58, 한국고고학회, 2006.
- 김승욱, 「만경강 일대 선사문화의 전개와 성격」, 『호남고고학보』 55, 호남고고학회, 2017.
- 金元龍, 「益山地域의 靑銅器文化」, 『馬韓百濟文化』 2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77.
- \_\_\_\_\_, 『韓國考古學概說』 第三版, 一志社, 1986.
- 金貞培, 「準王 및 辰國과 「三韓正統論」의 諸問題」, 『韓國史研究』 13, 한국사연구회, 1976.
- 노지현, 「동주식동검의 과학적 분석」, 『완주 상림리 靑銅劍』, 국립전주박물관, 2015.
- 박순발, 「마한의 시작과 종말」, 『익산지역 마한 풍속의 지역전략화 조사 연구』, 익산시·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8.
- 완주군·국립전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만경강유역의 고고학적 성과』 공동 학술대회, 2019.
- 이근무, 「한국 청동기문화와 중국식동검-상림리 유적 출토 중국식동검을 중심으로-」, 『완주 상림리 靑銅劍의 재조명』, 국립전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2014.
- 이나경, 「완주 상림리 동검의 특징」, 『완주 상림리 靑銅劍의 재조명』, 국립전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2014.
- 이송래, 「세계의 지식묘 : 인도·인도네시아」, 『한국 지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I)』,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 이영문·신경숙, 『세계유산 고창고인돌』, 고창군·동북아지식묘연구소, 2009.
- 李宗哲, 「立大木·숫대 祭儀의 등장과 전개에 대한 試論」, 『한국고고학보』 106, 한국고고학회, 2018.
- \_\_\_\_\_, 『松菊里型文化의 聚落體制와 發展』, 全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5.
- \_\_\_\_\_, 「청동기시대 송국리형 문화의 취락사회와 사회발전단계」,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정치·사회

- 변동』, 국립청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발표요지, 2019.
- \_\_\_\_\_, 「취락의 지역상-호남·제주 지역」, 『聚落』,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3(김권구·공민규 편), 서경문화사, 2014.
  - 익산시·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지역 마한 풍속의 지역전략화 조사 연구』, 2018.
  - 익산시·한국고대사학회, 『고조선과 익산』, 2015.
  - 정구복 외, 『譯註 三國史記 권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정인성, 「고고학적 관점에서 본 고조선 시기 황황해교류」, 『고조선과 익산』, 익산시·한국고대사학회, 2015,
  - 조진선, 「초기철기시대 중원식동검의 등장 배경-편년을 중심으로-」, 『완주 상림리 靑銅劍의 재조명』, 국립전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2014.
  - \_\_\_\_\_, 『細形銅劍文化의 研究』, 學研文化社, 2005.
  - 조현중, 「한반도 선사시대 약기」, 『북녘의 문화유산』, 국립중앙박물관, 2006.
  - 崔夢龍, 「湖南地方의 支石墓社會」, 『韓國 支石墓의 諸問題』, 第14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韓國考古學會, 1990.
  - 최완규, 「전북 혁신도시의 역사와 문화」,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혁신도시 유적, 유물, 발굴, 그리고 전시』 특별전 도록, 2016.
  - 키징, 로저(전경수 역), 『現代文化人類學』, 玄音社, 1990.
  - 한수영, 「완주 신평유적을 중심으로 본 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 『호남고고학보』 56, 호남고고학회, 2017.
  - \_\_\_\_\_, 「장수지역 철기문화의 출현과 전개-남양리유적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전라북도·장수군·장수군의회·장수가야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 2016.
  - \_\_\_\_\_, 『全北地域 初期鐵器時代 墳墓 研究』, 全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5.
- 
- 全北大學校博物館, 『如意谷遺蹟』, 鎭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VIII, 2001.
  - 전북문화재연구원, 『全州 東山洞 靑銅器時代 聚落』 3권(고찰·부록), 2015.
  - \_\_\_\_\_, 『군산 선제리 108-16번지 유적』, 2017.
  - 湖南文化財研究院, 『全州 馬田遺蹟』 I, II, IV, 2008.
  - \_\_\_\_\_, 『完州 新豐遺蹟』 II, 2014.

##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전북 지역의 정치세력」에 관한 토론문

한 수 영(호남문화재연구원)

청동기시대는 농경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며, 초기철기시대는 고대국가의 기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선사와 역사시대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문헌 자료가 빈약하고, 물질문화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다양한 논쟁이 되는 시기 중의 하나이다.

본 발표에서는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 정치세력의 변화와 성격을 다루고 있다. 그동안 고고학 자료와 문헌을 접목시킨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비교적 최근에 조사된 전주·완주 지역의 획기적인 성과를 종합하여 준왕의 남래를 깊이 있게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쉽지 않은 길을 개척한 발표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토론자 역시 이 글의 논지에 대부분 공감하는 바이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발표 내용에 나와 있듯이 청동기시대 전북 지역은 서쪽은 전주 동산동유적, 동쪽은 진안 여의곡유적이라는 거점 취락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이 이루어졌다. 두 문화는 송국리형 주거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무덤에 있어서는 출자부터 다른 양상을 보이고, 동산동유적이 위치한 서부지역은 초기철기문화로 이어지지만, 여의곡유적은 변화 양상이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두 거점 취락의 공통점과 차이점,



또한 두 지역의 변화 양상에 대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발표자께서는 동산동유적에서 제작된 대형과 초대형 집자리를 통해 장인집단과 전문화·분업화 양상을 추출해 볼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있다. 취락에서 집자리의 규모를 위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집자리의 규모와 위계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또한 일반적인 청동기 시대 전문화·분업화는 원산지가 제한적인 석기나 홍도, 제작 공정이 복잡한 옥 장신구 등 유물을 통해 추정되어 온바, 동산동유적에서 유물을 통한 장인집단의 양상이 나타나는지, 나타난다면 이와 연관되어 생산과 소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

3. 한반도 청동기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원전 3세기를 중심으로 제작된 팔주령·쌍두령과 같은 청동방울류라고 할 수 있으며, 발표자께서는 이를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天君)의 표징으로 보고 있다. 천군의 전형적인 유적으로 화순 대곡리를 들고, 화순 대곡리와 동일한 대형 적석목관묘이지만 청동방울류가 출토되지 않은 전주 원만성유적의 무덤은 정치집단의 우두머리인 신지(臣智)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화순 대곡리와 전주 원만성은 단독 묘 성격이 강하고, 무덤의 형식이 유사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대곡리에는 제(祭)를 상징하는 의기류와 정(政)을 상징하는 무기류가 공반된 반면, 전주 원만성의 유물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또한 청동방울은 일부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이를 마한의 전체적인 특징으로 보기에는 무리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치집단의 우두머리는 그 집단의 묘역 안에서 규모가 크거나, 부장품 양상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질적이고 유물이 빈약한 전주 원만성보다 석개토광묘 집단을 상징하는 전주 여의동 1호묘, 토광(목관)묘 집단을 상징하는 전주 원장동 1호가 정치집단의 우두머리에 가깝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

의 의견을 듣고 싶다.

4. 현재까지 조사된 고고학 자료로 보았을 때, 준왕 남래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유적이 조사된 지역은 전주·완주 일대가 월등하며, 시기적으로도 기원전 2세기 이후부터 유적이 급증하고 있다. 남하한 준왕의 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나, 한왕(韓王)에 오른 것을 보면 당시 재지세력을 장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준왕 남래와 관련하여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준왕 세력과 연관된 서북한 지역의 물질문화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 시기 전주·완주 지역의 물질문화는 청동기가 발달하고 철기가 유입된 점을 꼽을 수 있는데, 세형동검은 아산만 일대에서 발전하여 서북한 지역은 북쪽 경계에 해당하고, 세문경 역시 전주·완주 지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즉 청동기 제작과 관련하여 준왕 집단이 미친 영향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철기 또한 전주·완주 지역의 철기가 서북한 지역과 연관이 있지만,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주조철부와 철사·철착과 같은 공구류이며, 다른 유물에 비해 비중도 높지 않다. 준왕 남래 시점을 전후하여 위세품이 등장하거나 재지문화가 급격히 달라지는 양상도 보이지 않는다. 준왕 남래와 관련된 재지문화의 양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발표자의 보충 설명을 부탁드린다.

# 호남 지역 철기문화 중심 세력의 성격과 특성

---

김 상 민 | 목포대학교

I. 머리말

II.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고고학적 현상

III. 호남 지역 철기문화 중심 세력의 성립과 전개

IV.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중심 세력과 3세기 대 지역 정치체의 등장

V. 맺음말

---

## I. 머리말

한반도 철기문화는 지리적으로 중국 대륙과 인접한 압록강~청천강 유역 일대의 서북부지역에 유입된 이후 남부지역으로 남하한다고 이해된다. 남부지역에서도 소위 ‘마한’에 해당하는 호서·호남 지역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철기가 유입되었고, ‘진·변한’인 영남 지역은 호서·호남 지역보다 늦은 시점에 철기가 등장한다. 이것은 두 지역에서 보이는 철기류 구성의 차이, 즉 호서·호남 지역의 초기철기는 주조제 농공구만이 출토되지만, 영남 지역의 초기철기는 주조제 농공구를 포함한 단조제 농공구 및 무기류가 출토되는 점에 주목한 것이었다.

결국 낙랑군 설치를 기점으로 한나라의 단조철기문화가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반입되는데, 단조철기가 보이지 않는 호남·호서 지역은 낙랑군 설치 이전인 기원전 2세기 대, 단조철기가 출토되는 영남 지역은 낙랑군 설치 이후인 기원전 1세기 대에 각각 철기문화가 유입된다고 보았다.

더불어 호남·호서 지역 철기문화의 유입 배경은 문헌에 기록된 위만조선의 성립에 따른 준왕의 남천과 관련하여 해석하면서 기원전 2세기라는 초기철기 유입 시기가 비정되었다(박순발, 1993·2004; 이남규, 2002; 한수영, 2017). 반면 한반도 남부 지역 철기문화의 유입 연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어, 호서·호남 지역 철기문화를 비롯한 한반도 철기문화의 유입 연대를 전반적으로 상향하려는 경향도 확인된다(이창희, 2010; 김상민, 2013·2018·2019a; 정인성, 2016). 특히 완주 갈동 유적의 2·3호에서 출토된 철검은 전형적인 연나라 철검이라고 이해되고 있음에도 그 시기는 기원전 1세기 대로 비정하는 서로 다른 관점도 존재한다(한수영, 2004·2015).

한편 호서·호남 지역의 철기문화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철기가 유입됨에도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반면 영남 지역은 철기의 유입 시기가 비교적 늦은 편이지만, 연속적으로 발전하여 가야, 신라의 철기문화로 이어진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하여 소위 호서·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단절기’ 또는 ‘공백기’로 보고 있다. 기원전 3~1세기 대에 철기가 등장하고 발전하지만, 기원후 1~2세기 대에 철기문화의 특징은 보이지 않으며 기원후 3세기 대 이후 다시 철기문화의 지역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현상에 대해 기원 전후에서 기원후 2세기 대의 철기문화를 알려 주는 물질자료가 극히 적다는 것을 이유로 낙랑군이 설치된 기원전 1세기를 기점으로 호서·호남 지역의 철기문화는 단절되었다고 보았다(李南珪, 2005·2007; 김영민, 2010; 이동관, 2017). 그리고 그 배경은 낙랑군의 기미책(羈縻策)에 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발표자에게 주어진 주제는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중심 세력에 대한 고고학적 현상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것은 호남 지역의 고대 정치체와 5세기 대 전북 동부지역에 등장하는 가야 세력과의 관계를 함께 풀어내기 위한 시도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호남 지역은 초기철기의 등장부터 삼국시대 철기문화의 발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연속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3세기 이후 등장하는 철기문화도 지역성이 강하여 그 편차가 크다. 여기서는 초기철기에서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고고학적 양상을 정리하고 시기별 중심 세력의 위치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호남 지역 철기문화와 2~3세기 고대 정치체와의 상호관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발표자의 역량 부족으로 호남 지역 고대 정치체와 전북 동부 지역 가야와의 상호관계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였음을 미리 제시해 둔다.

## II.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고고학적 현상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호남 지역의 철기문화에 대한 연구는 철기의 등장부터 소위 ‘공백기’ 이전까지인 기원전 3세기~기원 1세기 대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호남 지역에 등장하는 철기류는 청동제 무기류와 공반되는 부장 양상을 띠어 봉산 송산리 [솔피궤] 유적의 철기와 비교하여 동일 문화권으로 보았다(이남규, 2002·2018). 이러

한 특징에 기초해 호남 지역 초기철기 유적도 금강유역권과 함께 중서부 일부로 설정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자료의 증가와 함께 다시 지역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여기서 살피는 호남 지역의 유적·유물은 기원전 3세기~기원 1세기 대의 분묘 출토 철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시기 호남 지역의 분묘 내 철기가 부장되는 유적은 11개소로 약 65점이다. 여기에 금강유역권까지 포함하면 17개소 80여 점에 이른다. 본 발표에서는 금강·만경강유역권과 영산강·서남해안권으로 구분하여 분묘 부장 철기의 특징을 정리하고 시기별 중심 세력을 특정해 보고자 한다.

## 1. 금강·만경강유역권

금강·만경강유역권의 초기철기는 대부분 목관묘, 석관묘, 토광묘와 같은 분묘에서 출토된다. 철기는 주조품으로 철부가 다수를 차지하며, 철검·철착·철사와 같은 농공구도 확인된다. 또한 철기류와 함께 세형동검이나 동과, 동모와 같은 청동무기류가 공반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부여 합송리, 장수 남양리, 완주 갈동·신흥유적 등이 있다.

일찍이 익산 이제유적과 다송리, 평장리유적에서 세형동검문화가 발견된 이후 이 지역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 부여 합송리유적과 당진 소소리유적, 장수 남양리유적의 조사부터이다. 청동기와 공반되는 주조철부와 철착은 한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봉산 송산리유적, 배천 석산리[돌피골]유적 부장품과 비교되며, 중국 요령 지역으로 확산된 연나라 계통의 철기문화인 ‘연계(燕系)’철기가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금강 유역에 자리잡은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세형동검과 점토대토기, 철기라는 유물 구성은 2000년대 초중반 완주 갈동유적의 발견, 전주 혁신도시 개발구역 일대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만경강 유역 중류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상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간 주목받았던 익산과 금강 유역에서 간헐적으로 보이던 세형동검 문화와 철기가 부장된 한두 기의 분묘는 단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완주 신평유적에서 보이는 군집 무덤의 부장품이 주목된다. 신평유적은 최상급의 청동기가 부장되며, 다양한 철기가 함께 출토되어 기존 집단과 차별화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청동제 검과 창, 꺾창 등 여러 종류의 무기류와 청동방울과 거울 등 제사와 관련된 무구(巫具)류가 출토된다는 것은 군사와 제사를 주관하는 군장으로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sup>1</sup> 즉 족장사회에서 국가 이전 단계의 시스템을 보유한 집단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금강과 만경강 유역에서 보이는 군장의 등장은 다소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기원전 2세기를 전후한 시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점과 철기의 유입 연대와 그 배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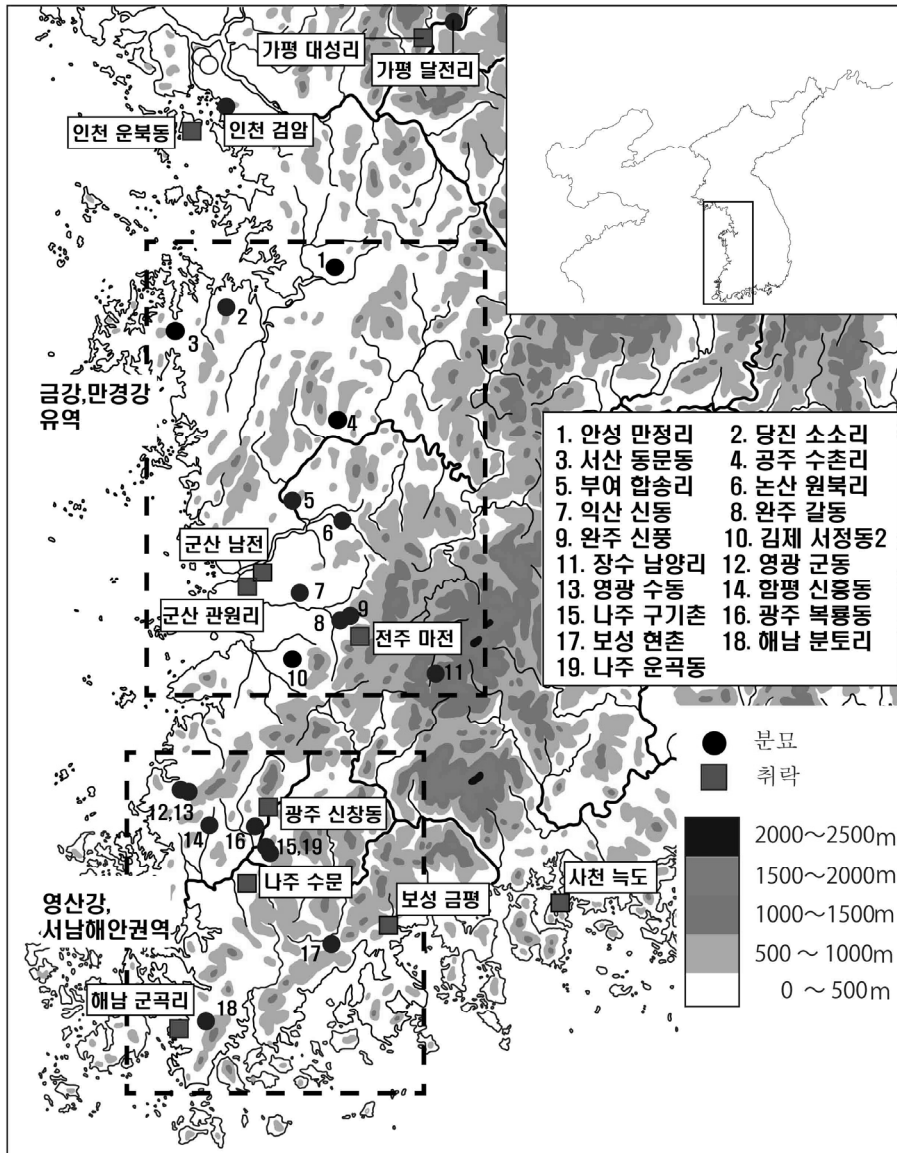
〈표 1〉 초기철기·원삼국시대 호남 지역 부장철기의 현황

| 순번 | 유적     | 유구   | 철기류              | 공반유물                              | 참고문헌              |
|----|--------|------|------------------|-----------------------------------|-------------------|
| 1  | 안성 만정리 | 나-1호 | 철촉2              | 석촉9, 청동촉2                         | 경기문화재연구원(2009)    |
| 2  | 당진 소소리 |      | 주조철부, 철착2        | 세형동검, 동과, 세문경                     | 李健茂(1991)         |
| 3  | 서산 동문동 | 1호   | 주조철부, 철사         | 평저장경호, 동과, 세형동검<br>검파두식, 연결금구, 석촉 | 충청문화재연구원(2017)    |
| 4  | 공주 수촌리 |      | 주조철부, 판상철기<br>철사 | 점토대토기, 세형동검, 검파두식<br>동착, 관옥       | 忠淸南道歷史文化研究院(2007) |
| 5  | 부여 합송리 |      | 주조철부2, 철착        | 세형동검2, 동과, 동탁2<br>흑색토기편           | 李健茂(1990)         |
| 6  | 논산 원북리 |      | 주조철부             | 세형동검편, 동착, 동경편                    | (財)中央文化財研究院(2001) |
| 7  | 익산 신동  | 1호   | 주조철부             | 세형동검, 점토대토기                       | 崔完奎외(2005)        |
|    |        | 2호   | 철사               | 점토대토기                             |                   |
| 8  | 완주 갈동  | 2호   | 주조철검             | 세형동검·동과 용범                        | (財)湖南文化財研究院(2005) |
|    |        | 3호   | 주조철부, 주조철검       | 점토대토기, 평저장경호, 동촉                  |                   |
|    |        | 4호   | 주조철부2            | 점토대토기                             |                   |
|    |        | 6호   | 주조철부2            | 조합식 파수부호                          | (財)湖南文化財研究院(2009) |
|    |        | 9호   | 주조철부2            | 동부편                               |                   |

1 이청규는 남한 지역 초기 수장의 성격을 3개의 부류로 나누고 족장과 전사적 지도자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군장, 군사적 지도자의 면모를 가진 생산경제를 중시하는 군장으로 구분하였다(이청규, 2019).

|    |         |      |                                |                                 |                       |
|----|---------|------|--------------------------------|---------------------------------|-----------------------|
| 9  | 완주 신평   | 22호  | 주조철부                           | 세형동검                            | (財)湖南文化財<br>研究院(2014) |
|    |         | 36호  | 주조철부                           | 평저장경호2                          |                       |
|    |         | 40호  | 철제품                            | 동착                              |                       |
|    |         | 41호  | 철착2                            | 평저장경호편                          |                       |
|    |         | 42호  | 환두도자편                          | 평저장경호, 환형유리, 석촉                 |                       |
|    |         | 43호  | 환두도자편, 철사                      | 세문경, 평저장경호                      |                       |
|    |         | 47호  | 주조철부                           | 세형동검                            |                       |
|    |         | 51호  | 환두도자편                          | .                               |                       |
|    |         | 54호  | 주조철부, 철도자                      | 간두령, 동사, 평저장경호4                 |                       |
|    |         | 56호  | 주조철부, 철도자                      | 평저장경호, 대부발                      |                       |
|    |         | 57호  | 철촉                             | 석촉, 점토대토기편, 평저장경호               |                       |
| 10 | 김제 서정동2 | 1호   | 철검, 철모?                        | 세형동검, 검과두식                      | 전라문화유산<br>연구원(2014)   |
|    |         | 2호   | 주조철부2                          | 석촉                              |                       |
| 11 | 장수 남양리  | 1호   | 주조철부, 철착                       | 세형동검, 점토대토기                     | 池健吉(1990)             |
|    |         | 2호   | 철사                             | 점토대토기                           |                       |
|    |         | 3호   | 주조철부2, 철사2                     | 세형동검                            | 尹德香(2000)             |
|    |         | 4호   | 주조철부, 철착, 철사                   | 세형동검, 동착, 동모2, 세문경              |                       |
| 12 | 영광 군동   | B-3호 | 철검                             | 점토대토기, 평저장경호                    | 최성락외(2001)            |
| 13 | 영광 수동   |      | 철도자                            | 방제경2, 조문동기                      | 조선대학교<br>박물관(2003)    |
| 14 | 함평 신흥동  | 2호   | 철검                             | .                               | 대한문화재<br>연구원(2016)    |
|    |         | 5호   | 단조철부, 철검<br>관상철부<br>철검, 철모, 철사 | 구연부편, 환옥                        |                       |
| 15 | 나주 구기촌  | 1호   | 초(鉏)형철기                        | 점토대토기, 호형토기2                    | 全南文化財<br>研究院(2016)    |
|    |         | 2호   | 단조철부, 관상철부<br>철검, 철모, 철사2      | 호형토기2                           |                       |
|    |         | 5호   | 철모                             | 무문계토기편                          |                       |
|    |         | 9호   | 단조철부, 鐵劍, 철모                   | 호형토기, 청동제검과두식<br>우각형동기, 삼각형동기 등 |                       |
|    |         | 10호  | 철검                             | 점토대토기, 평저장경호3                   |                       |
| 16 | 광주 북룡동  | 2-2호 | 철검편                            | 점토대토기, 옹형토기, 완                  | 東北亞支石墓研<br>究所(2018)   |
| 17 | 보성 현촌   | 원1호  | 재갈                             | 점토대토기2, 세형동검, 석촉2               | 동국문화재<br>연구원(2019)    |
|    |         | 원3호  | 주조철부, 철착                       | 세형동검, 동모,<br>검과두식, 석촉14         |                       |
| 18 | 해남 분토   | 3호   | 철검, 철모                         | 외반구연호2, 옹형토기, 석촉                | 전남문화재<br>연구원(2008)    |
| 19 | 나주 윤곡동  | 다-1호 | 철착                             | 세형동검편                           | 마한문화연구원<br>(20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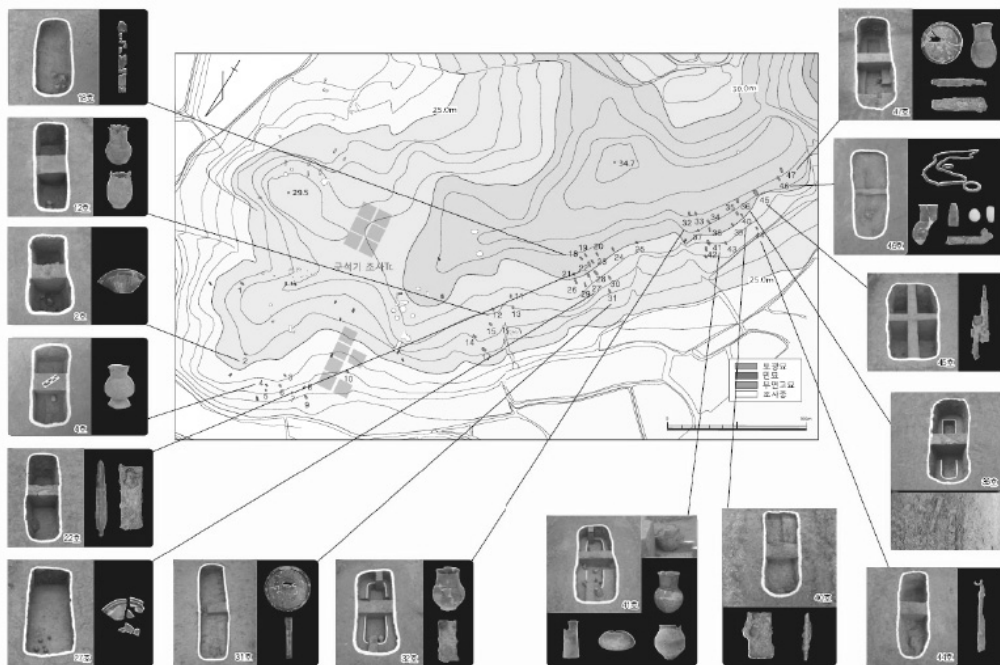


〈그림 1〉 초기철기~원삼국시대 호남 지역 주요 유적 현황

갈동 2호와 3호묘에 부장된 철검은 중국 연나라의 도성인 연하도(燕下都)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기원전 3세기 대에 동북아시아 일대로 널리 확산된다. 이 주조철검은 학계에서 철기의 유입 연대를 새롭게 다시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연나라 계통의 철기와는 별도로 연나라에서 제작된 후 유입된 ‘연산(燕産)’철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김상민, 2018). 즉 연나라에서 제작된 연산철기와 연나라 철기

를 모방하여 제작한 연계(燕系)철기를 구분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연나라 철기와 한반도 남부지역 초기철기가 어떻게 다른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주조철부 중 신부(身部)가 길고 공부(釜部)에 띠가 돌아가는 형태가 주목된다. 이 주조철부의 신부 중앙에는 공통적으로 형지공(型持孔)이 부정형하게 뚫려 있는데, 형지공은 청동부에서 주로 발견되므로 청동기 제작기법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정인성, 2016).

현재까지 조사된 금강·만경강 유역의 초기철기를 정리하면, 금강의 분류와 인접된 지역인 부여 합송리, 논산 원북리, 익산 신동유적 등과 같이 1~2기 정도의 소규모 분묘에 철기가 부장되는 유형과 만경강 유역을 따라 전북 내륙에 인접한 지역에 형성된 대규모 분묘군에서는 철기가 부장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군집묘로서 70여 기에 가까운 초기철기시대 분묘군이 확인되었는데, 철기는 주조품뿐만 아니라 일부 단조품도 확인되어 주목된다.



〈그림 2〉 원주 신평유적의 철기와 부장품(국립전주박물관, 2012)

## 2. 영산강·서남해안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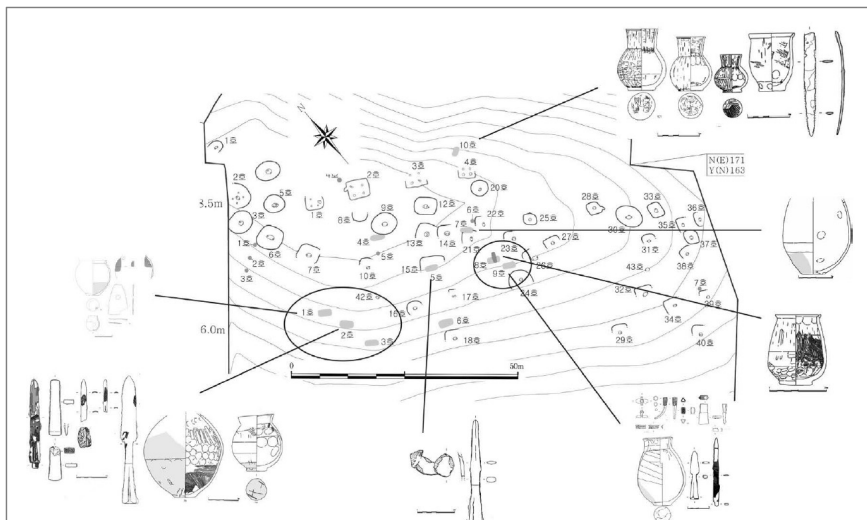
영산강·서남해안권의 초기철기는 금강·만경강유역권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광주 신창동유적 내 초기 용관묘로 구성된 분묘에서 철편 2점이 보고된 바 있으나(金元龍, 1964), 그 구체적인 형상은 알 수 없었다. 이후 신창동유적은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연대를 비정할 수 있는 다양한 무문계 토기류와 야요이토기, 낙랑계 토기가 출토되어 기원전 1세기 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취락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철기는 철검, 철경동축이 출토된 바 있으나 그 수량이 많지 않고 유구의 성격도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신창동유적은 철경동축을 근거로 적어도 기원전 1세기 대 철기의 유입이 있었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유적 내 출토된 다양한 목기류 중에는 세형동검을 모방한 목검뿐만 아니라, 철제단검과 장검을 모방한 목기들도 존재한다(김상민, 2013a). 이 같은 현상은 신창동유적이 존속하던 시기에 영산강 유역 내 철제 무기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이후 해남 군곡리, 보성 금평, 나주 수문패총 등 일부 서남해안의 패총 조사에서 영산강 유역 초기철기의 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그렇지만 금강·만경강 유역의 분묘 출토품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철기류의 기종 차가 커서 함께 다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군곡리패총의 철도자와 도자병이 출토된 2차 7층의 연대는 기원전 1세기경으로 비정하기도 하였다(김상민, 2019b).

최근 조사보고된 나주 구기촌, 함평 신흥동Ⅳ, 광주 복룡동유적에서는 단조제 철기가 부장된다. 구기촌과 신흥동Ⅳ유적에서는 철검 등 단조제 무기류가 부장되는데,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소위 경질무문계 토기류가 공반된다. 일부 분묘에서는 단조제 철기류의 복수부장도 확인된다. 이 유적들은 아직 그 수가 적고 무덤의 집중도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군집 단계의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구기촌유적은 금강·만경강 유역의 유적과 연관성을 염두하며 그 시기를 기원전 2세기 대까지 상향하기도 한다(최성락, 2017). 그럼에도 금강·만경강유역권의 초기철기와 유물의 기종과 공반 양상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주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리적으로

금강·만경강 유역과 영산강 유역의 중간인 서해안 일대에 위치하는 영광 군동유적이 주목된다. 영광 군동유적은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의 토광묘 내에서 철검이 부장되는데, 금강·만경강 유역의 연계 철기문화와 차이점이 지적된 바 있다(김상민, 2013a·b).

한편 일부 금강·만경강 유역의 초기철기와 동시기로 볼 수 있는 유적이 제시된 바 있다. 나주 운곡동유적 다-1호 지석묘에서 출토된 세형동검과 철착의 출토 위치를 재검토하여 부장품임을 확인하고 영산강 유역의 가장 이른 철기로 본다(김진영, 2018). 또한 최근 조사된 보성 현촌유적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이조돌대 주조철부가 함께 부장되어 주목받고 있다(김성영, 2019).



<그림 3> 나주 구기촌유적의 철기와 부장품(김진영, 2018)

현재까지 조사된 영산강·서남해안권을 정리하면, 그동안 잘 알려진 광주 신창동 유적과 해남 군곡리패총 등에서 출토된 철기류는 유구를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성격을 알 수 없던 반면, 최근 조사된 분묘 내 부장된 철기는 단조제 무기류가 포함된 구성으로 삼각형점토대와 경질무문계 토기가 공반되는 공통점이 있다. 지석묘 부장품인 주조철착에 대한 새로운 인식, 목관묘 내 부장된 이조돌대 주조철부와 철착으로 구성된 주조제 농공구의 발견 등은 향후 금강·만경강 유역의 초기철기와 비교할 수 있는 유적으로서 주목된다.

### Ⅲ. 호남 지역 철기문화 중심 세력의 성립과 전개

발표자는 호남 지역을 포함한 마한권역 철기문화의 등장과 변천에 대해서 논한 바 있다. 금강·만경강 유역 초기철기류를 중심으로 그 대상을 선별하여 다수를 차지하는 주조철부의 형식 변화를 상징하고 공반유물을 통해 검증하였다. 금강·만경강 유역 철기문화는 기원전 3세기부터 크게 2번의 획기를 거치며 발전하는데, 기원 전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김상민, 2013b). 이 같은 현상은 소위 철기문화의 공백기로 논해지기도 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적 범위를 넓혀 기원 전후부터 영산강과 서남해안의 취락에서 간헐적으로 출토되는 철기류, 기원 2세기 대 급증하는 호서 지역 단조제 무기류 등에 주목하였다. 결국 공백기로 다루어진 기원 1~2세기 대 유적의 철기를 일부 제시하였지만, 기원 1~2세기 철기문화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 자체를 호남 지역의 철기문화 지역적 특징으로 보았다(김상민, 2013a). 이로 인해 기원후 3세기 대에 등장하는 삼국시대 철기와의 연속성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최근 영산강·서남해안에서 관련된 유적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호남 지역 철기문화는 시기에 따라 중심 지역을 달리하였다는 것이다. 최성락은 만경강 유역에 형성되었던 철기문화의 중심 세력이 기원전 1세기 대 다시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였다고 보았다(최성락, 2017). 김진영도 만경강 유역의 토광묘 집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가깝게는 김제 인근과 영산강 유역, 멀리는 동남한 지역으로 이주하였는데, 이주세력의 확장성과 이후 철기문화의 발전이 상관성을 띤다고 보았다(김진영, 2018).

이처럼 최근 고고학 자료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발표자는 신자료를 포함하여 기존의 논고를 재검토하고 고고학적 시기 구분에 따른 철기문화의 중심 세력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변천 단계와 그 특징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등장과 전개 과정을 재검토하기 위해 다수를 차지하는 철부류를 중심으로 형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조철부는 전고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공부(鎚部)의 단면 형태를 통해 장방형(A)과 제형(B)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부의 단면 형태가 장방형인 주조철부는 외형의 형태로 세분된다. 즉, 외형에 단이 없는 형태(a), 외형에 두 줄의 돌대가 돌아가는 형태(b), 단이 있는 형태(c)로 구분된다. 호남 지역 주조철부는 장방형(a)와 장방형(c), 제형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최근 보성 현존유적에서 장방형(b)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장방형(c)의 주조철부에 대해 기존의 청동기 생산기술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하며(村上恭通, 2008), 전형적인 연나라 주조철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 중 하나이다. 부여 합송리, 장수 남양리유적과 같은 16cm 이상의 대형 주조철부에서 관찰된다. 또한 주조철부의 길이는 대략 11cm를 기준으로 대형(大)과 소형(小)으로 세분된다.<sup>2</sup>

〈표 2〉 초기철기~원삼국시대 호남 지역 철기의 구성과 공반 양상(●존재, ○가능성)

| 기종<br>및<br>단계 | 농공구 |      |     |     |     |   |      |   |   |          |          | 이기 및 무기류 |             |          |    |             |        |             |        | 무문계토기  |        |        | 타<br>날<br>문<br>계 |        |     |        |    |
|---------------|-----|------|-----|-----|-----|---|------|---|---|----------|----------|----------|-------------|----------|----|-------------|--------|-------------|--------|--------|--------|--------|------------------|--------|-----|--------|----|
|               | 청동부 | 주조철부 |     |     |     |   | 단조철부 |   |   | 주조<br>철검 | 단조<br>철검 | 착<br>銅   | 사<br>鎚<br>鐵 | 관상<br>철부 |    | 청<br>동<br>검 | 철<br>검 | 청<br>동<br>촉 | 석<br>촉 | 동<br>과 | 동<br>모 | 철<br>모 |                  | 점토대    |     | 외<br>반 |    |
|               |     | A-5  | A-3 | A-1 | A-4 | B | 1    | 2 | 3 |          |          |          |             | 2a       | 2b |             |        |             |        |        |        |        |                  | 원<br>형 | 삼각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식  |        | 신식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부의 형태와 전장에 대한 상관관계를 정리하여, I A-1형, I A-3형, I A-4형, I A-5형, I B형의 5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3</sup> 그리고 최근 발견된 유적에서 확인

2 중국 연하도(燕下都)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주조철부의 길이를 분석한 결과 11cm를 기준으로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추후 논고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3 주조철부의 형식은 발표자의 논고에서 각각 차이를 보여 혼란스러울 수 있다. 기존의 발표와 논고

된 단조철부를 포함해 살펴보고자 한다. 단조철부는 공부의 형태와 제작기법을 토대로 공부 형태가 장방형인 1·2형에서 원형인 3형으로 구분하였다.<sup>4</sup>

주조철부·단조철부가 부장된 분묘를 중심으로 속성의 변화 및 공반유물과의 조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철부는 I A-5형→(I A-3형)·I A-1 형·I A-5형→I A-4형·I Bb형→단조1·2형→단조3형으로 변화를 상정할 수 있다. 즉 ‘소형 주조철부가 부장되는 시점’, ‘대형 주조철부가 부장되는 시점’, ‘단면 형태가 제형인 주조철부가 부장되는 시점’, ‘단조철부가 부장되는 시점’을 큰 획기로 단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표 2>와 같이 철부류와 공반되는 유물의 구성과 형식을 보더라도 전반적인 변화양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철부를 중심으로 설정한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림 4>와 같다. 점토대토기와 평저장경호는 점토대의 형태, 저부의 형태, 동최대경의 위치 등에 따라 형식 변화가 이루어지며, 다시 세분된 변화 양상이 지적된 바 있다(朴辰一, 2018). 공반토기의 특징인 원형에서 삼각형으로의 점토대 변화, 구형에서 편구형으로의 동체부 변화, 동최대경이 점점 저부 쪽으로 내려오는 변화 등을 고려하여도 철부류를 기준으로 한 변천 단계의 모순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철부의 형식 변천을 기준으로 철기문화의 등장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단계별 철기의 특징과 그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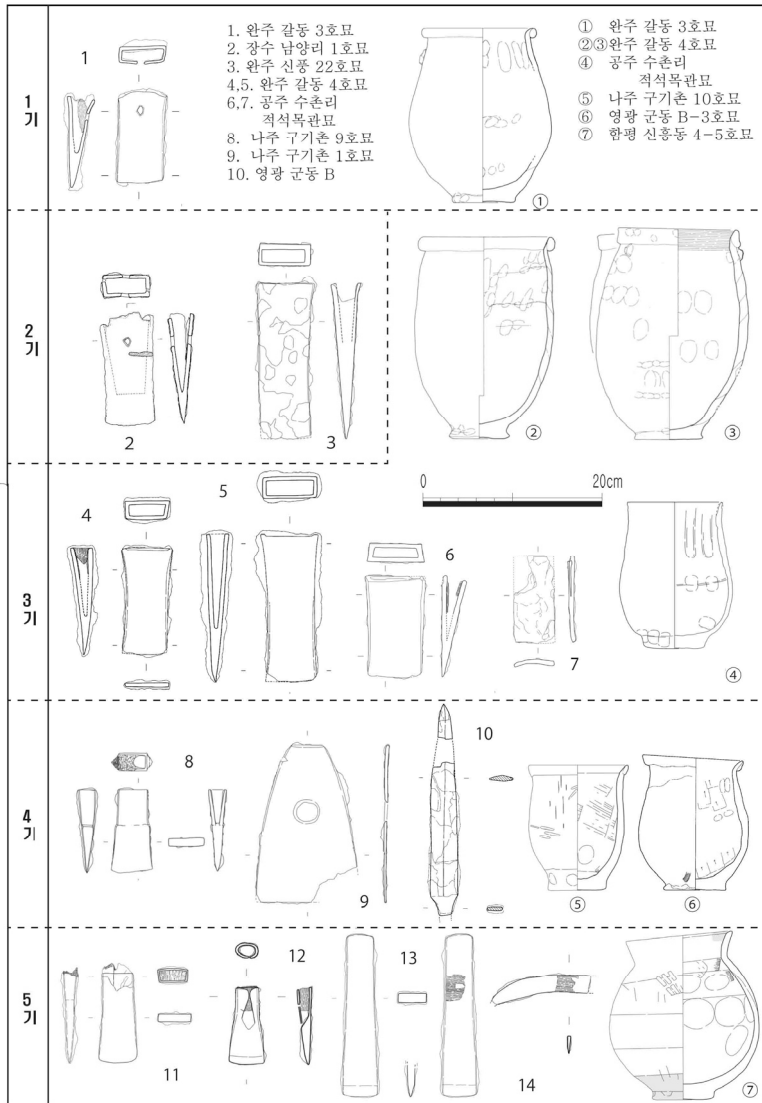
앞서 설정한 단계는 철부라는 단일 기종의 변화에 따른 구분으로 그 수량이 적어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등장과 전개의 전반적인 양상을 확인하는 기준이 될

---

에서는 시·공간적 범위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형식으로 설정하였다. 즉 주조철부의 형식 설정에서 속성은 선행 연구(김상민, 2013a·b)와 동일하지만 표기에서 차이가 난다. 이를 정리하면, I (주조)·II (단조), 공부단면형 A(장방형)·B(제형)으로 구분하고, 공부단면형이 제형(B)은 용기선의 유무에 따라 a(유)와 b(무)로 세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고를 통해 정립하고자 한다.

4 단조철부와 판상철부의 분류 역시 필자의 전고(2013b)의 분류안을 따른다.

수는 없다. 그럼에도 주조철부의 등장과 형식 변화, 단조철부의 등장이라는 변화와 함께 공반유물의 변화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은 주목된다. 특히 분묘 1기의 철기류는 연나라의 철기와 분묘 4기의 철기는 영남 지역 철기와의 유사성이 각각 인정된다. 여기서는 각 단계별 철기의 특징과 주요 유적을 정리하고 관련 유물과 비교를 통해 시간적 위치를 비정하고자 한다. 더불어 철부가 부장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단계 설정을 할 수 없었던 분묘의 시기적 위치도 함께 추정해 보고자 한다.



<그림 4>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변천 단계



## 1) 분묘 1기

먼저 분묘 1기는 IA-5형 철부와 주조철검이 공반되는 완주 갈동 3호묘로 대표된다. 완주 갈동 3호묘 주조철부는 IA-5형 철부로 분류하였지만, 신부(身部)의 폭이 좁은 점이나 공부(鑿部)와 인접하여 형지공이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연나라 IA-5형 철부와 다른 특징이다. 그럼에도 원형점토대토기, 연산(燕産)철검이 공반되고 있어 전국시대 연나라 철기문화의 영향에 받은 것으로 보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완주 신평유적 47호묘에서 출토된 IA-5형 철부는 공부의 높이가 비교적 낮고, 측면에는 용범(鑄型)의 능선이 명확히 관찰되는데 기원전 3세기 대 등장하는 전형적인 IA-5형 철부로 볼 수 있다. 또한 육안 관찰에서 탈탄된 외형의 흔적이 지적된 바 있는데(김상민, 2013b), 이후 금속학적 분석을 통해 주조 후 탈탄된 것이라는 것이 검증된 바 있다(이하얀, 2014). 이 같은 주조철부의 탈탄흔적은 연나라의 주조철부에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다.<sup>5</sup>

앞서 언급한 갈동 3호묘의 철검과 함께 동형식의 철검은 갈동 2호묘에도 부장된다. 두 점 모두 전형적인 연산(燕産)철기로써 중국 흥융 수왕분(興隆 壽王墳)에서 용범이 출토되는 것을 비롯해, 연하도 서관성촌(燕下都 西貫城村) 9호, 화전 서황산둔(樵甸 西荒山屯) 3호묘, 무순 연화보(撫順 蓮花堡)유적, 위원 용연동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3호묘 철검은 연화보유적, 2호묘 철검은 서황산둔 3호묘와 동일한 형태라는 것이 지적된 바 있다(김상민, 2019).

철부가 공반되지 않았지만 신평 42호묘와 51호묘에 부장된 환두도자도 1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두 점의 환두도자는 모두 기부 등쪽에 치우쳐 둥근 고리를 말아 올린 형상인데, 42호묘에 부장된 환형유리와 평저장경호는 완주 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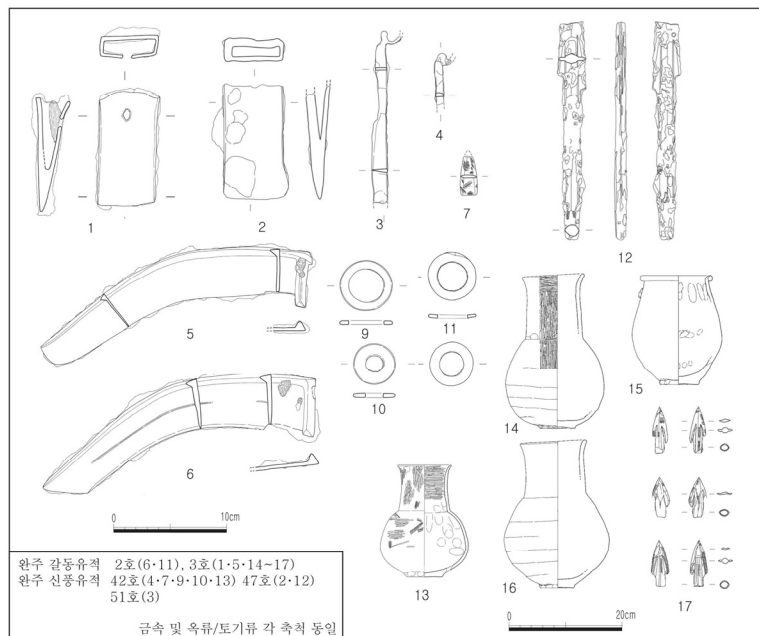
---

5 최영민은 주철탈탄강 기술이 한 대에 들어서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완주 신평유적 주조철부의 연대를 기원전 3세기 말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최영민, 2017). 하지만 연하도(河北省文物研究所, 1996)의 보고서 부록에는 비교적 많은 금속학적 분석 결과가 있으며, 주철탈탄강 기술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

3호묘의 부장품과 유사성이 강하다. 또한 이 같은 환두부의 형태는 연하도 낭정촌(郎井村) 10호의 전국시대 만기층과 연하도 16호묘[九女臺]에 부장된 것과 유사하다.

그 밖에도 분묘 1기의 철기와 공반되는 유물로 완주 갈동 3호묘에서 출토된 청동촉이 있다. 삼입형 경부에 양익(兩翼)형을 띠는 청동촉으로 능원 삼관전(凌源三官甸)유적 등 전국시대 유적에서도 확인된다.<sup>6</sup>

이처럼 분묘 1기의 철기와 공반유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나라와 관련된 주요 유적에서 확인되는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완주 갈동 3호묘에 공반되는 원형점토대 토기는 보령 교성리 3호 출토품과 유사성이 강하다. 전국계 청동촉과 주조철검이 공반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국시대 후반에 해당하는 기원전 3세기 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분묘 1기의 철기와 공반유물

6 청동촉은 평양 정백동 1호묘 출토품과 비교되며 완주 갈동 3호묘의 연대를 비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발표자는 두 청동촉이 경부의 길이와 단면형에서 차이가 있어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김상민, 2013b).

## 2) 분묘 2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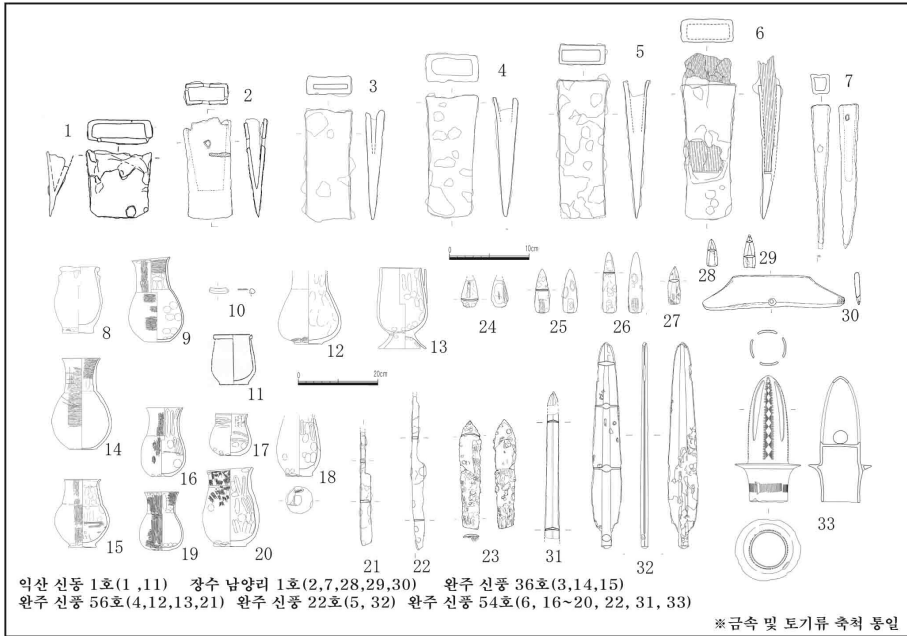
철기는 주조철부가 단독으로 부장되거나, 사(鈹)나 착(鑿), 철도자와 세트를 이루기도 한다. IA-5형 철부와 함께 대형화된 IA-1형 철부의 출토가 증가하여, 주요 부장품으로 다루어진다. 대형화된 주조철부는 외형의 단이 없는 IA-1형 철부가 먼저 등장하고 외형에 단이 있는 IA-4형 철부나 두 줄의 돌대가 돌아가는 IA-3형 철부는 나중에 등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장수 남양리 1호묘 부장품은 IA-5형 철부로 형태상으로는 완주 갈동 3호묘 부장품과 같지만 좀 더 대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2기의 주조철부는 소형과 대형으로 분류가 명확해지는데, IA-1형 철부는 모두 전장 16cm 전후로 크기의 정형성을 보인다. 그리고 완주 신평 56호묘와 같이 철도자와 공반되는 사례도 확인된다. 철도자는 신평유적에서 다수 확인되는데, 대부분 기부 끝부분이 결실되어 환두의 유무는 알 수 없다. 다만 기부의 끝부분이 좁아지는 특징이나 기부의 길이가 비교적 길다는 특징은 1기와 같은 형태의 환두도자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IA-1형 철부는 석촉과 함께 출토되는 사례가 많은데, 완주 신평 57호묘의 경우 석촉과 함께 철사를 재가공한 철촉도 확인된다. 이같이 철사를 재가공하여 철촉으로 만든 사례는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 출토품이 있으며(李亨源, 2010), 위원 용연동유적과 요양 삼도호유적 철검도 연계철기의 재가공이 지적된 바 있다(김상민, 2017).

2기에는 철기와 함께 세형동검, 동과, 동모와 같은 청동제 무기류의 공반 양상이 두드러지며, 요령 지역과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석기가 부장되기도 한다. 특히 남양리 1호묘의 반월형 석도는 무순 연화보유적과 영변 세죽리유적 출토품과 관련성이 지적된 바 있다(李健茂, 1990). 그리고 2기에 해당하는 완주 신평 22·54·56호묘에 부장된 IA-1형 철부는 1기의 신평 47호와 마찬가지로 주조 후 탈탄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하얀, 2014). 그렇다면 2기에 대형화된 IA-1형 철부는 연나라에서 제작한 철기를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철기와 공반유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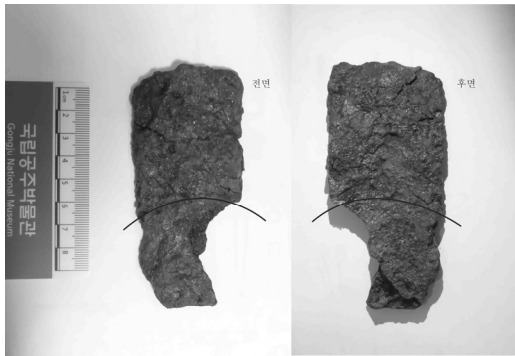
특징을 통해 분묘 2기는 기존의 청동기문화와 외부에서 유입된 연나라 철기문화가 병행하는 시기로 원형점토대토기가 감소하고 점토대토기의 소형화되는 시점, 간두령의 형식 등을 고려하여 기원전 2세기 전엽~중엽으로 비정해 둔다.



<그림 6> 분묘 2기의 철기와 공반유물

### 3) 분묘 3기

I A-4형 철부의 등장과 함께 부장 양상의 차이가 확연해진다. I A-4형 철부의 등장을 3기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완주 갈동 4호묘에서 출토된 I A-1형 철부와 I A-4형 철부가 공반된 사례는 3기의 시점으로 추정된다. I A-4형 철부의 등장과 함께 2점의 주조철부가 세트로 출토되는 양상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I A-4형 철부의 공부(銚部) 외면에 단이 있는 형태, 공부에서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인부(刃部)에서 벌어지는 평면형태는 청동부를 모티브로 한 형상으로 여겨진다. I A-4형 철부는 전형적인 전국시대 연나라 주조철부에서 다소 변형된 재지적 특징으로도 설정된 바 있다(김상민, 201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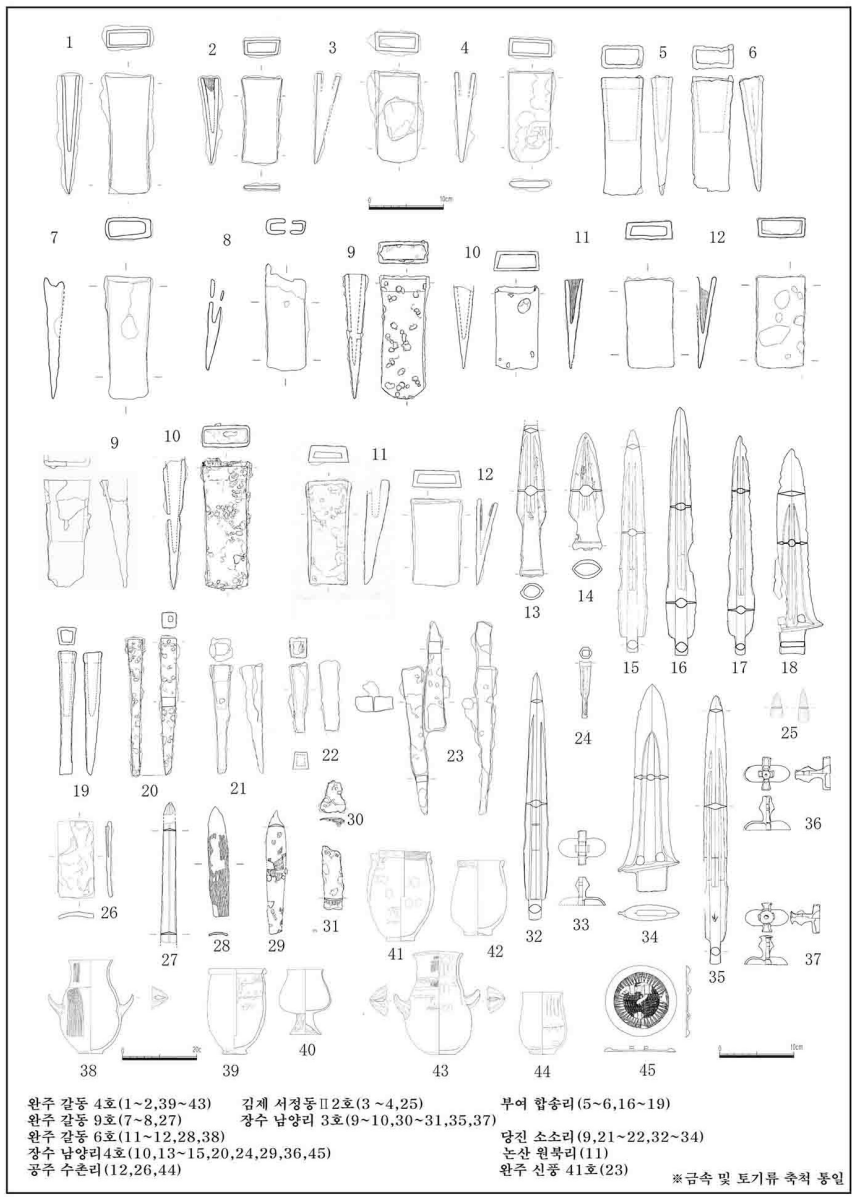


<그림 7> 공주 수촌리유적 출토 판상철부

철착은 합송리와 남양리 4호묘에서 출토되는데, 합송리 출토품의 공부는 I A-4형 철부와 같이 공부의 외면에 단과 같은 형태가 관찰된다. 또한 I A-4형 철부와 동일한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I A-4형 철부가 등

장하는 시점에 동부(銅斧)와 동착(銅鑿), 동사(銅鈹)가 일시적으로 함께 부장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공부의 단면 형태가 제형인 IB형 철부의 등장도 주목된다. I A-4형과 IB형 철부가 공반되는 장수 남양리 3호묘는 두 형식의 동시성을 추정할 수 있다. IB형 철부가 두 점 세트(갈동 6호묘)로 부장(갈동 6호묘)되거나 단독으로 부장(논산 원북리, 공주 수촌리), 착과 세트(당진 소소리유적)를 이루는 등 다양한 부장 양상이 확인된다. IB형 철부는 동시기 영남 지역 주조철부와 달리 측면 경사면의 각이 적은 편이다. 무라카미 야스유키가 지적한 단면 형태 제형의 쌍합범 용범 사례를 참고한다면(村上恭通, 2008), 단면 형태 장방형인 쌍합범 용범 틀에서 약간 변형된 용범 틀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소형판상철기는 이후 영남 지역에서 계기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기종으로 외래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 공주 수촌리 적석목관묘에서는 IB형 철부와 소형 판상철부가 공반된다. 수촌리 소형 판상철부는 전고(김상민, 2013b)의 2a형으로 분류되는데,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으나 <그림 7>의 선을 기준으로 색조나 잔존하는 녹의 외형이 다르다. 분명한 것은 <그림 7>에서 제시한 선을 기준으로 아래는 단조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절반은 주조품처럼 녹슨 현상이 관찰된다. 즉 주조와 단조기술이 결합된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분묘 3기가 되면 주조품을 중심으로 한 철기 제작기술을 벗어나, 단조를 추정할 수 있는 흔적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림 8〉 분묘 3기의 철기와 공반유물

분묘 3기는 대형화된 연계철부가 성행하는 시기로 주조철부의 두 점 세트뿐만 아니라 철부+철사(鐵鉤), 철부+철착 등과 조합된 농공구 복수 부장이 유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동제 무기류가 성행하지만 철제 무기류의 부장은 보이지 않는다. 공반유물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중심을 이루며, 단조제 철제품이 성행하지 않

는 것으로 보아 하한을 기원전 2세기 후엽으로 비정해 둔다.

한편 그동안 호남 지역에서는 IA-3형 철부가 출토된 사례가 없었으나, 최근 조사된 보성 현촌유적 3호묘에서 출토된 바 있다. IA-3형 철부의 시간성과 출토 의미에 대해서는 추후 제시하겠지만, 철부의 형식학적 특징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적어도 3기에 속할 것이다.



<그림 9> 보성 현촌 3호 목관묘 출토유물(김성영, 2019)

#### 4) 분묘 4기

분묘 4기의 철기는 주조철부의 부장이 중심이 되던 이전 시기와 달리 단조철부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분묘 1기부터 이어져 온 청동제 무기류의 부장은 거의 사라지며, 동검·동모·동과 등의 청동제 무기류는 철모·철검과 같은 철제 무기류로 대체된

다. 또한 주조철부와 공반되던 착(鑿)과 사(鈹)는 철사를 제외하고 부장되지 않는다. 이전 시기까지 보이지 않던 단조제 철검이 부장되기 시작한다는 것도 특징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분묘 1~3기와는 확연히 달라지는 분묘 4기의 특징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분묘 3기까지 철기문화의 중심이었던 금강·만경강 유역을 벗어나 서남해안·영산강 유역에서 확인된다는 점이다.

만경강 유역을 중심으로 보이던 청동제 무기와 주조품 중심의 철기류는 확인되지 않는데,<sup>7</sup> 김제 서정동Ⅱ 1호묘의 세형동검과 철모, 단조철검의 조합은 분묘 3기와 4기의 전환을 보여 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나주 구기촌 1호묘와 영광 군동 B-3호묘, 함평 신흥동 4-1호묘의 철검은 동검에서 철검으로 변화를 보여 주는 유적으로 추정된다. 철모는 관부 끝부분을 말각화(末角化)하였는데, 이것은 동모의 관부 형태를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분묘 3기 이후 나주 구기촌 9호묘처럼 철검+철모+단조제 농공구가 세트를 이루는 구성으로 정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구성은 영남 지역의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1세기 대에 보이는 부장 철기의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구기촌 1호묘에서는 단조철부와 함께 초형(鋏形)철기가 부장된다. 초형 철기는 전국시대에서 한 대에 걸쳐 요령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데, 영남 지역에서도 창원 다호리, 밀양 교동, 경주 황성동유적 등에서 한시적으로 부장된다. 특히 구기촌 1호묘의 초형철기는 신부 중앙에 투공이 비교적 큰 형태로 요양 삼도호유적의 자료와 비교할 수 있으며, 그 연대는 적어도 기원전 1세기 중엽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된다(김상민, 2017).

따라서 분묘 4기는 청동기와 연계철기가 조합된 기존의 철기문화에서 탈피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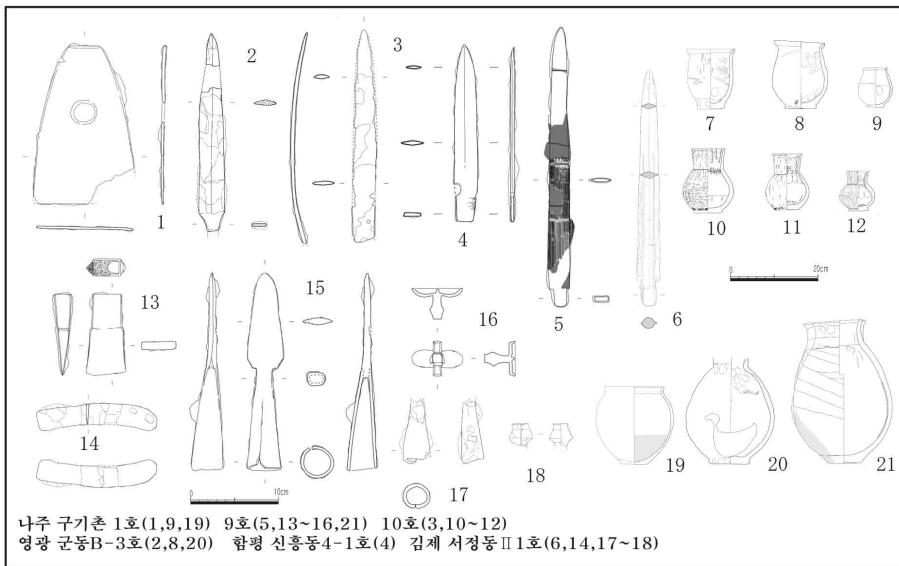
---

7 발표자의 기존 논고(2013b)에서는 3기를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1세기까지라는 비교적 긴 시기 폭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3기에 해당하는 자료가 많지 않았고, 공반유물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조품에서 단조품으로 전환에서 보이는 불연속성을 매우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이번 발표에서는 최근 증가한 자료를 포함하여 유물 간의 순서를 배열 하면서 전고의 3기 특징인 단면 형태 제형인 주조철부의 등장 시기를 좀 더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발표의 분묘 3기와 분묘 4기에 대해서는 추후 논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단조제 농공구와 무기류가 등장하는 시기로 그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전엽에서 후엽으로 설정해 둔다.

동 시기 한반도 남부지역은 주거지와 분묘 등 여러 유구에서 화분형토기, 철경동축과 같은 낙랑계 유물이 출토된다. 그 대표적인 유적으로서 가평 달전리·대성리B지구, 인천 운북동유적, 창원 다호리유적 등이 있다. 이 유적들에서는 단조철부와 IB형계 주조철부가 공존하며 낙랑(한식)계 유물이 추가되는 양상을 띤다. 이와 달리 호남 지역은 철기의 구성은 유사하지만 아직 전형적인 낙랑 또는 한나라 계통의 물질문화는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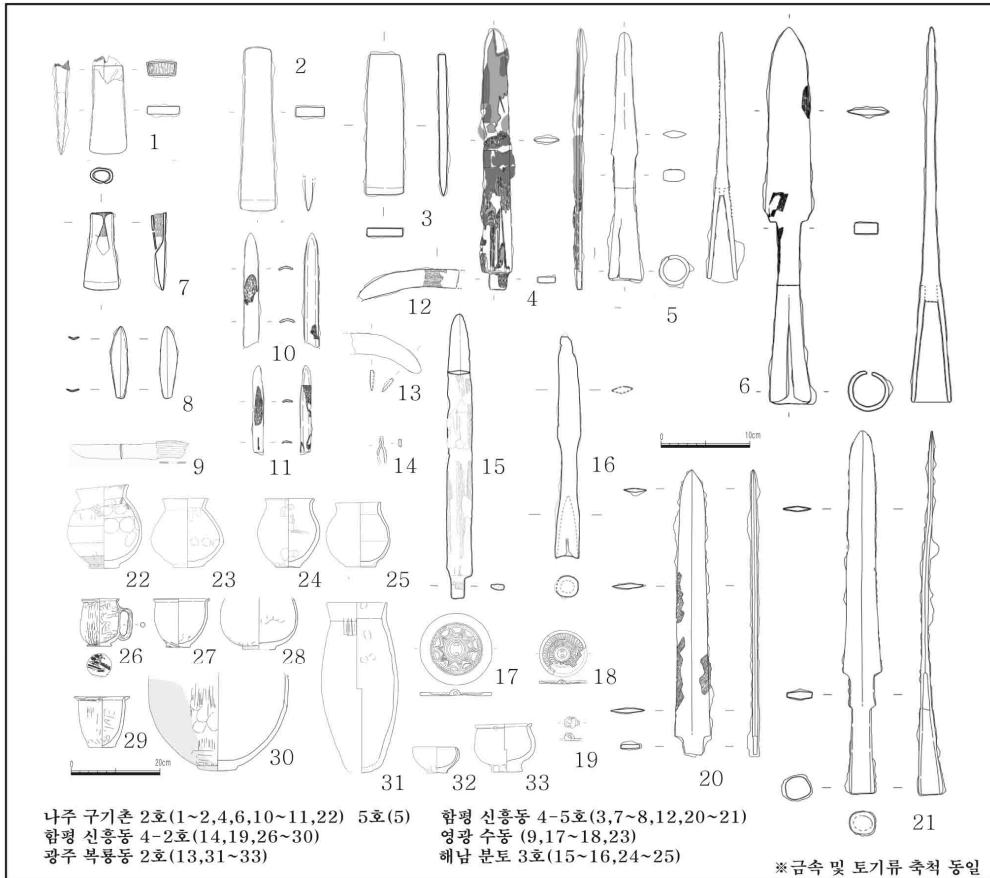
<그림 10> 분묘 4기 철기와 공반유물

### 5) 분묘 5기

분묘 5기는 공부 단면이 원형인 3형 단조철부와 2b형 판상철부의 등장을 획기로 한다. 2b형 판상철부가 출토된 나주 구기촌 2호묘와 함평 신흥동 4-5호묘에서는

<sup>8</sup> 광주 신창동유적에서 낙랑계로 분류되는 철경동축이 출토된 바 있다. 그러나 철경동축의 출토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각각 2형과 3형 단조철부와 공반되며, 4기에 보이기 시작한 철검+철모+단조제 농공구의 구성을 띤다. 철검은 4기와 달리 기부(基部)가 짧은 철제단검으로 정형화되고, 철모는 대형화되는 양상을 띤다. 특히 함평 신흥동 4-5호묘의 무기류의 대형화가 두드러지는데, 철모는 이단관식의 형태를 띠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철사(鐵鉞)는 2기부터 보이던 단면 형태가 U형인 것과 함께 V자형인 것도 확인된다.



<그림 11> 분묘 5기 철기와 공반유물

5기의 연대는 영남 지역 내 3형 단조철부나 2b관상철부의 등장 시점을 고려하면, 기원전 1세기까지 상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단관식 철모가 공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공반토기는 무문계 외반구연호나 다양한 기종에 변형된 점토대가 결합된 것들이 부장된다. 특히 5기의 토기류는 화천이

출토된 해남 군곡리 II-5층, 광주 복룡동 1호묘 토기류와 비교해 그 전후 형태임을 알려 준다. 따라서 5기는 화천의 연대를 고려해 기원 1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영광 수동유적에서는 철도자와 함께 방제경(倣製鏡)이 부장되었는데, 소형 방제경의 유행 시기 역시 기원 1세기 대이다.

#### IV.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중심 세력과 3세기 대 지역 정치체의 등장

앞서 기원전 3세기~기원 1세기 대를 중심으로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등장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전술한 것처럼 호남 지역은 한반도 남부지역 내에서도 가장 먼저 철기가 유입됨에도 기원 전후를 기점으로 감소하여 연속적인 발전을 보이지 않는다. 기원 1~2세기는 소위 ‘단절’, ‘공백’으로 인식되며, 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졌다(김장석, 2009; 이동희, 2010; 최성락, 2017).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3세기 대에 철기가 등장하고 기원 1세기까지 점진적인 전개 양상을 보이지만, 2세기 대 철기문화의 특징은 뚜렷하지 않으며 3세기 이후 지역에 따라 다른 수준의 철기문화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III장에서 제시한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변천 단계를 토대로 철기문화 중심 세력의 등장과 형성, 변화 과정을 추정하고 3세기 대 고대 정치체와의 상호관계를 예찰하고자 한다.

##### 1. 철기문화 중심 세력의 형성과 전환

호남 지역 철기의 등장은 만경강 유역이 가장 이른다. 만경강 유역에 최초로 유입된 철기는 중국 연나라에서 생산한 주조제 농공구로 완주 갈동, 신평유적에서 출토된 주조철부와 주조철검은 대표적인 유물이다. 특히 완주 갈동 2·3호묘에서 출토된 주조철검은 연나라의 중심지인 연산(燕山) 남부지역에서 요령 지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어 연 문화 확산의 산물로 보기도 한다. 환두도자의 고리 형태 역시 연하도에서 출토된 그것과 동일하다. 이 환두도자는 중국 전한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기종으로 연나라 철기의 특징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한다(이남규 외, 2017; 김새봄, 2019).<sup>9</sup> 다만 발표자의 분묘 3기(기원전 2세기 대)까지 다른 한나라의 물질적 요소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연나라 중앙에 존재하는 분묘에 동일 형식의 환두도자가 존재한다면 우선적으로 관련성을 염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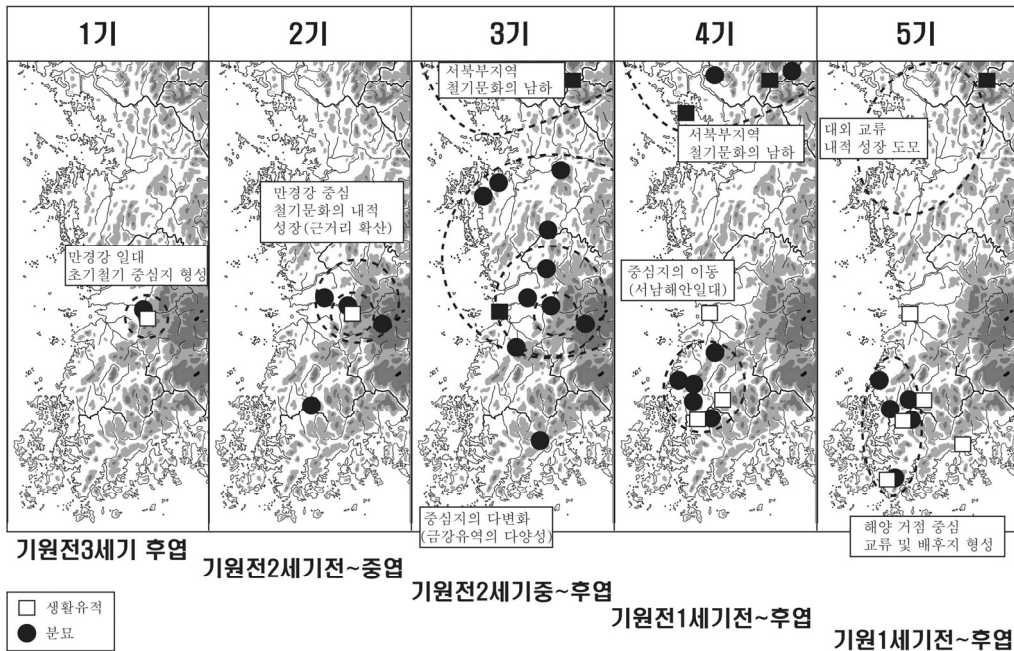
이처럼 호남 지역 최초의 철기의 등장은 연나라 중심지와 상호작용이나 이동 등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상민, 2019). 호남 지역 내에서도 만경강 유역이 선택된 배경에는 청동기 등을 통해 중국과의 교류를 선점한 지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완주 상림리유적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중국식동검은 당시 이 일대가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알려 준다(이건무, 2015). 또한 연나라의 귀족묘로 알려진 신장두(辛藏頭) 30호묘에서 출토된 세형동과(細形銅戈)는 연나라와 한반도와의 장거리 교역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서해안의 세형동검문화권은 당시 중국의 이민 집단에게 이상적인 이주지였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강인욱, 2016).

분묘 1기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연나라의 철기는 동시기 단발적으로 등장하는 목곽묘 내 부장된다. 또한 전주 안심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 제작을 위한 송풍관과 완주 갈동유적에 부장된 거푸집은 만경강 유역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된 청동기 제작기술이 존재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진행되던 중국과의 교류에서 철기문화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9 김새봄은 광동성의 남월왕묘의 사례를 제시하며 연계철기로 한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필자 역시 이 환두도자를 연나라 철기의 한 기종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다만 만경강 유역 철기의 유입 시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나라 분묘에서 나온 환두도자와 비교하여 연대를 상향하는 근거로 삼았을 뿐이다. 신평유적의 환두도자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완주 일대에 존재한 청동기 제작 집단은 연나라 또는 연나라의 영향을 받은 요령 지역의 집단과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철기문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만경강 유역에 형성되기 시작한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중심지는 분묘 2기를 거치며 근거리 내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sup>10</sup>



〈그림 12〉 단계별 철기문화 중심지의 분포와 그 의미

한편 분묘 3기가 되면 만경강 유역과 함께 금강 유역에서도 철기가 부장된다. 이 시기 금강유역권의 철기류는 IB형 철부의 단독부장과 IA-4형 또는 IA-1형 철부의 복수부장이 함께 보인다. 금강 유역의 철기류 중 부여 합송리와 장수 남양리 유적에 부장된 IA-4형 철부의 등장이 주목된다. 이 형식의 철부는 재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村上恭通, 2008; 김상민, 2013; 정인성, 2016; 김새봄,

10 나주 운곡동 지석묘에서 출토된 철착은 김진영(2018)에 의해 본 발표의 분묘 2기경으로 설정된바 있다. 하지만 공반유물이 명확하지 않고 부장품인지 추가장의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운곡동 지석묘의 철착에 대한 평가는 미뤄둔다.

2019). 분묘 3기의 주조철부에는 형지공(型持孔)이 있거나 공부(鑿部)가 결실(缺失)되는 등의 연나라 계통과 다른 독자적 요소(정인성, 2016)가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그렇다면 이 시기 금강 유역에서 출토된 철기들이 만경강 유역에서 계기적으로 내적 성장하여 확산된 것인지, 금강 유역으로 새로운 철기문화가 유입된 것인지는 다시 논의하여야 한다.

금강 유역 공주 수촌리유적의 사례를 보면 IB형 철부와 판상철부가 공반된다. 공교롭게도 동시기 영남 지역 금호강 유역에서 보이는 철기류가 IA-1형 철부와 IB형 철부, 소형 판상철부라는 구성을 띠고 있다. 공주 수촌리유적의 그것은 금호강 유역의 그것과는 달리 날이 보이지 않으며, 구조품처럼 보이는 흔적도 관찰되어 고식(古式)으로 판단된다. 발표자는 동시기 남해안 일대에 초보적인 단야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그 기원은 한반도 서북부지역이라고 보고 있다(김상민, 2019b). 그렇다면 초보적인 단야공정을 거친 서북부지역의 철기류가 금강 유역으로 새롭게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분묘 3기는 만경강 유역을 중심으로 분묘 1~2기의 내적 성장을 이룩한 집단과 함께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초보적 단조기술을 보유한 남하한 위만조선계 소규모 집단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금강 유역으로 들어온 위만조선계 철기문화는 호서 지역을 경유하여 진한 일대로 넘어간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sup>11</sup> 더불어 추후 면밀한 검토가 있겠지만 보성 현촌유적의 철기류 역시 분묘 3기의 어느 시점에 남하한 위만조선계 소규모 집단의 하나로 추정해 두고자 한다.

이후 분묘 3기까지 철기문화의 중심지였던 금강·만경강 유역에서는 철기류가 확인되지 않고 서남해안·영산강 유역의 분묘에 부장되는 사례가 많다. 최근 나주 구기촌, 함평 신흥동유적 등 영산강 유역의 자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증가

---

11 이 견해는 아직 가능성에 불과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금호강 유역 철기문화의 등장 배경과 관련하여 주목하여 살피고자 한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강·만경강 유역에 집중되던 분묘 3기까지의 철기문화와 연속성을 보이는 유적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원인을 ‘기후의 변화’나 ‘해로의 발달’에 따른 것으로 보기도 하며(서현주, 1996; 최성락·김건수, 2002), 실제로 이 같은 논의의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 패총이 증가하는 현상도 역시 분묘 4기에 보이는 현상이다. 그리고 상기의 두 원인은 주민의 이동을 유발시킨 촉매제인 것이다.

철기의 공간적 확산이 점진적이라기보다 정치체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김장석, 2009)을 고려하면, 분묘 4기에 등장하는 중심지의 변화는 지배계층의 이동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최근 만경강 유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철기문화의 중심 세력이 위만조선의 봉곡와 낙랑군의 설치를 계기로 영남 지역 및 서남해안·영산강 유역으로 이동하였다고 보기도 한다(최성락, 2017; 김진영, 2018). 그럼에도 주조품을 중심으로 한 만경강 유역의 철기문화가 영남 지역과 서남해안·영산강 유역에서 보이는 단조품 중심으로 철기문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직 금강·만경강 유역에서 서남해안·영산강 유역으로 철기문화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적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분묘 3기까지 철기문화의 중심 세력이었던 만경강 유역 내 철기류가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 기원전 1세기 대를 기점으로 전북 동부 지역으로 중심 세력이 이동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곽장근, 2016·2017). 구체적으로 진안고원의 장수 남양리 일대, 운봉고원의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철기문화의 중심 세력이 이동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전자인 장수 남양리유적은 연구자에 따라 유적을 바라보는 시간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되는 면도 없지 않으나, 후자인 달궁계곡과 관련된 견해는 아직 적극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향후 고고학 조사가 필요하다.

호남 지역의 분묘 4기는 낙랑군 설치 이후임에도 한식 물질문화는 본격적으로 출토되지 않으며 비한식계 단조철기의 구성을 띤다. 그럼에도 동시기 영남 지역처럼 철기류의 형식학적 정형성은 뚜렷하지 않다. 앞서 제시한 분묘 3기의 금강 유역

처럼 사례처럼 낙랑군 설치 이후 서북부지역에서 해로를 따라 내려온 발전된 단조제품을 보유한 위만조선계 집단의 남하와 관련하여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처럼 분묘 4기의 철기문화 중심 세력은 해양 교류에 유리한 거점 지역과 그 주변에 분포하며, 그 양상은 분묘 5기까지 거의 그대로 이어진다. 동 시기 인천 운북동유적, 해남 군곡리유적, 사천 늑도유적 등 서남해안에서 동남해안으로 이어지는 해양 교류 거점의 존재는 연안 해로의 거점을 중심으로 철기문화의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알려 준다. 그럼에도 호남 지역 철기문화는 점진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몇몇 사례로만 보일 뿐이다. 이 시기 철기류의 부장 양상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데, 함평 신흥동유적과 같이 동시기 영남 지역에 부장되는 철검, 철모, 판상철부, 철검 등 단조철기의 구성이 그대로 부장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광주 신창동 옹관묘, 복룡동유적, 영광 수동유적과 같이 철편, 철킴, 철탄 등이 부장되지만 철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당시 호남 지역 재지집단이 자체적으로 철기를 제작하는 수준은 후자의 유적과 같이 단순한 기종을 만드는 정도의 초보적 기술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즉 신흥동과 구기촌유적과 같은 사례가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은 분묘 4기부터 확인되는 비한식계 단조제품의 유입 과정에서 속에서 기술과 소재는 배제된 채 철제품만 유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2.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중심 세력과 3세기 지역 정치체와의 상호관계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등장과 중심 세력의 형성, 전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원전 3세기 대 중국과의 교류를 선점하던 만경강 유역의 청동기 집단이 먼저 철기를 인지한 이후 주조제 농공구를 중심으로 한 철기문화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한다. 이후 기원전 2세기 대까지 만경강 유역을 중심으로 내적 성장을 이루며 주변 지역과 금강 하류역까지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만경강유역권 철기문화의 중심 세력은 기원전 1세기 대에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된다. 이 시점에 서남해안·영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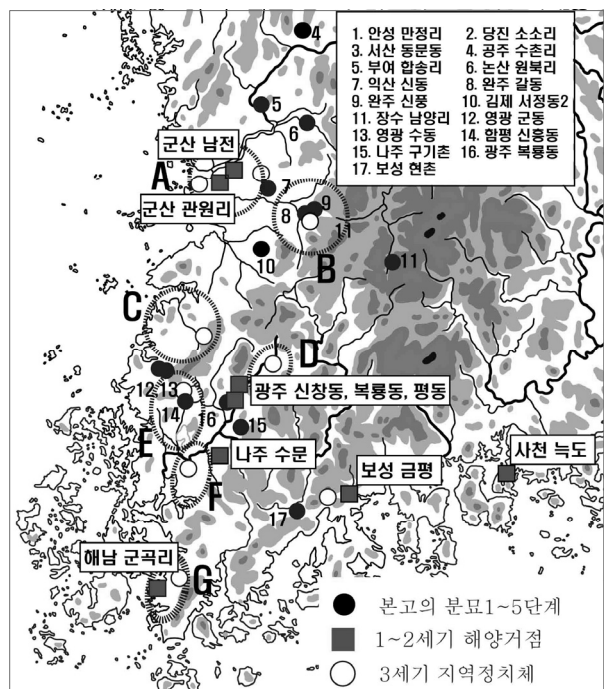


강 유역의 해양 거점으로 단조제 철기를 지닌 소규모 집단이 등장하지만, 기술과 소재의 한계로 인해 기원 1세기 이후 독자적인 철기문화 중심 세력이 성장하지 못한다.

결국 한반도 남부지역 내에서 호남 지역이 철기문화의 주체였던 시기는 만경강 유역 내 철기문화가 등장하고 성장하였던 시기였다고 판단된다. 이후 기원전 1세기 단조제 철기문화의 등장과 함께 다소 불분명한 철기문화의 전개를 보인다. 기원전 2세기 전 중엽 연나라의 멸망과 한나라의 성립이라는 동북아시아의 큰 변곡점에서 철기문화도 주조품에서 단조품이라는 기술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 같은 현상은 한반도 남부지역 내에서도 과도기를 거치며 기원전 1세기 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간다. 기원전 2세기 대 만경강 유역 중심 세력은 주조에서 단조라는 당시 기술적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제작기술과 소재를 선점하는 등의 단조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뚜렷한 특징을 드러내지 못하며 ‘철기 문화의 공백기’처럼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3세기 대 주요 분묘군 (〈그림 13〉의 권역과 대응)

| 권역 | 주요 유적                     |
|----|---------------------------|
| A  | 군산 축동, 조촌리<br>익산 영등동, 읍촌리 |
| B  | 완주 상운리, 수계리               |
| C  | 고창 만동, 남산리                |
| D  | 담양 태목리                    |
| E  | 함평 순촌, 만가촌, 고양촌           |
| F  | 나주 용호                     |
| G  | 해남 분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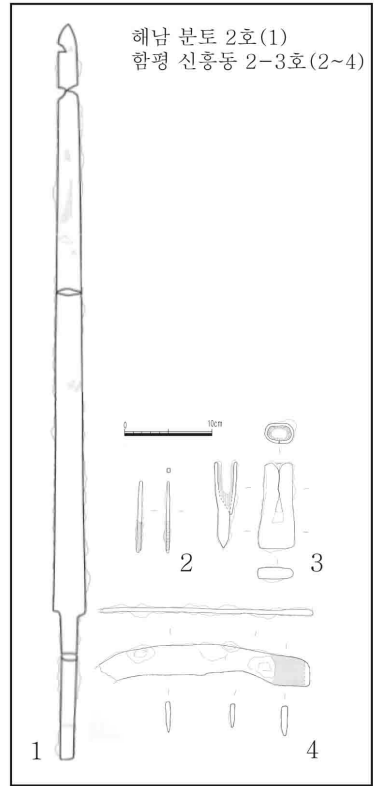
〈그림 13〉 호남 지역 초기철기와 고대 정치체의 위치

이후 호남 지역은 3세기 대부터 다시 철정, 철부, 철도자 등이 부장되기 시작하여, 4세기 대에 들어 철모, 철검, 철촉 등의 무기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며 발전한다(김상민, 2008). 그럼에도 호남 지역은 공통적으로 3~5세기 대까지도 철정 등 소재를 공급받아 제품을 가공하는 정도의 제작기술만 존재한다. 이후 5세기 중엽이 되어야 철기 생산과 유통체계의 급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金想民, 2011).

그렇다면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공백기와 3세기 고대 정치체의 등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없는가? 이것을 살피기 위해 먼저 3세기 대 등장하는 지역 정치체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호남 지역 내 3세기 대 등장하는 지역 정치체로 볼 수 있는 지역권은 7개로 나뉜다. 그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군산 남전패총, 광주 신창동·복룡동유적, 나주 수문패총, 해남 군곡리패총 등 1~2세기 대 해양 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 생활유적이 위치하는 곳으로써 본 발표의 분묘 1~5기에 해당하는 기존 유적군의 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호남 지역의 철기문화는 초기철기시대에서 삼국시대까지의 연속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철을 비롯한 선진문물의 중요성을 사전에 인지한 지역이나 해로를 통해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하였던 해상 거점이 3세기 대 지역 정치체 등장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서남부지역 구슬 해상교역에 대한 연구에서 구슬의 양과 해안과의 접근성은 반비례한다는 가설을 검증한 바 있다(허진아, 2019). 구슬이 출토된 유적의 위치는 시기에 따라 다른데, 기원 전후부터 해안의 접근성에 따라 그 출토량은 많아지며, 기원 2~3세기 대는 해안 30km를 기준으로 그 편차가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같은 현상은 철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기원 전후 이후 해안과 근접한 유적 내 철기의 부장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많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교역항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정치집단 및 대규모 배후취락이 분포할 수 있다는 견해(허진아, 2019)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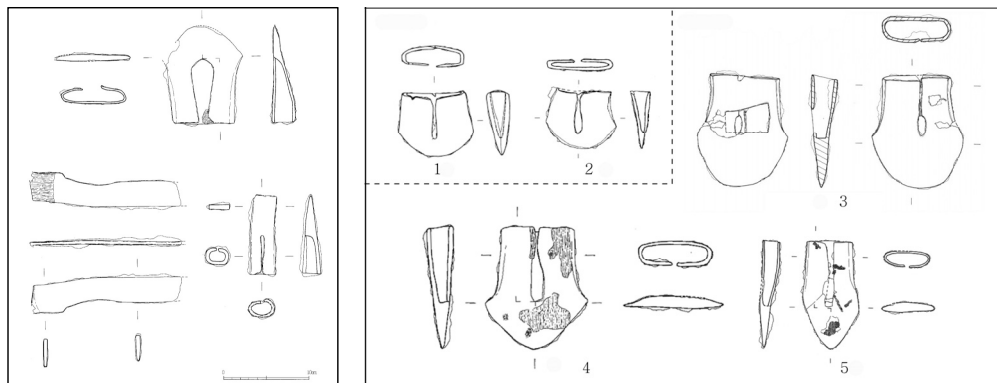
1~2세기 호남 지역의 해양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해남 군곡리유적과 인접한 해남 분토유적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세기 대 철검과 철모가 부장된다. 또한 2호묘에서는 장검이 출토되었는데 공반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포 운양동,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의 분묘에서 보이는 2세기 대 한식 철검이다. 즉 해남 분토유적의 철기를 통해 해남 군곡리패총이라는 해양 거점의 배후라고 볼 수 있는 지역 정치체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군산 남전, 나주 수문패총 등의 주변으로도 군산 축동·조촌리, 익산 영등동, 나주 용호고분 등 3세기 대의 지역 정치체를 대표하는 분묘군이 존재하고 있어 1~2세기 대 해양 거점의 배후 집단이 이미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추정케 한다.



<그림 14> 2세기 대 철기류의 현황

더불어 영산강의 지류인 함평천 일대에 위치하는 함평 신흥동유적 2차 조사의 3호묘에 부장된 철기류(이하, 2-3호묘)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흥동 2-3호묘 철기류는 신흥동 4차 조사 철기류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3호묘 부장철기 중 철검의 형태가 특징적인데, 이 철검은 기부에서 단이 형성하여 둥글게 이어진 인부가 반듯한 날을 이루다가 굽은 선단부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이 같은 특징의 철검은 함평 월야 순촌 A-25호 주구토광묘, 나주 용호 3호분 목관묘, 고창 만동 1·2호묘, 군산 조촌리 3호 토광묘, 김포 운양동 2-9-1호묘 출토품이 있다. 추후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겠지만, 그것들은 동일한 형식으로 분류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 철검이 주목되는 이유는 동일한 형태가 출토된 상기의 유적들이 앞서 언급한 2~3세기 대 지역 정치체의 주요 유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림 13>의 지역 정치체 표기와 대응해 본다면,

군산 조촌리유적은 A, 고창 만동유적은 C, 함평 월야 순촌유적은 E, 나주 용호고분은 F의 지역 정치체와 연결된다. 그리고 2세기 한강 하류 일대 가장 큰 정치체로 볼 수 있는 김포 운양동유적에서도 동일한 형식의 철검이 출토된다는 점은 괄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리고 동일 유적 내 선형철부가 부장된다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공통적인 요소이다. 선형철부는 알려진 바와 같이 영산강 유역의 독창적인 철기의 하나로 지적된 바 있으며(이남규, 2005), 최근 서남해안 일대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해남 군곡리패총, 보성 금평패총 등 1~2세기 해상 거점에서도 출토된 바 있어, 해양 거점과 배후 집단의 관계를 설명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나주 신흥동 2-3호묘에서 출토된 철기의 시기를 2세기 대로 특정한다면, 3세기 이후 영산강 유역의 대표적인 지역 정치체로 성장하는 함평천 일대의 성장도 해양 거점과 배후 집단의 등장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그림 15〉 나주 용호 3호묘 부장 철기(좌)와 호남 지역 선형철부의 현황(우)(김상민, 2019b)

이처럼 호남 지역의 철기문화와 고대 정치체를 연결해 주는 일부 자료들은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1~3세기 대 철기류의 출토[부장]패턴 분석을 통해 추후 추가적인 자료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호남 지역의 고대 정치체는

12 향후 사례를 더욱 확보하고 3세기 지역 정치체의 등장과 철기문화의 상호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3세기 대에 급진적으로 발전해 간다고 볼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쌓여 온 잠재력 속에 이루어진 성과일 것이다. 호남 지역 철기문화와 3세기 대 지역 정치체의 등장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고고학 유적과 유물의 재검토와 향후 조사될 발굴 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등장과 전개 과정을 재정립하며, 발표자에게 주어진 주제인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중심 세력과 특징을 살피고자 하였다.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중심 세력은 철기의 유입과 함께 만경강 유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여 주변 일대로 내적 확장하였으나, 이후 기원전 1세기를 기점으로 철기문화의 중심 세력으로는 성장하지 못한다. 서남해안·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세력이 등장하지만 해양 거점을 중심으로 단조제 철기류를 유입한 정도에 그친다. 즉 호남 지역의 철기문화는 기원 1세기 이후 기술과 소재의 한계로 인해 독자적인 철기문화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철을 비롯한 선진문물의 중요성을 사전에 인지한 지역이나 해로를 통해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하였던 해상 거점은 배후 집단을 등장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이후 3세기 대 지역 정치체로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인옥, 「완주 상림리 유적으로 본 동아시아 동검문화의 교류와 전개」, 『湖南考古學報』 54, 2016.
- 국립전주박물관, 『금강의 새로운 힘』, 2012.
- 광장근, 「운봉고원의 제철유적과 그 역동성」, 『百濟文化』 52, 2016.
- \_\_\_\_\_,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報』 57, 2017.
- 김상민, 「西南部地域 3~6世紀 鐵器의 地域性 檢討」,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번역』, 전북대학교 인문학 BK21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08.
- \_\_\_\_\_, 「3~6世紀 湖南地域의 鐵器生産과 流通에 대한 試論」, 『湖南考古學報』 37, 2011.
- \_\_\_\_\_, 「馬韓圈域 鐵器文化의 出現과 成長背景」, 『湖南文化財研究』 15, 2013a.
- \_\_\_\_\_, 「한반도 남부지역 철기문화의 유입과 전개 과정」, 『考古學誌』 19, 2013b.
- \_\_\_\_\_, 「요령 지역 철기문화의 전개와 한반도 초기철기문화」, 『동북아역사논총』 55, 2017.
- \_\_\_\_\_, 「동북아시아 철기문화의 확산과 고조선」, 『한국고고학보』 107, 2018.
- \_\_\_\_\_, 「동북아시아 철검의 변천과 완주 갈동 유적 주조철검의 등장배경」, 『야외고고학』 34, 2019a.
- \_\_\_\_\_, 「한반도 철기문화의 성립과 海南 郡谷里패총-해남 군곡리 철기와 관련된 몇가지 가설」, 『군곡리 패총 동아시아 해양교류의 시작』,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b.
- \_\_\_\_\_, 「한반도 동남부지역 철기생산기술의 등장과 발전배경」, 『한국상고사학보』 104, 2019c.
- 김새봄, 「만경강 유역 철기의 등장과 시기별 발전양상-완주를 중심으로」, 『만경강 유역의 고고학적 성과』, 국립전주박물관 완주 지역특별전 기념 공동 학술대회, 2019.
- 김성영, 「보성 현존 목관묘 출토유물에 대하여」, 『접점Ⅱ, 남한지역 원삼국~삼국시대 마구의 편년』, 제16회 매산기념강좌, 2019.
- 金元龍, 『新昌里甕棺墓地』, 서울大學校出版部, 1964.
- 김장석, 「호서와 서부 호남 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편년에 대하여」, 『湖南考古學報』 33, 2009.
- 김진영, 「영산강 유역 철기 수용과 배경」, 『湖南考古學報』 59, 2018.
- 朴淳發, 「우리나라 初期鐵器 文化의 展開過程에 대한 약간의 考察」, 『考古美術史論』 3, 1993.
- \_\_\_\_\_, 「遼寧 粘土帶土器文化의 韓半島 定着過程」, 『錦江考古』 創刊號, 2004.
- 박진일, 「마한 초기철기-원삼국 분묘의 토기 부장 양상과 의미」, 『동북아 부장토기의 형성과 전개-두·고배 기종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심층연구공동연구팀, 2018.
- 이진무, 「한국 청동기문화와 중국식동검-상림리유적 출토 중국식동검을 중심으로」, 『국립전주박물관 테마전 완주 상림리 靑銅劍』, 2015.
- 李南珪, 「韓半島 初期鐵器文化의 流入樣相」, 『韓國上古史學報』 36, 2002.
- \_\_\_\_\_, 「韓半島 西部地域 原三國時代 鐵器文化-地域性과 展開樣相의 特性」, 『原三國時代 文化의

- 地域性と變動』, 第29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2005.
- \_\_\_\_\_, 「낙랑지역 한대 철제 병기의 보급과 그 의미」, 『낙랑문화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7.
  - 이남규·김보람·권도희, 「생업과 물질문화, 의례」, 『마한 고고학 개론』, 진인진, 2018.
  - 이동관, 「韓半島 南部 鐵器文化의 波動-初期鐵器·原三國期 鐵器의 系譜와 劃期」, 『考古學誌』 23, 2017.
  - 이동희, 「“호서와 서부 호남 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편년”에 대한 반론」, 『湖南考古學報』 35, 2010.
  - 이청규, 「수장의 개념과 변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영남 지역 수장층의 출현과 전개』, 제28회 영남고고학학술발표회, 2019.
  - 이창희, 「점토대토기의 실연대-세형동검문화의 성립과 철기의출현연대」, 『文化財』 43-3, 2010.
  - 이하얀, 『완주 신평유적 구조철부의 제작기술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문화재보존과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 李亨源, 「중부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시공간적 정체성」, 『중부지방 고고학의 시·공간적 정체성』, 2010년 중부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 2010.
  - 鄭仁盛, 「燕系 鐵器文化의 擴散과 그 背景」, 『嶺南考古學報』 74, 2016.
  - 최성락, 「호남 지역 철기문화의 형성과 변천」, 『도서문화』 49, 2017.
  - 최영민, 『고대 한반도 중부지역의 제철기술 연구』, 진인진, 2017.
  - 韓修英, 「靑銅鐵小考」, 『研究論文集』 4,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 \_\_\_\_\_, 「竿頭鈴小考」, 『湖南文化財研究』 15, 2013.
  - \_\_\_\_\_, 「한반도 서남부지역 초기철기문화의 전개 양상」, 『전북사학』 46, 2015.
  - \_\_\_\_\_, 「완주 신평유적을 중심으로 본 초기철기문화의 전개 양상」, 『湖南考古學報』 56, 2017.
  - 허진아, 「초기철기-원삼국시대 구슬 해양교역과 환황해권 정치 경관의 변화」, 『해양의 상고사-환황해권의 해양문화』, 제50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 2019.
  - 村上恭通, 「東アジアにおける鉄器の起源」, 『東アジア靑銅器の系譜』, 雄山閣, 2008.

## 「호남 지역 철기문화 중심 세력의 성격과 특성」에 관한 토론문

김 재 홍(국민대학교)

이 논문은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호남 지역 철기문화를 정리하고 이를 중심 세력의 성격 변화와 관련지우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고고학 자료를 이용하여 고대 정치체를 해명하고자 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북 동부지역의 정치체, 나아가 가야 세력의 성장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제와 연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우리 고대 철기문화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살피는 연구를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논문도 그 일환으로 작성된 듯합니다. 발표자는 중국 연나라, 고조선, 요령 지역, 한반도 남부지역 등 각 지역별 연구를 진행하여 동북아시아적 범위에서 철기문화의 성립을 논하였으며, 최근에는 초기철기문화, 기원전 1~기원 3세기 철기문화, 4~6세기 철기 생산과 유통 등 시기별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철기문화에 대하여 시공(時空)적으로 연구 테마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철기문화의 시야를 확장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전체적인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세부적인 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발표자는 69쪽에서 “가평 달전리·대성리B지구, 인천 운북동유적, 창원 다호리



유적 등지에서 낙랑계 유물이 출토되지만, 호남 지역은 철기의 구성은 유사하지만 아직 전형적인 낙랑 또는 한나라 계통의 물질문화는 보이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76쪽에 “낙랑군 설치 이후 서북부지역에서 해로를 따라 내려온 발전된 단조제품을 보유한 위만조선계 집단의 남하와 관련하여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만조선의 멸망 후에도 그 유민이 남하하여 호남 지역 단조철기문화를 성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만조선의 철기문화=호남 지역 단조철기문화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한의 철기=낙랑 철기와는 다른 철기문화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위만조선의 철기문화의 영향을 받은 호남 지역의 철기문화는 한의 철기문화와 다른 어떤 계통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2. 발표자는 II장에서 금강, 만경강 유적에서 확인된 연산(燕産)철기, 연계(燕系)철기, 청동기 제작 기술계(?) 철기는 주조철기가 중심(일부 단조품)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유역의 철기문화 중에서 분묘 내 부장 철기는 단조제 무기류가 포함된 구성으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계 토기가 공방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차에 염두를 두고 철기문화의 중심 세력이 이동하였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호남 지역 문화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마한의 성립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을 가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발표자께서는 시기차로 보시는지(73쪽의 <그림 12>) 아니면 철기문화의 계통차로 보시는지를 질문드립니다.

3. 발표자는 IV장에서 3세기 호남 지역 정치체가 철검 등을 지표로 서남 해안 지역에서 성장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헌상에 보이는 마한 세력이 해안을 중심으로 성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 13>에서 보이는 장수 남양리(좀 더 확장하면 완주 갈동, 신평 등지)유적과 같이 내륙에 위치한

정치체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세기에 호남 동부지역에서 범 가야 문화 정치체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전 시기 남양리와 같은 철기문화와는 어떤 계통성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 백제의 '전북 지역' 진출 과정과 추이 변화

---

김 병 남 | 국가기록원

I. 머리말

II. 전북 지역 고대 정치체의 상황

III. 백제의 남방 진출과 전북 지역의 양상

IV. 백제의 재진출과 전북 지역의 추이

V. 맺음말

---

## I. 머리말

백제의 성장과 발전은 크게 남·북의 두 방향으로 이뤄졌다. 먼저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남하에 대응하며 이를 제어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남쪽으로는 우선 당면한 문제라 할 수 있는 마한의 지속적인 驅逐과 服屬을 통한 영역 확장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야 지역을 통한 왜와의 연결이었다. 이런 관점에 서서 백제는 계속적인 팽창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한편, 전통적인 시각에서 전북권역은 백제의 일부분으로 이해되어 왔다. 특히 전북 지역은 백제의 광역지방제도인 5방 체제 아래에서 중방이 설치된 지역으로 지방 지배체제의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백제 말기까지 이어졌기에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한 백제의 멸망 이후에도 곧바로 전개된 부흥 백제국 건설·유지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끝까지 수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백제 전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백제의 일부로서 중요한 지역이 되기 이전 전북권역의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비록 미흡하지만 남아 있는 기록에 근거할 경우 1~3세기 사이 전북 지역은 마한의 일원으로 지역별 소정치체들이 산재하였던 곳이다. 또 이와는 별개로 전북 동부권에는 가야와 연계된 세력이 존속하였다는 증거가 고고학적인 조사와 발굴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런 경우 고대 시기 전북권역의 실재적인 상황과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새로운 환기와 추적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나아가 이처럼 지역 분산적인 형태의 다양한 정치체들이 어떠한 이유와 과정을 거치면서 백제라는 하나의 틀 속으로 흡수·통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전북과 백제라는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중앙 중심의 백제 인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고대 시기의 전북권역의 역사·문화적 원천 모습에 좀 더 접근하여 지역의 다양성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에 본 글은 기존 견해에 기대어 거칠게나마 고대국가 백제와 전북권역의 마한 그리고 가야 세력이 어떻게 존재하였고, 또 그들이 어떻게 융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크게 3가지 부분에 집중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백제에게 복속하기 이전 시기 전북 지역의 존재 양상을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3장은 전라도 지역이 언제 백제와 조우하여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백제의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전라도 지역을 어떻게 재복속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전북 지역 고대 정치체의 상황

백제와 관련을 맺기 이전 전북 지역이 어떠한 모습과 성장을 보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중국 측 기록인 『후한서』와 『삼국지』 등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아야만 한다. 그중 『후한서』의 기록이 가장 앞선 시대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5세기 초에 편찬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3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삼국지』가 앞선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자료들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삼국지』 동이전 기록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여러 소국들에 대한 이름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고대의 한반도 상황을 살펴보려면 『삼국지』를 우선하여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마한은 서쪽에 위치하였다.……각각 長帥가 있어서, 세력이 강대한 사람은 스스로 臣智라 하고, 그 다음은 邑借라 한다.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살았으며 성곽은 없었다. 원양국, 모수국, 상외국, 소석색국, 대석색국, 우휴모탁국, 신분활국, 백제국, 속로불사국, 일화국, 고탄자국, 고리국, 노람국, 월지국, 자리모로국, 소위건국, 고원국, 막로국, 비리국, 점리비국, 신흠국, 지침국, 구로국, 비미국, 감해비리국, 고포국, 치리국, 염로국, 아림국, 사로국, 내비리국, 감해국, 만로

국, 벽비리국, 구사오단국, 일리국, 불미국, 지반국, 구소국, 첩로국, 모로비리국, 신소도국, 막로국, 고랍국, 임소반국, 신운신국, 여래비리국, 초산도비리국, 일난국, 구해국, 불운국, 불사분사국, 원지국, 건마국, 초리국 등 모두 50여 국이 있다. 큰 나라는 만여 家이고, 작은 나라는 수천 가로서 총 10여만 戶이다(『삼국지』 30, 「위서」 30, 오환선비동이전 30, 한).

위의 『삼국지』 기록과 함께 『후한서』, 『한원』에 인용된 「위략」, 『진서』 등에 따르면, 서기전 3~2세기 무렵부터 한반도에는 마한, 진한, 변한으로 통칭되는 구조 속에 ‘소규모 정치체[小國]’들이 존속하였으며, 그들은 78개에 이를 정도로 성장·발전하였다. 그중 마한에는 54개나 되는 정치체들이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마한 54개국이란 단일한 정치체가 아니라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살았다.[散在山海間]”는 표현처럼 각기 지역 단위의 독립적인 형태를 띠었다. 이는 이보다도 작은 여러 마을 단위들이 모여 하나의 ‘작은 규모의 정치체[小國]’으로 발전해가고, 다시 이런 소국들이 하나로 통합되며 ‘큰 규모의 정치체[大國]’으로 발달하기도 하지만, 때론 소국 상태에서 소멸되기도 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소 정치체들의 형성·발전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현재 이런 정치체들의 규모에 대해서 작은 것은 대략 오늘날의 지방 행정단위인 ‘面’이 3~4개 정도 합해진 규모로, 큰 것은 1개 ‘郡’ 단위의 크기로 이해하고 있다. 또 인구 면에서는 大國은 1만여 호, 소국은 수천여 호라고 하였는데, 대국의 경우 백제의 전신인 伯濟國과 마한 연맹의 영도국인 目支國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1만여 호의 국가이고, 나머지 50여 국은 1,600호 정도의 소국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다 만일 백제국과 목지국 외에 전남 지역에 또 다른 대국이 있었다면, 소국들은 1,373호 정도가 된다.<sup>1</sup> 따라서 1가구당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대국은

1 만일 曹魏 正始 연간에 대방군 공격을 주도한 臣漬沽國마저 ‘큰 나라[大國]’로 본다면, 소국의 규모는 1,200호로 떨어진다.

5만여 명, 소국은 7~8천여 명 정도로 추산<sup>2</sup>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한 54개국의 정확한 위치는 알 길이 없다. 다만 한강유역권, 금강유역권, 영산강유역권, 섬진강유역권 등 큰 강 유역을 중심으로 각 정치체의 밀집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전북권역에서는 금강 유역과 동진강·만경강의 인접 지역에서 여러 정치체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만 짐작할 뿐이다.

이러한 인식은 문헌적인 추정을 통해 전라도와 관련된 소국들의 개별 위치를 파악한 선학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표 1〉 삼국지 마한 소국 위치 비정표<sup>3</sup>

| 국명    | 비정지명               |           | 국명     | 비정지명    |           |
|-------|--------------------|-----------|--------|---------|-----------|
|       | 이병도                | 천관우       |        | 이병도     | 천관우       |
| 비리국   | 전북 옥구 회면           | 충남 예산·덕산  | 막로국    | -       | 전남 영광     |
| 집비리   | 전북 고부?             | 충남 홍성 결성  | 고랍국    | 전북 남원   | 전남 장성     |
| 염로국   | -                  | 전북 익산 합열? | 임소반국   | 전북 옥구   | 전남 광산·나주  |
| 감해국   | 전북 합열              | 전북 익산     | 신운신국   | 충남 천안   | 전남 광산·나주  |
| 만로국   | 충남 보령 남포           | 전북 옥구     | 여래비리국  | 전북 여산   | 전남 화순 능주  |
| 백비리국  | 전북 김제<br>전남 보성 북내면 | 전북 김제     | 초산도비리국 | 전북 정읍   | 전남 진도 군내면 |
| 구사오단국 | 전남 장성 진원면          | 전북 김제 금구  | 일난국    | -       | 전남 영암     |
| 일리국   | -                  | 전북 부안·태인  | 구해국    | 전남 강진   | 전남 해남 마산  |
| 불미국   | 전남 나주              | 전북 부안·태인  | 불운국    | 충남 공주서부 | 전남 보성 북내  |
| 지반국   | -                  | 전북 부안·태인  | 불사분사국  | 전북 전주   | 전남 승주 낙안  |
| 구소국   | 僞名 간주              | 전북 정읍 고부  | 원지국    | -       | 전남 여수     |
| 첩로국   | -                  | 전북 정읍     | 건마국    | 전북 익산   | 전남 장흥     |
| 모로비리국 | 전북 고창              | 전북 고창     | 초리국    | -       | 전남 고흥 남양  |
| 신소도국  | 충남 서산              | 전북 고창 흥덕  |        |         |           |

위 표에서 보듯이 마한의 소국들 중 전라도 지역에 해당한다고 추정한 곳은

2 이인철, 「1~3세기경 백제의 군사전략과 영토확장」, 『군사』 44, 2001, 390쪽.

3 박찬규, 「문헌자료로 본 전남지역 마한소국의 위치」, 『백제학보』 9, 2013, 4~5쪽; 김기섭, 「백제의 영역확장과 마한병탄」, 『백제학보』 11, 2014, 98~99쪽.

27곳으로 나타난다. 그중 전북 지역이라고 판단된 곳을 이병도와 천관우는 각기 11개와 12개국으로 지목하였다. 하지만 비록 숫자상 근사치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북권역에 해당하는 소국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감해국(익산), 벽비리국(김제), 모로비리국(고창)의 3개에 불과하였다. 이는 『삼국지』에 기록된 소국명에 대한 정확한 위치 추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시도된 추정 또한 각 연구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적어도 10여 소국가가 전북 지역에 근거한다는 추정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전북권역의 고대 정치체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렇게 비정된 전북권역의 마한 소국들의 위치는 군산(옥구), 익산(함열, 여산), 김제, 부안, 정읍, 고창(홍덕) 등 서부 해안 지역 위주임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전북 동남부의 남원도 보이지만 그 비정에 현격한 지역적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다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오늘날의 경기, 충청과 전라도에 근거하였을 마한의 50여 개 소국들은 그것 자체로서 고대국가로 전환되기 이전 여러 정치집단의 실상을 이해하는 기초이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이후 백제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팽창 아래에서 백제와 전북 지역 정치체의 조우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 Ⅲ. 백제의 남방 진출과 전북 지역의 양상

앞선 『삼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百濟 또한 마한 54개국의 일원인 伯濟國에 연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백제는 馬韓의 땅에서 건국·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백제가 흥기하는 1~3세기 사이가 역으로는 마한이 소멸의 과정을 밟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8월에……마침내 강역을 구획하여 정하였는데 북쪽으로는 淇河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熊川을 경계로 하였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혔고, 동쪽으로는 走壤에 이르렀다(『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 13년).

겨울 10월에 왕이 군사를 내어 걸으로는 사냥한다고 하면서 몰래 마한을 습격하여 드디어 그 國邑을 병합하였다. 다만 圓山城과 錦峴城의 두 城만은 굳게 지켜 항복하지 않았다(『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 26년).

위의 기록은 이른 시기 한강 유역에서 성장한 백제가 마한을 병합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보여 준다. 건국 초기 백제는 마한의 승인 아래 한강 유역에 정착하였으며, 마한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런데 온조왕 26년 기록에는 곧바로 마한을 기습하여 병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건국 초기인 백제가 불과 수년 만에 마한 전체를 병합하였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는 마한 국읍의 병합 시기에 대한 합리적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온조왕 때의 마한 병합 사실은 시기를 조정하여 이해하는데 대부분의 견해들은 연대를 하향하여 본다. 이에 따라 백제의 한강 유역 마한의 병합 시기는 고이왕 대<sup>4</sup>와 근초고왕 대<sup>5</sup>를 기점으로 보는 것이 대세이며, 여기에 책계왕<sup>6</sup>이나 비류왕 대<sup>7</sup>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위의 온조왕 13년 기록에 보이는 백제 영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북쪽 패하의 경우 예성강설<sup>8</sup>이 가장 널리

4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문안식, 『백제의 영역확장과 지방통치』, 신서원, 2002, 108쪽; 강봉룡, 「백제의 마한 병단에 대한 신고찰」, 『한국상고사학보』 26, 1997.

5 이기동, 「백제국의 성장과 마한의 병합」, 『백제논총』 2, 1990; 노중국, 「문헌기록 속의 영산강유역 4~5세기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6, 2011; 김기섭, 앞의 논문.

6 강봉룡, 「백제의 마한 병단에 대한 신고찰」, 『한국상고사학보』 26, 1997.

7 전영래, 「백제의 남방경역의 변천」, 『천관우선생활력기념 한국사학논총』, 1985, 140쪽.

인식되고 있고, 동쪽 走壤은 강원도 춘천으로<sup>9</sup> 보기도 한다. 그리고 남쪽의 熊川은 경기도 안성과 평택을 이어 흐르는 안성천<sup>10</sup>이나 오늘날의 금강<sup>11</sup>으로 보는 견해가 대세를 이룬다.<sup>12</sup> 이럴 경우 백제는 적어도 4세기까지 경기도와 충청 일부 지역까지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마한의 일부는 금강 유역과 그 이남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추측은 당시 마한이 중국과 직접 교역을 시도하고 있었던 대외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무제 태강 원년(280)과 2년에 그 왕[主]이 빈번히 사신을 보내어 조공 방물을 바쳤다. (태강) 7년과 8년 10년에도 또 자주 왔다. 태희 원년(290)에는 東夷校尉 何龕에게 이르러 공물을 바쳤다. (이전) 함녕 3년에 다시 왔고, 다음 해에도 또 귀부하기를 청하였다(『진서』 97, 「열전」 67, 四夷 馬韓).

馬韓 등 11국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진서』 3, 「본기」 3, 무제 太康 7년).

8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355쪽; 문안식, 앞의 책. 한편, 이 강역 기사를 근초고왕 대의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아 폐하를 대동강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임기환, 「백제의 동북방면 진출-문헌적 측면」, 『근초고왕 때 백제영토는 어디까지였나』, 2013, 30쪽).

9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603~604쪽; 임기환, 앞의 글, 35쪽.

10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247~248쪽.

11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 하, 『한국학보』 3, 일지사 1976; 이도학, 『백제고대국가연구』, 일지사, 1995, 320쪽; 최범호, 「백제 온조왕대 강역획정 기사의 제설 검토」, 『백산학보』 87, 2010, 124쪽.

12 근래 이 강역을 백제의 영역이 아니라 자신의 세력권으로 간주한 지역에 대한 인식이 기록에 투영된 것이므로 후대 사실로 소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견해도 있다(위가야, 「백제 온조왕대 영역확장에 대한 재검토-비류집단 복속과 '마한' 국읍 병합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0, 2013, 33쪽).

13 고고학적으로도 경기·충청 지역인 화성 마하리·백곡리, 포천 자작리, 파주 주월리, 원주 법천리, 천안 용원리, 진천 산수리, 청주 신봉동 등 백제와 관련한 유적이 대개 4세기 이후로 편년된다(김기섭, 「백제 한성기 연구동향과 과제」, 『백제문화』 33, 2004, 16쪽).

『진서』武帝本紀에는 함녕 2년(276)부터 태희 원년(290) 사이에 동이가 조공·귀화·내부하였다는 기록이 무려 15회나 나온다. 진나라에 조공한 정치세력으로 東夷 8국, 동이 17국, 동이 6국, 동이 9국, 동이 10국, 동이 20국, 동이 5국, 동이 29국, 동이 11국, 동이 2국, 동이 7국, 동이 11국, 東夷絶遠 30여국, 동이 7국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위의 『진서』四夷傳에도 서기 277~290년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진에 遣使했다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 주체를 ‘그 나라 왕[其主]’로 표기함으로써 사신을 파견한 동이가 대외적으로는 왕이 있는 단일한 정치집단으로 인정받았음을 시사한다.<sup>14</sup> 더군다나 『진서』武帝本紀 태강 7년(286) 기록에는 ‘마한’을 단일 국명처럼 기록하였다.

진 무제 咸寧 중에 마한(왕)이 조공해 왔다. 이로부터 삼한을 듣지 못했는데 모두 백제와 신라에게 병탄된 것이다(『통전』 185, 「동이」 상, 변진).

그리고 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중국에서는 마한과 백제 그리고 신라를 구분하여 인식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함녕 연간(275~279)에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마한이 여전히 존속하였다면, 3세기 후반 무렵에 금강 일대<sup>15</sup> 이남의 마한 정치체들 사이에서도 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국가 체제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독자적인 교역 체계<sup>16</sup>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 14 전중국, 「마한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 고대의 고고와 역사』, 학연문화사, 1997, 304쪽.  
 15 금강유역권의 유적 사례를 통해 미호천 지역, 천안 지역, 감천 지역, 공주 및 연기 지역, 서천 지역 등에서 정치체인 ‘국’이 존재한다고 보았다(박중균, 「금강유역 원삼국기 문화의 지역성과 ‘국’의 존재양상」, 『호서고고학』 28, 2013, 82쪽).  
 16 토광묘와 함께 마한의 대표적인 묘제인 분구묘와 양이부호, 이중구연호 등 출토품들은 산동반도에서 해로를 통해 파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임영진, 「마한토기의 기원 연구-분구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5, 2017, 74쪽)도 결국 교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고고학적으로도 이 시기 마한의 유력 정치세력이 존재하였음을 상정할 수 있는 漢式 銅鏡이 공주·부여·익산 등 금강 중·하류권에서 출토되었고, 3세기 때의 마한과 연관된 토기인 兩耳附壺<sup>17</sup>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일대가 마한의 중심 세력인 목지국이 있었다<sup>18</sup>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3세기 이후 충청권에서는 주구토광묘가 서서히 단절되고, 이 시기와 거의 일치하면서 영산강 유역에서 본격적인 고분이 축조되기 시작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것은 금강 유역의 마한 세력마저 서서히 백제의 압력 때문에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버티어 나갈 수 없었던 사정을 말해 준다.<sup>19</sup>

이러한 현상은 4세기에 접어들면 더욱 뚜렷해지며, 이에 따라 마한 세력은 전라도 지역에서도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보여 주는 직접적인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내용을 통해 백제와 전북권 세력의 상황에 대한 일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으로 碧骨池를 만들었는데 독의 길이가 1,800보였다(『삼국사기』 2, 「신라본기」 2, 흘해이사금 21년).

己丑에 비로소 碧骨堤를 쌓았는데 둘레가 □만 7,026보요, □□가 166보요, 논의 1만 4,070□였다(『삼국유사』 1, 「왕력」 1, 제16 결해이질금).

위의 기록을 통해 벽골제의 初築이 330년에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벽골

17 평지와 원저 토기 모두 호서 서해안과 서남부 호남 지역에 집중된다고 한다(서현주, 「마한 토기의 지역성과 그 의미」, 『선사와 고대』 50, 2016, 81쪽).

18 박대재,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2006, 111~116쪽. 한편, 박찬규는 목지국의 중심지로 익산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문헌을 통해 본 마한의 시말』, 『백제학보』 3, 2010, 13쪽).

19 임영진, 「마한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10, 1995, 119쪽.

제는 현재 전북 김제에 있었다. 따라서 위의 기록대로라면 당시 김제 부근은 신라와 관련이 된다. 그러나 당시 신라는 낙동강 이서 지역에도 제대로 세력을 뻗치지 못하였다. 낙동강 이서에서 소백산맥 일대까지는 가야 세력이 엄존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삼국사기』를 편찬한 찬자가 「백제본기」에 실어야 할 것을 잘못 기록한 것<sup>20</sup>이 된다. 그러므로 이는 나아가 백제가 이때에 전북 김제 지역까지 진출<sup>21</sup>하였음을 알려 주는 단서로 볼 여지도 제공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벽골제의 축조 자체가 백제와 관련이 없다<sup>22</sup>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벽골제를 초축한 4세기 전반 이후로 그 규모와 기본 시설들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본 견해<sup>23</sup>에 따르면, 벽골제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sup>24</sup>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인력 동원과 함께 일정 정도의 국가급 규모의 능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만 한다. 따라서 벽골제의 축조는 좀 더 강력한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경우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백제일 수밖에 없기에 백제가 처음 이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면서 만들었을 가능성<sup>25</sup>이 크다.

이처럼 벽골제의 축조 시기 및 축조 주체를 고려할 경우 4세기 초 백제의 적극적인 전북권역 진출을 위한 노력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판으로 전라도 지역의 중요성을 인지하였고, 다시 근초고왕 시기에 이르면 백제는 본격적인 진출

20 김주성, 「벽골제의 축조와 변화」, 『한국고대사탐구』 21, 2015, 272~273쪽.

21 『일본서기』 옹신 7년(396)에 왜로 건너간 백제인과 고려인·임나인·신라인들이 저수지를 축조하였는데, 『고사기』에는 이를 '백제지(百濟池)'로 기록한 것을 보면 백제는 이보다 앞서 제방과 저수지를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노중국, 「백제의 수리시설과 김제 벽골제」, 『백제학보』 4, 2010, 31쪽).

22 축조세력을 고비리국(정읍)과 벽비리국(김제)의 연합세력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다(최완규, 「전북 지역 마한·백제 묘제의 양상과 그 의미」, 『백제학보』 18, 2016, 154쪽).

23 강봉룡, 「새만금 바다,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 허브-7세기 동아시아 해전과 벽골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50, 2018, 63쪽.

24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110쪽.

25 김근영·정재윤, 「백제의 중방성 설치와 그 의미」, 『마한백제문화』 33, 2019, 46쪽.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봄 3월에 ①荒田別과 鹿我別을 장군으로 삼았다. 곧 久氐 등과 함께 군사를 정돈하고 (바다를) 건너서, 卓淳國에 이르러 신라를 습격하려고 하였다. 이때 어떤 사람이 “병사의 수가 적어서 신라를 격파할 수 없으니, 다시 沙白·蓋盧를 받들어서 군사를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말하였다. 곧 木羅斤資와 沙沙奴跪이(두 사람은 그 성을 알지 못한다. 단 목라근자는 백제의 장군이다.)에게 명하여, 精兵을 이끌고 沙白·蓋盧와 함께 파견하였다. 이들이 함께 탁순국에 모여서 신라를 격파하였다. ②그리하여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안라, 다라, 탁순, 가라의 7국을 평정하였다. ③군사를 옮겨 서쪽을 돌아 고해진에 이르러 南蠻의 침미다례를 무찔러 백제에게 주었다. ④이에 그 왕인 肖古와 왕자 貴須가 또한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그때 비리, 벽중, 포미, 지반, 고사의 몹은 스스로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백제왕 부자와 황전별, 목라근자 등은 意流村(지금의 州流須祗를 말한다.)에서 만났다. 서로 보고 기뻐하였고, 예를 후하게 하여 보냈다. ⑤다만 千熊長彦과 백제왕은 백제국에 이르러 辟支山에 올라가 맹세하였다. 또 古沙山에 올라, 함께 반석 위에 앉았다. 이때 백제왕이 맹세하여……천용장언을 데리고 도성 아래에 이르러 후하게 예우를 더하였다(『일본서기』 9, 신공 49년).

위의 기록은 시기적으로 神功 49년 즉 249년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이 기록에 등장하는 백제왕 肖古와 왕자 貴須를 각기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에 해당한다고 보아 120년의 보정연대를 두었다. 이렇게 되면 위의 내용은 근초고왕 24년(369)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위 기록이 4세기인 근초고왕 대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5세기 이후의 내용을 반영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sup>26</sup> 나아가 위 기록이 전하는 내용은

26 연민수, 「일본서기 신공기의 사료비판」,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1998; 이근우, 「웅진시대 백제의 남방경역에 대하여」, 『백제연구』 27, 1997, 59~60쪽; 김기섭, 「백제의 영역확장과 마한병단」,

백제계 사료에 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한 반면 오히려 아리타와케[荒田別], 카가와케[鹿我別]의 왜국 측 씨족 전승에 의거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사료의 신뢰도가 충분치 않은 관계로 아예 6세기 이후의 사실을 소급한 것<sup>27</sup>이라 보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고고학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영산강 유역의 경우는 대형 옹관묘의 존재와 이 지역에 백제의 묘제인 석실분이 5세기 말~6세기 초에 유입된다는 사실 때문에, 근초고왕 때의 남방 진출 지역 중 전라도 남부 즉 전남 일대에 대한 복속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sup>28</sup> 하지만 5세기를 전후하여 이 지역의 분묘군에서 묘제와 위치 변화가 보이고, 이후 새로운 분묘군이 분명하지 않거나 조성된 중심 분묘에서도 백제의 위세품이 보인다. 비록 소수이지만 백제 토기의 요소도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충청 북부지역과는 다르지만 백제 근초고왕의 남방 정벌이라는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sup>29</sup>도 제기되므로, 위의 신공 49년 기록을 백제의 입장에서 해석할 여지는 여전하다 할 수 있다. 다만 당시 근초고왕의 진출이 ‘일시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하는 정도의 차이와 그 진출 대상 지역이 백제의 지배체제에 곧바로 ‘편제되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과정의 문제일 뿐이다.

한편, 위 기록은 기재의 방향이 왜의 군사 활동에 있지만 기록 활용에 있어 그 주체는 왜가 아니라 백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그런데 위 기록은 크게 5개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바 ① 신라의 격파, ② 가야에 대한 평정, ③ 남만 침미다례에 대한 도륙, ④ 4~5읍의 항복, ⑤ 근초고왕의 맹서와 백제 도움으로의 귀환 등으로 나뉜다.

---

『백제학보』 11, 2014, 106쪽.

27 정동준, 「백제 근초고왕대의 마한 영역화에 대한 사료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91, 2018, 107쪽.

28 임영진, 「묘제를 통해 본 마한의 지역성과 변천과정」, 『백제학보』 3, 2010, 41쪽.

29 서현주, 「백제의 서남방면 진출-고고학적 측면」, 『근초고왕 때 백제영토는 어디까지였나』, 2013, 133쪽.

그중에 먼저 ①과 ②의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라에서는 鐵이 생산되는데, 韓·濊·倭에서 모두 와서 사 간다.……또 두 郡에도 공급하였다(『삼국지』 30, 「위서」 30, 烏桓鮮卑東夷傳 30, 弁辰).

위의 기록처럼 건안 연간(196~219) 이후 한반도의 대외 교역은 韓·濊·倭와 중국 군현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형태였는데 이 성격이 3세기 후반~4세기를 거치면서 변화를 겪는다. 그 중에 신라와 가야는 낙랑(313)과 대방군(314)이 축출됨으로써 對中國 교역의 중심점을 잃어버린다. 중국 郡縣은 가야와 연관된 弁韓 지역에서 다량의 철을 사가는 수요자인 동시에 중국 물산의 공급 주체였다. 그런데 중국 군현의 축출은 이 지역 교류 활동의 후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해상 루트마저 위축되었음을 뜻한다. 반면에 철을 매개로 하여 가야의 정치적·경제적 위상은 더욱 중요시되는 결정적인 사건<sup>30</sup>이었다.

이에 신라는 새로운 대외 교류의 복원이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세기 후반에서 4세기까지 경상도 지역의 분묘에서 비록 소수이지만 북방계 甲冑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북방계 武具는 경주와 김해 禮安里를 거쳐 일본에서도 출토되는데, 이러한 분묘 부장품의 변화는 국제간에 교역되던 물품, 교역 루트, 교역 상대자의 변화를 의미한다.<sup>31</sup> 또 기록에는 300년에 신라에 대한 倭의 침략이 중단되고, 交聘<sup>32</sup>이 나타나며 이후 신라와 청혼을 성사시키는 등<sup>33</sup> 345년<sup>34</sup>까지 약 반세기

30 유우창, 『『일본서기』 신공기의 가야 인식과 ‘임나일본부’』, 『지역과 역사』 35, 2014, 19쪽.

31 이현해, 『한국 고대의 생산과 교역』, 일조각, 1998, 304쪽.

32 『삼국사기』 2, 「신라본기」 2, 기림이사금 3년. “春正月 與倭國交聘”

33 『삼국사기』 2, 「신라본기」 2, 흘해이사금 3년 3월. “倭國王遣使爲子求婚 以阿滄急利女送之”

34 『삼국사기』 2, 「신라본기」 2, 흘해이사금 35년 2월. “倭國遣使請婚 辭以女既出嫁” 및 36년 2월.



동안 양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지속된다.

이러한 여러 정황은 4세기에 북방 문물이 적극 유입되어 고구려-신라-낙동강 하류-일본열도를 잇는 육상 교류 루트도 활발해졌음을 의미하기에, 백제는 이러한 교류 루트도 통제할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정벌 이전 백제가 신라에 來聘하고,<sup>35</sup> 良馬를 보내는<sup>36</sup> 등 우호적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초고왕의 가야 지역 정벌 시 가장 먼저 ‘공격한 곳’으로 나오는 지역이 바로 신라가 되었다고 추측된다.

이럴 경우 가야 정벌 또한 백제-가야-왜로 이어지는 교역 루트의 연결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당시 백제는 목라군자와 사사노궤가 군대를 이끌고 낙동강 일대 경상도의 비자발(창녕), 남가라(김해), 안라(함안), 탁국(창원), 다라(합천), 탁순(대구), 가라(고령)를 평정하였다고 나타난다. 다만 정벌의 의미에 있어 이 시기 백제가 가야를 완전하게 평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백제의 가야에 대한 지배-복속의 관계가 아니라 동맹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sup>37</sup> 이는 훗날 백제 성왕(523~554)이 근초고왕(346~375)·근구수왕(375~384) 때부터 백제가 가라(=가야)제국과 상하관계를 맺었다고 회고한<sup>38</sup>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음 ③과 ④의 부분은 가야의 문제 해결 후 백제군은 다시 서쪽으로 고해진에 이른 후에 남만 침미다례까지 정벌하였는데 이때 별도의 군대를 이끌고 백제 근초고왕과 왕자 귀수가 남하하자,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sup>39</sup> 지역이 항복하였다는 것이

“倭王移書絶交”

35 『삼국사기』 24, 「백제본기」 2, 근초고왕 21년 3월. “遣使聘新羅”

36 『삼국사기』 24, 「백제본기」 2, 근초고왕 23년. “遣使新羅 送良馬二匹”

37 김규운, 「5세기 한성기 백제와 가야 관계」, 『중앙고고연구』 9, 2011, 128쪽.

38 『일본서기』 흙명 2년 4월.

39 전영래, 『주류성·백강 위치 비정에 관한 신연구』,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전라북도지부, 1976, 52~54쪽;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393쪽; 문안식, 「백제의 영산강유역 진출과 토착세력의 추이」, 『전남사학』 16, 2001, 17쪽.

다. 따라서 이는 낙동강 이서 소백산맥 이동의 가야 지역과 별개로 소백산맥 이서의 전라도 마한 세력에 대한 공략이 이어졌음을 보여 준다. 이 중 침미다례는 전남 강진·해남<sup>40</sup> 일대로 보이며, 비리(군산)<sup>41</sup>·벽중(김제)·포미·지반(부안)·고사(정읍)의 경우도 國邑이라 표현될 지역 거점<sup>42</sup>이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⑤의 부분에는 근초고왕 부자와 정벌군이 의류촌이란 곳에서 회동하였고, 다시 辟支山과 古沙山에 올라 승리 의식을 거행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 의류촌을 달리는 주류수지라고 하였는바 바로 주류성<sup>43</sup>을 가리킨다. 아울러 벽지산과 고사산은 각기 김제와 정읍<sup>44</sup>으로 보고 있는데, 백제왕이 각각 산에 올라 맹세를 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이 지역을 중요시했음<sup>45</sup>을 뜻한다. 특히 고사 지역은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狗素國에 해당하는 바 『한원』의 기록에 의하면 ‘國鎭馬韓地苞狗素’라 하여 마한을 진압할 때 구소국을 특별히 언급할 정도로 고사 지역이 백제의 마한 정벌에 커다란 분기점<sup>46</sup>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결국 근초고왕 재위 기간에 해당되는 신공 49년(369)의 남방 정벌은 백제가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다음 해인 신공 50년(370) 기록에 나오는 “바다 서쪽의 여러 한(海西諸韓)”<sup>47</sup>과 신공 51년(371)에 “海西를 평정하여(平定海西)”<sup>48</sup>란 표현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된다. 이를 ‘한반도 서남해의 諸韓을 평정’하였다는 의미로 본다

40 김영심, 「문헌자료로 본 침미다례의 위치」, 『백제학보』 9, 2013, 19쪽.

41 김태식,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교섭과 정복」, 『백제연구총서』 5, 1997, 51쪽.

42 김제, 부안, 고부, 정읍, 고창 흥덕 등으로 보았다(김낙중, 「고고학 자료로 본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의 위치」, 『백제학보』 9, 2013, 27~32쪽).

43 이도학, 「영산강 유역 마한제국의 추이와 백제」, 『백제문화』 49, 2013, 120쪽.

44 전용신 역, 『완역 일본서기』, 일지사, 1989, 166쪽.

45 최완규, 앞의 논문, 154쪽.

46 정재운, 「문헌자료로 본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 『백제학보』 9, 2013, 12쪽.

47 『일본서기』 9, 신공 50년 5월.

48 『일본서기』 9, 신공 51년.

면, 백제에게 남방 정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는 근초고왕 자신이 “너무 기뻐서 펼쩍 뿔(歡喜踊躍)”<sup>49</sup> 정도였다고 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또 3년 뒤 손자인 침류왕에게 “이로 말미암아 국가의 기틀이 영원히 단단해졌다.[由是 國基永固]”<sup>50</sup>고 말하였던 것으로 전북을 포함하는 전라도 지역의 복속이 뜻하는 바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벌을 통해 백제가 전라도 지역을 곧바로 영역화하여 통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백제가 북방의 고구려를 대비하기 위해 힘을 쏟아야 했기 때문이다. 백제의 남방 정벌이 신공 49년(369) 3월에 있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에 고구려군이 치양(황해도 백천)까지 쳐내려 왔다.<sup>51</sup> 백제는 6개월 사이에 남방과 북방에서 전쟁을 치렀던 것이다. 그리고 2년 뒤인 근초고왕 26년(371)에도 백제는 평양성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다.<sup>52</sup> 하지만 이후 소수림왕(371~384)→고국양왕(384~391)→광개토왕(391~413)으로 이어지는 고구려와의 첨예한 대립은 남방에 대한 백제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百濟記에 말하였다. 阿花가 왕이 되어……우리의 忱彌多禮 및 峴南·支侵·谷那·東韓의 땅을 빼졌다(『일본서기』 10, 응신 8년).

이해에 아화왕이 죽었다. 천황은 직지왕을 불러 “그대가 나라에 돌아가서 왕위를 이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동한의 땅을 주어 보내었다(동한은 감라성, 고난성, 이립성이다.)(『일본서기』 10, 응신 16년).

10년 경자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였다. (고구려군이)

49 『일본서기』 9, 신공 50년 5월.

50 『일본서기』 9, 신공 52년 9월.

51 『삼국사기』 14, 「백제본기」 2, 근초고왕 24년 9월.

52 『삼국사기』 24, 「백제본기」 2, 근초고왕 26년.

男居城을 거쳐 新羅城에 이르니 왜군이 가득하였다. 官軍이 막 도착하니 왜적이 퇴각하였다. (고구려군이)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任那加羅의 從拔城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安羅人戍兵……新羅城口城……하였고, 왜구가 크게 무너졌다(『광개토왕릉비문』).

위의 기록대로라면, 백제는 아신왕 6년(397)에 침미다례 등 ‘369년 남정의 산물’<sup>53</sup>의 상당 부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분명 고구려와의 대립·공격<sup>54</sup>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익히 알다시피 백제는 고구려의 광개토왕(391~413)이 즉위한 이후 대고구려 전투에서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미 진사왕 8년(392)에 고구려의 침공으로 석현성 등 한수 북쪽의 10여 성을 빼앗겼고, 같은 해 10월에는 요충인 관미성까지 함락당하고 말았다.<sup>55</sup>

아신왕 2년(393)에 관미성 및 북방 5성 수복 실패 이후 백제는 아신왕 3년 수곡성, 4년 패수 전투와 4년 11월의 청목령 주둔, 6년(397) 7월의 한수 남쪽의 대열병, 7년 8월의 한산 목책 진군 등 북방의 고구려와 지속적인 대결 상태였다. 더군다나 아신왕 8년 8월에 고구려를 치고자 군사와 말을 징발하자 마침내 백성들이 신라로 대거 도망하는 민심 이반 사태까지 벌어졌다.<sup>56</sup> 결국에는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것처럼 58성 700촌을 빼앗기고 백제왕은 “이후로 영원히 奴客이 되겠다.”고 서약할 지경에 이르고 만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전개와 연관된 것이 위에 인용한 응신 8년(397)의 기록이다. 이는 결국 근초고왕 때의 정벌(369)로 복속되었던 전라도 지역이 고구려와의 전면전이 계속되자 이미 아신왕 6년(397)부터 서서히 백제의 영향력에서 이탈하였음을

53 이도학, 「곡나철산과 백제」, 『동아시아고대학』 25, 2011, 90쪽.

54 홍성화, 「광개토왕릉비를 통한 『일본서기』 신공, 응신기의 분석」, 『일본연구』 13, 2010, 9쪽.

55 『삼국사기』 25, 「백제본기」 3, 진사왕 8년.

56 『삼국사기』 25, 「백제본기」 3, 아신왕 8년.

보여 준다. 더불어 위의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것처럼 400년 고구려는 임나가  
라에까지 침공하여 가야와 왜의 세력을 격파하는 등 낙동강 유역 일대에까지 영향력  
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백제의 남방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백제도 나름대로 남방 지역에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시도한 것이 엿보인다. 위의 웅신 16년 기록 속 이림, 감라, 고난의 ‘동한’을 각기  
임실, 남원, 곡성 등 섬진강 상류의 전라도 내륙 지역으로 본다면,<sup>57</sup> 여전히 벽중(김  
제), 지반(부안), 고사(정읍) 등의 전북 서부와 함께 전북 동부 내륙에 대한 통제에  
도 노력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안으로는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고부  
지역까지 내륙으로는 노령산맥 이북 지역까지 확대된 남방 영역이 한성 함락 이전까  
지는 유지<sup>58</sup>되었을 수도 있다.

물론 백제의 남방 정벌 이후에도 영산강 유역의 거대 고분은 6세기 전반까지  
지속되었다. 이것이 백제의 영향권 밖에 강대한 독자세력이 존재하였음을 웅변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 또한 전남 일대(영산강 유역) 세력의 독자적인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백제와 고구려로 대변되는 국제적 갈등 속에서 피동적으로  
가능한 구조<sup>59</sup>였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

57 김병남, 「백제 웅진시대의 남방 재진출과 영역화 과정」, 『군사』 61, 2006, 37쪽.

58 김영심, 「백제 중방성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마한백제문화』 33, 2019, 13쪽.

59 이 점에서 백제의 주적이 신라이기 때문에 백제의 섬진강 일대에 심혈을 기울여서 영산강 유역의  
반 자치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동희, 「백제의 전남 동부지역 진출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고고학보』 64, 2007, 20쪽).

## IV. 백제의 재진출과 전북 지역의 추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세기 근초고왕 대 이루어진 백제와 남방의 관계는 다소 느슨한 형태를 보였다. 백제의 직접적인 무력행사를 통한 남방 정벌에 가야, 마한 등을 굴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국가 관계 속 정세의 변화가 백제로 하여금 남방에 주력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틈은 결국 남방의 통제력 이완을 불러왔다. 더군다나 이후 백제는 북방 고구려와의 대결에 우선순위를 둬으로써 더더욱 남방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없었다.

더불어 백제는 정변에 의한 비유왕(427~455)의 죽음<sup>60</sup>과 개로왕(455~475)의 등장으로 중앙 정치가 혼란에 빠지고 나아가 고구려 장수왕의 한성 침공(475) 등으로 말미암아 당분간 지방 통제는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백제의 본격적인 지방 지배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지만 웅진 천도 이후에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백제의 남방 지역 진출과 관련된 최초의 징후를 엿볼 수 있는 것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이다.

겨울 10월에 대궐 남쪽에서 크게 군대를 사열하였다(『삼국사기』 26, 「백제본기」 4, 동성왕 8년).

물론 위의 동성왕 8년(486) 기록은 남방보다는 북방의 고구려에 대한 군사적 압력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군대 사열을 통해 군사적 압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자 한 점을 고려할 때, 동성왕이 서서히 국정 전반과 왕권 행사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백제의

60 천관우, 「삼한의 국가 형성」 하, 『한국학보』 3, 일지사, 1976, 139쪽; 이도학,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왕위계승과 왕권의 성격」, 『한국사연구』 50·51, 1985, 3쪽.

국력 만회를 위해 근초고왕 이래 관련을 맺었던 남방 일대로 눈을 돌릴 계기가 된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산성 전투(487) 기록은 백제가 다시 전북권역에 대한 진출과 복속의 모습을 보여 주는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해 紀生磐宿禰가 임나에 있다가 고구려와 통하였다. 서쪽으로 삼한의 왕이 되려고 하여, 관부를 정비하고 스스로 神聖이라 칭했다. 임나의 左魯 那奇他甲背 등이 계략을 이용해서 백제의 適莫爾解를 爾林에서 살해했다(爾林은 고구려의 땅이다). 帶山城을 쌓아 동쪽 길을 막았다. 식량을 운반하는 항구를 차단하여 (백제의) 군사를 기아에 빠뜨렸다. 백제왕이 대노하여 領軍 古爾解, 內頭 莫古解 등을 보내 무리를 이끌고 帶山을 공격했다. 이에 기생반숙네는 진군하여 역공했다. 용기가 더욱 나서 향하는바 모두 격파했다. 일당백이었다. 조금 지나 병사는 힘이 다하니 일이 그르칠 것을 알고 임나에서 돌아왔다. 이로 인하여 백제국은 좌로 나기타갑배 등 3백여 인을 죽였다(『일본서기』 15, 현종 3년).

위 기록은 기본적으로 487년에 발생한 기생반숙네의 반란에 대한 전승에 기반한다. 이 기생반숙네의 출신에 대해서는 倭臣說, 일본 호족세력설, 백제 장군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건대, 일본의 한반도 남부 지배와는 상관없이 백제인으로 추정<sup>61</sup>되는 紀生磐에 의한 일종의 반란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그는 가야와 고구려의 접경에 주둔하던 백제 장군으로서 가야인과 함께 반란을 도모한 것<sup>62</sup>으로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이 전투는 백제의 임나 방면 진출과 관련되어 일어난 것이며, 사건도 한반도의 내부적인, 즉 백제와 임나(가야)의 관계

61 천관우, 『가야사연구』, 일조각, 1991, 37쪽.

62 백승옥, 「4~6세기 백제와 가야제국 『일본서기』 관련기사 검토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7, 2012, 66쪽.

로 국한된다. 그렇다면 문제는 任那가 과연 어디일까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임나와 함께 나오는 지명(이림, 대산성)의 파악이 필요하다. 우선 이림은 임나인 좌로 나기타갑배 등이 백제인 적막이해를 살해했던 곳이기 때문에 백제와 임나의 경계에서 멀지 않은 지역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 사건의 경과로 보건대 대산성은 이림과 서로 분리할 수 없다. 이림에 주둔한 백제군을 공격한 후, 그곳에 대산성을 쌓아 백제 공격에 대비하였던 점을 감안해야만 한다. 위의 내용 중에 “대산성을 쌓고 동도를 지켰다.”는 구절의 ‘東道’는 일본음이 ‘야마토 지(ヤマトチ)’ 즉 ‘야마토미치(ヤマトミチ;大和道)’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백제의 對日 교통로와 관련된 것이고, “식량을 운반하는 항구를 차단”한다는 구절은 하천을 이용한 백제군의 군량 운송을 차단했다는 의미이다.<sup>63</sup> 따라서 여러 정황들은 대산성이 강을 낀 지역과 관련되어 이림을 섬진강 유역의 임실<sup>64</sup>로 보는 근거가 되었다. 이처럼 이림(임실)을 상정하면, 임나의 소재지 또한 섬진강 상류역의 서남 지역, 즉 임실·남원을 중심으로 한 부분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65</sup> 그런데 『일본서기』 계체 7년(513)에 보이는 임나의 일국인 己汝을 남원으로 보는 견해를 따르면,<sup>66</sup> 대산성 전투에 관련된 임나국을 기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된다.<sup>67</sup>

그러므로 여러 정황과 근거들은 동성왕 9년(487)에 있었던 대산성 전투가 백제와 임나의 한 세력인 기문국 사이에 벌어진 사건임을 보여 준다. 즉 남원과 임실을

63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1998, 168쪽.

64 이영식,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한국고대사논총』 7, 1995, 207쪽; 김애경, 「6세기 백제의 가야진출과 그 성격」, 『이화사학연구』 27, 2000, 140쪽; 주성지, 「웅진시대 백제의 섬진강 수계 진출」, 『경주사학』 22, 2003, 47쪽.

65 이림과 대산성을 섬진강 상류역 부근으로 추정하려는 것은, 백제가 임실→남원→함양→거창→고령이나, 임실→남원→함양→산청→진주 그리고 임실→남원→구례→하동→진주→함안으로 이어지는 소위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는 최초의 관문이 바로 섬진강 상류역 부근인 때문이기도 하다.

66 今西龍, 「己汝伴跋考」,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1970, 375~390쪽.

67 전영래, 앞의 논문, 145~147쪽.



아우르는 재지세력인 임나의 기문국은 자국 북방의 국경 부근까지 진입하여 주둔하던 백제의 변경 수비대장 격인 適莫爾解를 이림(임실)에서 죽이고, 그 배후에 대산성을 쌓았다. 이에 백제는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여 좌로 나기타갑배 등 3백여 인을 죽여 버리고, 아예 이 지역에 진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위와 같이 섬진강 상류 지역에 진출한 성과는 곧바로 주변의 여러 재지세력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가을에 풍년이 들었다. 나라 남쪽 바닷가 어촌 사람이 이삭이 맞붙은 벼를 바쳤다. 겨울 10월에 왕이 제단을 만들어 천지 신령에게 제사를 지냈다(『삼국사기』 26, 「백제본기」 4, 동성왕 11년).

즉 위의 기록처럼 동성왕 11년(489)에는 ‘國南海村人’이 “이삭이 맞붙은 벼[合穎禾]”를 바쳤기 때문이다. 고대사회에서의 현상이 복속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이것은 ‘南海村人’으로 표현된 일단의 유력자가 백제에 복속을 청했음을 뜻한다. 그리고 ‘남해’라는 표현은 백제의 영향력이 다시 남방에 현저하게 증대하였음을 의미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로 인한 자신감은 제단을 설치하고 천지에 제사를 올리는 의식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하늘과 땅(天地)’에 대한 제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외적으로 자신감이 충만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나라에는 풍년이 들어 國富도 충실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남방 진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작호 제수 요청 기록이 아닐까 한다. 『남제서』에는 동성왕 12년(490)에 면중왕 저근을 도한왕, 팔중후 여고를 아착왕, 건위장군 여력을 매로왕, 여고를 불사후로 제수하고, 또 동성왕 17년(495)에도 사법명을 매라왕, 찬수류를 벽중왕, 해례곤을 불중후, 목간나를 면중후로 제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나타난다.<sup>68</sup>

이에 따르면 면중, 도한, 팔중, 아착, 매로(라), 불사, 벽중, 불중 등의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벽중은 김제로, 阿錯은 魯山州 6현 중의 阿錯縣<sup>69</sup>으로, 邁盧(羅)는 都督府 13현 중의 邁羅縣(군산 옥구)<sup>70</sup>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面中·都漢·팔중은 각기 광주·고흥·나주<sup>71</sup>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弗中의 경우 이를 전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비록 『삼국사기』 본기에 비사벌주를 완산주(전주)라고 기록하였더라도 「창녕 신라진흥왕 척경비」에 ‘比子伐軍主’가 보이고, 『삼국사기』 진흥왕 26년에 비사벌주를 폐지하고 대야주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보면 완산주는 오기임이 확인된다.<sup>72</sup>

따라서 이를 제외한 동성왕 대의 작호 관련 지명들은 웅진을 중심으로 한 방어 체제 구축 및 전라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벽중(김제)·아찰·매로(라)와 같은 지역은 4세기 근초고왕 때에 이미 백제와 관계를 맺은 지역으로, 수도인 웅진(공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도성의 방위에 중요하였다. 이에 반해 팔중·도한·면중은 웅진 천도 이후 직접적인 영향을 받던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영산강 유역의 문화 양상으로 보아, 전남 지역 일대가 백제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것은 동성왕 대의 왕·후호 제수 요청 시기와 근접<sup>73</sup>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성왕 17년(495) 시점에 이르러 백제는 광주·나주 지역에도 좀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동성왕 20년(498)에는 더 남쪽의 복속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68 『남제서』 58, 「열전」 39, 동남이, 동이, 백제.

69 『삼국사기』 37, 「잡지」 6, 지리 4, 魯山州. 노산주가 익산·김제·완주 일대이므로 아찰은 그 주변으로 추정된다.

70 『삼국사기』 37, 「잡지」 6, 지리 4.

71 이도학, 앞의 논문, 2013, 124쪽.

72 최범호, 「『삼국사기』 완산주 관련 기록의 재검토」, 『전북사학』 48, 2016, 9~10쪽.

73 임영진, 앞의 논문, 119쪽.

8월에 왕이 耽羅에서 공납과 조세를 바치지 않는다 하여 그를 직접 치려고 무진주에 이르니 耽羅에서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사죄하므로 중지하였다(耽羅는 곧 耽牟羅이다.) 『삼국사기』 26, 「백제본기」 4, 동성왕 20년.

기록에 따르면 탐라가 공물과 조세를 바치지 않은 것을 구실로 삼아 백제는 동성왕이 직접 무진주까지 군대를 이끌고 내려간다. 이때 동성왕이 응징하려고 한 탐라는 제주도가 아니라 탐모라(강진·해남)<sup>74</sup>로 보고 있다. 당시 서남해안 지역은 육지 깊숙이 들어온 만과 내해를 연결하면서 바닷길을 통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며, 백제의 중앙집권력이 약화되어 변방에 대한 통치가 이완되자 독자적인 대외 활동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동성왕이 무진주까지 친정에 나선 까닭은 탐모라를 위압하여 해상세력의 발호와 독자적인 대외 교섭을 차단하려는 목적<sup>75</sup> 때문이었다. 이럴 경우 당시 백제의 관심 중 하나가 서남해안 지역에 대한 경략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의 전북 지배의 중심이었던 중방 고사성 지역인 정읍 고부면과 영원면 일대의 은선리고분군, 후지리고분군 등에 많은 횡혈식석실분이 위치하고, 약 120여 기의 석실분도 확인되었다.<sup>76</sup> 마한 분구묘가 군집을 이루는 지사리와 운학리고분군 인근에 6세기 초·중반의 백제 중앙묘제인 횡혈식석실분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sup>77</sup>는 것은 늦어도 웅진시대부터 이들 지역이 백제와 긴밀한 관계 아래에 중방 고사성으로 거듭난 것<sup>78</sup>을 의미한다. 또한 6세기 중엽 영산강 유역에서도 백제 사비시기 고분(능산리형 석실)과 관련 유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된다. 이러한 현상은

74 이근우, 「웅진시대 백제의 남방경역에 대하여」, 『백제연구』 27, 1997, 53쪽.

75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300쪽.

76 전북문화재연구원, 『정읍 고사부리성』, 2012, 58쪽.

77 이 석실분의 의미를 사비시대에 들어서 중방 고사부리성이 영산강 유역까지 아우르는 거점으로서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최완규, 「김제 벽골제와 백제 중방성」, 『호남고고학보』 44, 2013, 171쪽).

78 김영심, 앞의 논문, 2019, 25쪽.

6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백제의 직접 지배<sup>79</sup>가 확산되었다는 근거로 보이지만, 결국 그러한 지배의 단초가 5세기 말 동성왕 대의 남방에 대한 관심과 공략에 기인한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북 지역은 백제와 관련을 맺기 이전에 이미 마한의 10여 소국가가 각기 개별 단위의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 소국들의 위치는 군산(옥구), 익산(함열, 여산), 김제, 부안, 정읍, 고창(홍덕) 등 서부 해안 지역 위주였는데 적어도 3세기 말까지는 마한의 일원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진서』와 『통전』 등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마한은 백제·신라와 더불어 별개의 존재로 중국과 교류하고 있었다. 따라서 진나라 함령 연간(275~279)에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마한이 여전히 존속하였으며, 나아가 독자적인 교역 체계도 유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고고학적으로도 이 시기 마한이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존재하였음을 상정할 수 있는 漢式 銅鏡이 공주·부여·익산 등 금강 중·하류권에서 출토되었고, 3세기 때의 마한과 연관된 토기인 兩耳附壺도 분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일대 이남 지역이 마한의 세력권으로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3세기 이후 충청권에서는 주구토광묘가 서서히 단절되고, 이 시기와 거의 일치하면서 영산강 유역에서 본격적인 고분이 축조되기 시작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금강 유역의 마한 세력이 서서히 백제의 압력을 버티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4세기에 접어들면 더욱 뚜렷해지며, 이에 따라 마한 세력은 전라도 지역에서도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였다. 이는 330년대에 初築된 벽골제를 통해 백제와 전북

79 이동희, 앞의 논문, 20쪽.

지역 세력의 조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벽골제의 축조에 백제의 관여를 고려할 경우 4세기 초 백제의 적극적인 전북권역 진출을 위한 노력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서기』의 기록을 통해 369년 백제는 대대적인 남방 진출을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남만 침미다례(전남 강진·해남 일대)와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 등의 소백산맥 이서 전라도 마한 세력과 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리(군산)·벽중(김제)·포미·지반(부안)·고사(정읍)의 경우는 백제왕이 벽지산(김제)과 고사산(정읍)에 올라 맹세를 할 정도로 중요시된 곳으로, 『한원』에 ‘國鎮馬韓 地苞狗素’라고 특별히 언급할 정도로 백제의 전북 지역 복속이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서기』에 ‘國基永固’라고 표현된 사실을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그러나 백제와 전라도 지역의 관계가 곧바로 영역화를 통한 통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후 백제는 북방의 고구려와 대립으로 남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가 없었다. 5세기에 들어서도 백제는 내부적으로 정변에 의한 비유왕(427~455)의 죽음과 개로왕(455~475)의 등장으로 중앙 정치가 혼란에 빠졌고, 다시 외부적으로 고구려의 한성 침공(475)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백제의 본격적인 지방 지배는 웅진 천도 이후에 재개되었다.

백제는 5세기 말 동성왕 때 대산성 전투(487)로 전북 내륙권에 진출한 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남제서』의 동성왕 12년(490)과 17년(495)의 왕·후호 제수 요청 기록도 이러한 연장선이다. 이에 등장하는 벽중(김제), 阿錨(익산·김제·완주 일대) 매라(군산 옥구), 面中(광주), 도한(고흥), 팔중(나주) 등의 지명은 웅진을 중심으로 한 방어 체제 구축 및 전라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다시 동성왕 20년(498)에 무진주까지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 탐모라(강진·해남)를 응징하려 한 시도도 백제의 관심 중 하나가 서남해안 지역에 대한 경략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전북권역을 넘어 영산강 유역 등에 대한 백제의 직접 지배의 단초는 결국 5세기 말 동성왕 대의 공략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 참고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광개토왕릉비문」, 『삼국지』, 『남제서』, 『통전』, 『일본서기』
-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 문안식, 『백제의 영역확장과 지방통치』, 신서원, 2002.
- \_\_\_\_\_,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 박대재,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2006.
-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 이도학, 『백제고대국가연구』, 일지사, 1995.
- \_\_\_\_\_,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 \_\_\_\_\_,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 이현혜, 『한국 고대의 생산과 교역』, 일조각, 1998.
- 전북문화재연구원, 『정읍 고사부리성』, 2012.
- 전영래, 『주류성·백강 위치 비정에 관한 신연구』, 1976.
- 전용신 역, 『완역 일본서기』, 일지사, 1989.
-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천관우, 『가야사연구』, 일조각, 1991.
- \_\_\_\_\_,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 강봉룡, 「백제의 마한 병탄에 대한 신고찰」, 『한국상고사학보』 26, 1997.
- 김규운, 「5세기 한성기 백제와 가야 관계」, 『중앙고고연구』 9, 2011.
- 김근영·정재윤, 「백제의 중방성 설치와 그 의미」, 『마한백제문화』 33, 2019.
- 김기섭, 「백제 한성기 연구동향과 과제」, 『백제문화』 33, 2004.
- \_\_\_\_\_, 「백제의 영역확장과 마한병탄」, 『백제학보』 11, 2014.
- 김낙중, 「고고학 자료로 본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의 위치」, 『백제학보』 9, 2013.
- 김병남, 「백제 웅진시대의 남방 재진출과 영역화 과정」, 『군사』 61, 2006.
- 김애경, 「6세기 백제의 가야진출과 그 성격」, 『이화사학연구』 27, 2000.
- 김영심, 「문헌자료로 본 침미다례의 위치」, 『백제학보』 9, 2013.
- \_\_\_\_\_, 「백제 중방성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마한백제문화』 33, 2019.
- 김주성, 「벽골제의 축조와 변화」, 『한국고대사탐구』 21, 2015.
- 김태식,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교섭과 정복」, 『백제연구총서』 5, 1997.

- 노중국, 「문헌기록 속의 영산강유역-4~5세기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6, 2011.
- \_\_\_\_\_, 「백제의 수리시설과 김제 벽골제」, 『백제학보』 4, 2010.
- 문안식, 「백제의 영산강유역 진출과 토착세력의 추이」, 『전남사학』 16, 2001.
- 박중균, 「금강유역 원삼국기 문화의 지역성과 ‘국’의 존재양상」, 『호서고고학』 28, 2013.
- 박찬규, 「문헌을 통해 본 마한의 시말」, 『백제학보』 3, 2010.
- \_\_\_\_\_, 「문헌자료로 본 전남지역 마한소국의 위치」, 『백제학보』 9, 2013.
- 박승욱, 「4~6세기 백제와 가야제국 『일본서기』 관련기사 검토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7, 2012.
- 서현주, 「마한 토기의 지역성과 그 의미」, 『선사와 고대』 50, 2016.
- \_\_\_\_\_, 「백제의 서남방면 진출-고고학적 측면」, 『근초고왕 때 백제영토는 어디까지였나』, 2013.
- 위가야, 「백제 온조왕대 영역확장에 대한 재검토-비류집단 복속과 ‘마한’ 국읍 병합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0, 2013.
- 유우창, 「『일본서기』 신공기의 가야 인식과 ‘임나일본부」, 『지역과 역사』 35, 2014.
- 이근우, 「웅진시대 백제의 남방경역에 대하여」, 『백제연구』 27, 1997.
- 이기동, 「백제국의 성장과 마한의 병합」, 『백제논총』 2, 1990.
- 이도하, 「곡나철산과 백제」, 『동아시아고대학』 25, 2011.
- \_\_\_\_\_, 「영산강 유역 마한제국의 추이와 백제」, 『백제문화』 49, 2013.
- \_\_\_\_\_,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왕위계승과 왕권의 성격」, 『한국사연구』 50·51, 1985.
- 이동희, 「백제의 전남 동부지역 진출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고고학보』 64, 2007.
- 이영식,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한국고대사논총』 7, 1995.
- 이인철, 「1~3세기경 백제의 군사전략과 영토확장」, 『군사』 44, 2001.
- 임기환, 「백제의 동북방면 진출-문헌적 측면」, 『근초고왕 때 백제영토는 어디까지였나』, 2013.
- 임영진, 「마한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10, 1995.
- \_\_\_\_\_, 「마한토기의 기원 연구-분구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5, 2017.
- \_\_\_\_\_, 「묘제를 통해 본 마한의 지역성과 변천과정」, 『백제학보』 3, 2010.
- 전영래, 「백제의 남방경역의 변천」, 『천관우선생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1985.
- 전종국, 「마한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 고대의 고고와 역사』, 학연문화사, 1997.
- 정동준, 「백제 근초고왕대의 마한 영역화에 대한 사료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91, 2018.
- 정재윤, 「문헌자료로 본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 『백제학보』 9, 2013.
- 주성지, 「웅진시대 백제의 섬진강 수계 진출」, 『경주사학』 22, 2003.
-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 하, 『한국학보』 3, 일지사 1976.
- 최범호, 「백제 온조왕대 강역획정 기사의 제설 검토」, 『백산학보』 87, 2010.
- \_\_\_\_\_, 「『삼국사기』 완산주 관련 기록의 재검토」 『전북사학』 48, 2016.
- 최완규, 「김제 벽골제와 백제 중방성」, 『호남고고학보』 44, 2013.
- \_\_\_\_\_, 「전북지역 마한·백제 묘제의 양상과 그 의미」, 『백제학보』 18, 2016.

- 홍성화, 「광개토왕비문을 통한 『일본서기』 신공, 응신기의 분석」, 『일본연구』 13, 2010.
- 今西龍, 「己汶伴跋考」,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1970.



## 「백제의 전북 지역 진출 과정과 추이 변화」에 관한 토론문

정 재 윤(공주대학교)

김병남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본 발표에서 마한의 소국들이 성장한 전북 지역에 4세기 초 백제가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근초고왕 남정 때 북속을 하였다고 보았다. 이때는 물론 직접적인 통치는 없었으며, 고구려와의 대결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본격적인 백제의 지배는 『日本書紀』顯宗紀에 나오는 대산성 전투(487)로 이후 지역 지배를 위한 왕호의 사여와 무진주 정벌로 확고해졌다고 보았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큰 시각에서 보면 토론자 입장과 일치하며, 대부분 공감을 한다. 다만 각론에 들어가면 다소 의문점이 있거나 보완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면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 1. 전북 지역 마한 추정국

선생님은 『三國志』 동이전에 보이는 마한 54개국을 추정하면서 전북 지역에는 적어도 10여 소국이 존재하였으리라 추정하였다. 특히 대체적으로 서부 해안 위주의 소국임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인상적이다. 토론자 또한 여기에 동의하며, 한걸음 나아가 마한 54개국이 절대적인 수치도 아니며, 이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주 지역이 마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좋은 예이며, 전남북

동부 지역의 경우는 이를 잘 보여 준다. 이는 오히려 교류에 따른 정보의 한계가  
할 수도 있다. 선생님께서 보이는 전북 지역 마한 소국의 대한 구체적 실상에 대해  
고고학적 접근과 문헌과의 접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 2. 금강 일대 마한 정치체의 통합 움직임

선생님은 3세기 후반 금강 일대 마한 정치체들이 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국가  
체제를 형성하려는 노력과 이를 토대로 독자적인 교역체계도 유지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금강 일대의 경우 목지국 세력권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재편은 가능하  
지만, 영산강 유역과 동일 선상에 놓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든다.

## 3. 神功紀 49년조 기사의 해석 문제

선생님은 4세기 북방 문물이 적극 유입되어 고구려-신라-낙동강 하류-일본 열도  
를 잇는 육상 교류 루트에 대한 통제로 가야 정벌을 시도하였으며, 백제-가야-왜로  
이어지는 교역 루트를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보았다. 그 근거로 북방계 갑주와 신라본  
기 등을 들고 있으나 근거로 삼기에는 불안한 면이 없지 않다. 특히 신라본기 초기  
기사의 경우 사료의 검증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낙랑을 대신한  
백제의 교역체계 주도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 4. 帶山城 전투에 나오는 爾林의 위치 비정

선생님은 이림을 섬진강 유역의 임실로 비정하고, 그 근거로 대일 교통로와 관련  
된 것으로 보았다. 물론 그러한 개연성도 있지만, 간과한 점은 이림이 고구려 땅이  
고, 紀生磐宿禰가 고구려와 통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를 보면 대일 교통로 못지않게  
고구려와 통하는 교통로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아울러  
임나국을 기문으로 보는 근거도 보다 명확했으면 한다.

이상 선생님의 발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의문이 나는 점을 중심으로 질의하였다. 혹시 토론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 바란다.



# 기문·대사와 그 주변

-지명 비정과 사료 분석을 중심으로-

---

이 용 현 | 국립경주박물관

I. 머리말

II. 己汝 南原說의 當否

III. 繼體紀 己汝과 帶沙에 대한 분석

IV. 梁職貢圖의 上己文과 그 주변에 대한 이해

---

## I. 머리말

己汶과 帶沙는 섬진강 주변의 주요 세력으로 6세기 전반기 백제와 가야제국 특히 반과(가라) 사이에 중요한 쟁탈의 대상이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집적되어 있다. 본고는 선행 연구 이해와 관련 자료 특히 『일본서기』 계체기 관련 기사에 이해를 중심으로 6세기 전반 이 지역과 관련 세력의 동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II. 己汶 南原說의 當否

### 1. 기문 섬진강 연안설과 낙동강 연안설에 대한 평가

기왕에 己汶은 섬진강 연안, 구체적으로는 남원을 그 중심으로 보는 설과 낙동강 연안으로 보는 설도 있다. 대체적으로는 섬진강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sup>1</sup> 찬동자의 다수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데, 필자는 섬진강설 쪽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전제로 논을 전개할 예정이다. 일단 기문의 위치에 대해 정리해 두고자 한다. 기문에 관한 자료는 『일본서기』 계체기, 「양직공도」 백제국사조, 한원에서 인용된 『괄지지』, 그리고 『신찬성씨록』에 보인다. 기존에 이 사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문에 대한 지명이 비정되어 왔다.<sup>2</sup> 지명 비정의 근거 가운데, 무엇보다도 翰苑에서 인용된 括地志의 基文河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1 기문과 대사 즉 이른바 2지, 또 이와 연동되는 상다리 등 4현에 대한 지명 비정 성과 정리는 다음을 참조. 백승욱, 「己汶·帶沙의 위치비정과 6세기 전반대 加羅國과 百濟」,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려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7, 195~202쪽; 홍성화, 「己汶, 帶沙 지명 비정에 대한 일고찰」, 『史叢』 82, 고려대학교 사학연구회, 2014, 188쪽; 「日本書紀 소위 任那4縣 할양 기사에 대한 고찰」, 『史叢』 87, 고려대학교 사학연구회, 2016; 박천수, 『가야문명사』, 진인진, 2018.

2 기문, 대사 등 관련 기사에 관한 정리는 다음을 참조. 송영근, 『5-6세기 전라 동부지역의 가야제국과 백제의 진출』, 인제대학교 석사논문, 2019.

기문과 관련되는 기문하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熊津河源出國東界，西南流，經國北百里，又西南入海。廣處三百步。

웅진하는 나라 동계에서 원류가 시작되며, 서남으로 나라 백여 리를 거치고 다시 서남으로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넓은 곳은 3백 보나 된다.

又基汶河(在國)源出其國南山，東南流入大海。\*\*(在國)은 衍文일 가능성 높음  
또 기문하는 그 나라(=백제) 남산에서 원류가 시작되며, 동남으로 흘러 큰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sup>3</sup>

백제의 강이라고 한다면 남쪽에서 큰 강은 영산강과 섬진강이 있는데, 방향으로 보아서는 섬진강 쪽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르면, 기문하는 웅진하와 함께 백제의 대표적인 양대 강이었다. 웅진하는 금강이고, 기문하는 섬진강으로 보인다. 강 이름 웅진하의 웅진이 강 연안의 지명이듯 기문하의 기문 역시 지명이다. 기문은 기문하 연안에 위치하였던 것임을 부동의 사실로 확정할 수 있다.

『삼국사기』 우록 12곡 중 : 上奇物 下奇物

翰苑에서 인용된 『括地志』 : 基汶河

『일본서기』 : 己汶

「양직공도」 : 上己文

『신찬성씨록』 : 三己文(上己文·中己文·下己文)

己基奇와 絞는 음으로 통하고, 汶文物의 음 “물(문)”과 龍의 훈 “밀”은 통한다. 이는 “큰 물” 즉 大水를 이른다. 섬진강은 기문하 즉 큰 물, 큰 강으로 백제 남쪽의 대표적 강이었다. 기문하가 섬진강 전체의 이름으로 등재된 것은, 기문이 섬진강

3 한원은·윤용구 등, 『譯註 翰苑』(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18을 참조, 일부 필자 수정.

연안에서 주요 세력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후술하지만 이 基汝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오듯 『일본서기』의 己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로 기문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계체기에 등장한다. 『일본서기』 계체기에 기문과 대사에 관한 기사는 다음 두 그룹으로 나뉘어 서술되고 있다.

a 7년조~10년조 : 계체기 앞부분의 사료

b 23년조~24년조 : 계체기 뒷부분의 사료<sup>4</sup>

百濟와 伴跋 간에 기문을 두고 경쟁하는데, 그 소유권을 왜에게 청하는 형식이다. 왜가 백제의 손을 들어 줘서 기문이 백제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왜가 이 지역은 물론 백제나 반파도 영향권 아래 두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서기의 서법이라서, 오늘날에는 그 부분을 소거하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sup>5</sup> 즉 기문을 백제가 소유하게 된 것이 팩트라고 이해한다. 여기까지는 이론이 없다. 기문과 대사를 동시에 혹은 기문을 영유하고 이어서 대사를 영유하게 되는데, 이들의 위치와 관련하여 앞 기사의 帶沙, 滯沙와 뒤 기사의 多沙는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일단 『삼국사기』 지리지에 삼국시대 古名으로 섬진강 하류 동안에 위치한 慶南河東에 韓多沙(현재 하동읍)와 小多沙(현재 하동군 악양면)란 이름이 남아 있다. 韓이란 大를 칭하는 고유어라서, 大小의 다사가 하동 지역 섬진강 연안에 있었던 셈이다.<sup>6</sup> 이를 근거로 대사를 하동으로 보는 것은 이미 정착된 듯하다. 필자도 의의가 없다. 기문과 대사는 계체기에서 세트르 등장하고, 기문하가 섬진강이며, 다사 역시 섬진강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 또 6세기 초 백제의 가야 지역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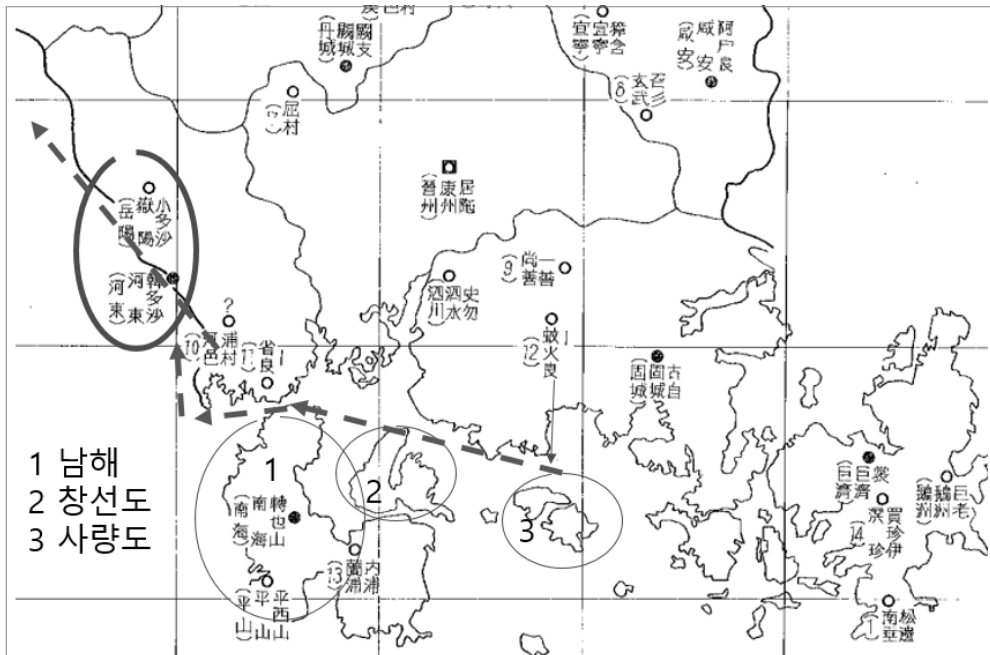
4 기문과 대사 관련 기사를 다룰 때 7, 9, 10년조만을 다루는 경우가 있다(송영근, 2019).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23년조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5 김현구 등 공저,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II)』, 일지사, 2003, 76쪽.

6 鮎貝房之進, 「繼體紀」, 『雜考(第七輯下卷)』, 1926, 55쪽.



방향으로 볼 때 낙동강 쪽보다는 섬진강 쪽을 지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대사를 하동으로 고정하면, 己汝은 역시 남원의 고명 古龍과 가장 근사하여 이에 비정할 수 있다. 일찍이 今西龍이 고통 즉 남원을 기문으로 비정하였다.<sup>7</sup> 古와 己는 음이 통하고, 汝은 그 발음이 “문”, “물” 류에 해당하는데, 龍의 훈은 “미르”, “밀”이어서 상통한다. 설득력 있는 유력한 설이다. 한편 남원의 산성 이름이 交龍山城이어서 그 옛 이름이 남아 있다.



〈그림 1〉 하동(한다사와 소다사)과 남해도

마지막으로, 낙동강 연안설에 대한 논평인데, 결론적으로 필자는 여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획기적인 새로운 자료가 출현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 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낙동강 연안을 주목하여 대사를 대구 서부인

7 今西龍, 『朝鮮古史の研究』, 1922. 曠張근은 남원의 고명인 고통과 기문의 상관성은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전제하였는데(『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위와 같은 연유로 해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장으로 남원을 기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달성 多斯로, 기문은 경북 김천의 開寧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sup>8</sup> 본시 낙동강을 주목한 설은 첫째, 卓淳 대구설, 둘째 『신찬성씨록』의 三己汝이 임나의 동북에 있다는 기록 등을 주요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런데 卓淳 대구설은 역사지리학자 아유가이가 주장한 이래 근년까지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또 음의 유사성만 갖고 보면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본고에서 상론하지는 않지만 이 역시 계체기 초기 기사에 보이는 신라의 가야 진출의 방향을 고려하면, 昌原이나 漆原처럼 낙동강 남부의 동부경남에 비정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역시 근년 그러한 추세다. 또 『신찬성씨록』은 己가 바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어 기문과 파문이 동일지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동일지라고 하더라도 기사의 성격상 윤색이 심해 이것을 주요 근거로 삼기에 주저되는 바가 크다. 아울러 任那가 그대로 加耶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 근거가 약해진다. 역시 주요 자료인 기문하를 섬진강이 아닌 남강으로 보는 것 역시 무리가 따른다. 마지막으로 계체기에는 대사를 둘러싸고 백제와 가야의 공방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낙동강 중류로 보게 되면 커다란 무리가 따른다. 즉 513년 백제가 개령을 먼저 점령하고 곧이어 달성 대사를 점령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6세기 신라와 가야의 영토를 생각할 때 거의 있기 어렵다. 이 시기 대구는 이미 신라의 영토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계체기에는 왜의 사신이 대사강 하구에 진입하지 못하고 어귀 큰 섬 일명 문모라도에 정박하였다는 기술이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의 배경을 낙동강 중류에 설정하기는 어렵다. 이 무렵 낙동강 중류는 가야와 신라 간의 공방이 이뤄져야 할 곳이고, 더군다나 중류까지 신라와 우호적이지 못했던 왜가 그것도 백제와의 교통 경유로로 낙동강 하류를 거슬러 올라가 중류까지 갔다고 상정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역시 6세기 초 백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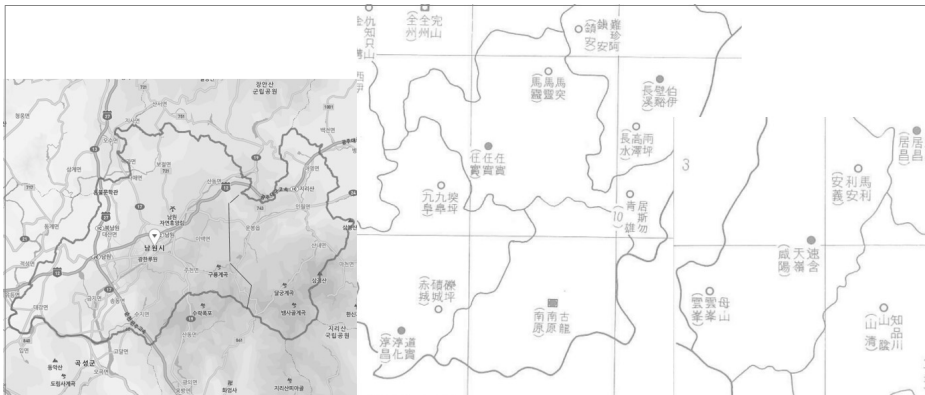
8 대표적인 논자는 천관우, 『가야사연구』, 일조각, 1991; 金鉉球, 『암나일본부의 연구』, 일조각, 2000; 홍성화, 위의 논문도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한편 鮎貝房之進은 대사는 하동 즉 섬진강으로 보지만, 기문은 개령 즉 낙동강으로 보고 있다(위 책). 백승욱도 『신찬성씨록』의 기문(파문)은 낙동강 중류, 김천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백승욱, 위의 논문, 211쪽).

가야의 공방의 무대로서는 낙동강보다는 섬진강이 적절하다.

이로 보아, 기문은 남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대사는 하동, 대사강은 섬진강의 하류로 하동 앞의 섬진강을 일컫는다고 인식해 두고자 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나오는 문모라도는 남해도로 비정해 두고자 한다. 상세는 후술한다. 기문을 이와 같은 위치관을 전제로 본고를 논하고자 한다.

## 2. 己汝 비정의 擴張 -阿英 雲峯과 남원분지 해석에 대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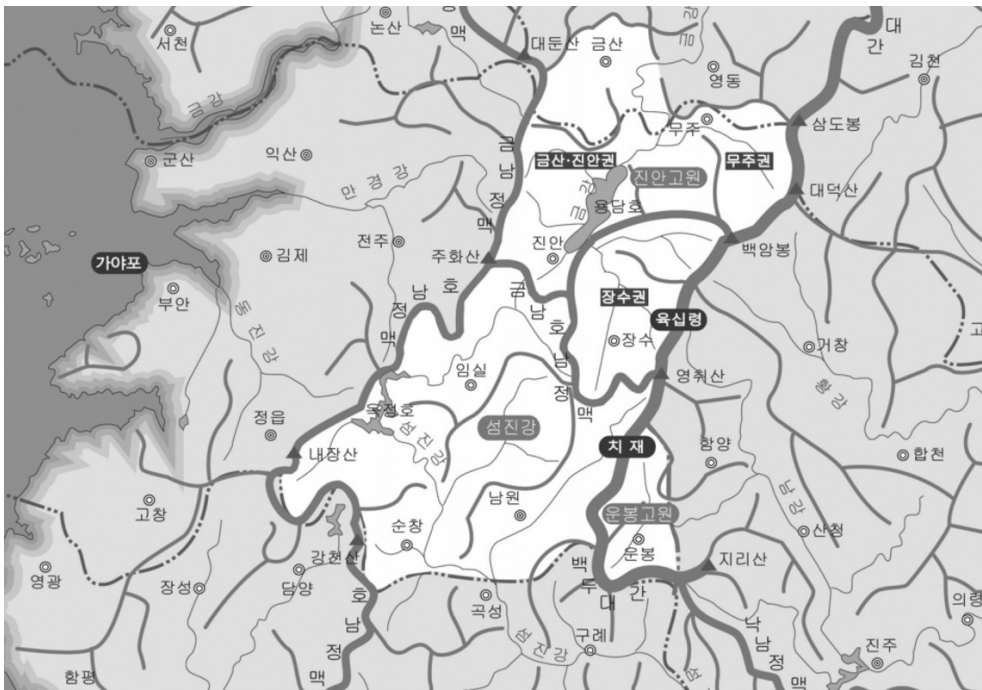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문에 대해서는 今西龍 이래 남원에 국한하여 비정하는 견해가 많다.<sup>9</sup> 그런데 기문이 남원인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범위를 확대해 보려는 견해가 있다. 앞서, 『신찬성씨록』의 기문이 上中下의 세 곳이 있었던 것, 또 우륵의 가야금 악곡 12곡 중에 上下의 奇物이 보이는 것, 「양직공도」에 上己文이 있는 것을 보고 기문은 상하 혹은 상중하의 기문이 낙동강 연안에 있었다는 설을 바탕으로 한다.



〈그림 2〉 현재의 남원군과 삼국시대의 남원군

9 今西龍, 위의 책, 1922; 全榮來, 「백제 남방 경역의 변천」, 『천관우선생 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정음문화사, 1985; 이영식, 「백제의 가야진출 과정」, 『한국고대사논총』 7, (제)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5; 이근우, 「웅진 사비기의 백제와 대가라」, 『고대 동아시아와 백제』 서경,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편, 1997; 백승중, 「6세기 전반 백제의 가야진출 과정」, 『백제연구』 3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田中俊明은 우륵이 작곡한 12곡의 곡명 가운데 上下의 奇物이 바로 己汝과 같다고 보고 이들은 각각 장수군 蟠巖面과 남원시로 비정하였다. 상하 기문의 위치를 섬진강의 지류로 남원 방면을 흐르는 猫川 연안에 비정한 것으로, 상기문은 하류 및 중류인 남원시에, 하기문은 상류인 장수군에 비정한 것이다.<sup>10</sup> 이후 김태식은 입실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즉 『신찬성씨록』에서처럼 상중하의 기문이 있었는데, 다나카와 같이 장수 반암면과 남원시를 세 개의 기문 중 둘로 상정하고, 나아가 입실읍의 동남부지역도 집어넣었다.



〈그림 3〉 섬진강 상류 수계(곽장근, 전제)

이렇듯 지역 중심의 지명 비정에서 벗어나 특정 지역을 지목하지 않고 수계를 중심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는데, 말송보화가 그 효시였으니,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섬진강 유역이라고 하였다. 참고로 제시한 지도를 보면 좀 더 구체적일 수도 있는데,

10 田中俊明,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114쪽.

남원뿐만 아니라 섬진강의 건너편인 순창 동부도 포함한 섬진강 중류의 동서 지역을 중심으로 상정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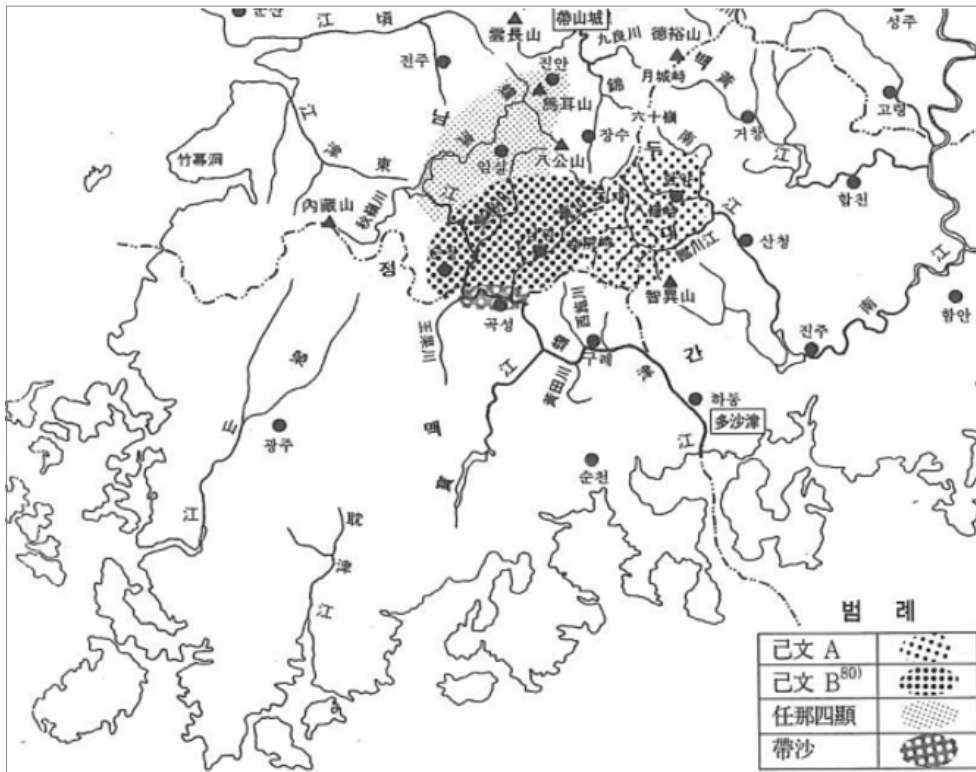


〈그림 4〉 섬진강 중상류 수계와 현재의 남원군

한편, 고고학 쪽에서는 문헌에서 음상사의 지명 비정 즉 고룡(남원)=기문설을 아예 무시하고 유적의 양상과 수계를 중심으로 한 지형 고찰을 통해 기문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운봉고원의 남원 동부를 주목한다. 먼저 광장근은 기문 논의의 범주를 섬진강 수계에서 남강 수계로 옮겼다. 원래 기문은 금강 수계 상류 즉 남원 월산리고분군과 두락리고분군 등을 중심으로 한 세력인데(소위 “기문A”)<sup>11</sup> 백제가 정정 불안에 빠지는 5세기 말엽 이후 백두대간을 넘어 서쪽으로 나아가 섬진강 수계권, 아마도 남원, 임실, 순창 등에 진출하여 영역화하는 데 성공한 지역(소위 “기문B”)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sup>12</sup>

11 광장근은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말미 도면에서는 함양도 기문A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1999, 앞의 책, 290쪽).

12 광장근, 앞의 책,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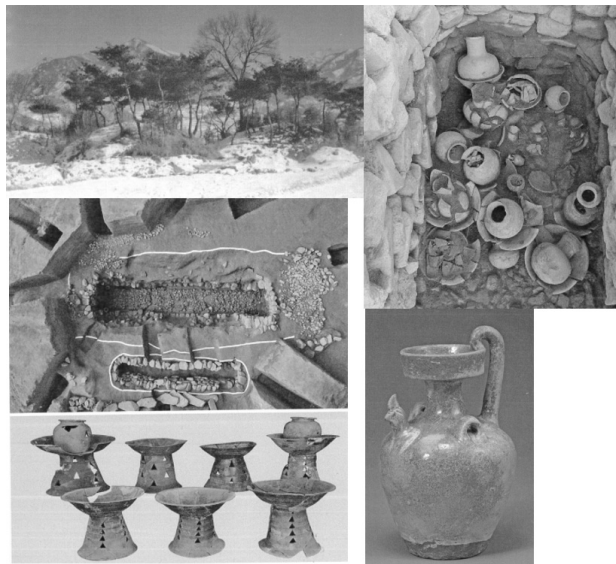
〈그림 5〉 광장군의 기문설 영역(광장군, 전제)

박천수는 구례, 곡성, 순창, 남원분지, 임실 지역을 그 후보지로 보았다. 박천수는 이들 지역에 대가야의 묘제와 토기가 집중 분포하고 있어서 대가야의 영역이었던 곳을 백제가 점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순천 운평리고분군에서 대가야식 묘제와 토기가 확인되는데, 고령에서 하동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서 대가야 양식 토기가 출토되는 점을 근거로 섬진강 수계는 대가야권역이었다고 하였다.<sup>13</sup> 김재홍은 지역으로는 상, 중, 하로 나뉘어져 있었고, 나라로는 상, 하가 있었다고 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지역은 섬진강, 금강, 남강의 상류 지역으로,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며, 상기문은 장수 지역, 중기문은 임실 지역, 하기문은 운봉고

13 박천수, 「任那四縣과 己汶·帶沙를 둘러싼 백제와 대가야」, 『加耶, 洛東江에서 榮山江으로(제12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김해시, 2006.

원으로 비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4</sup>

근년에 박천수는 새로운 견해를 밝혔다. 기문의 중심지로는 남원 “동부”의 운봉 아영 지역을 지목하였다. 기문은 남강수계의 월산리·두락리고분군이 위치하는 남원 아영 지역, 매요리고분군 등이 위치한 운봉분지, 금강 수계의 동촌리고분군 등의 장수 지역, 섬진강 수계의 임실 금성리고분군 등 남원분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530년대에 만들어진 「양직공도」에 상기문만이 보이는 점을 들어 하기문은 이미 백제에 병합되었다고 전제하고, 하기문은 섬진강 수계의 남원분지, 상기문은 아영 분지와 운봉분지에 비정하였다.<sup>15</sup>



〈그림 6〉 남원 월산리고분군과 출토유물(박천수, 전제)

14 “기문하는 하나의 하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하천이 시작하는 지점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기문은 3개 강의 상류역을 가리킬 수 있다.”고 했으며, 우륵 12곡의 상·하기물로 보아 이를 섬진강 중상류역으로만 한정하기에는 더 넓은 지역으로 보인다고 하였다(김재홍, 「전북 동부지역 가야 고분의 위세품과 그 위상」,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2018, 36·40쪽). 위와 같은 주장의 논리적 인과관계는 설득되기 어렵다.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상중하 기문이 장수, 임실, 운봉고원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 또한 확신하기 어렵다.

15 박천수, 「6기문(VI.가야 각국사의 전개)」, 『가야문명사』, 진인진, 2018, 394쪽.

이와 같이, 기문에 대해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이는 유사 발음의 지명을 가진 古龍의 남원에 국한하지 않고, 그로부터 동북쪽 같은 묘천 수계의 상류에 居斯勿(삼국시대 임실군의 일부 : 현재의 장수군 蟠巖面)까지 확장해서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sup>16</sup> 한편, 고고학 쪽의 비정에서 공통적인 것은 섬진강 수계의 남원분지에서 백두대간을 넘어 동으로 아영과 운봉분지를 주목한다는 점과 섬진강 수계의 남원분지를 무시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남원분지에서 이렇다 할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남원을 비롯한 이 근방에서 월산리고분과 두락리고분의 아영고원과 운봉고원이 그 규모나 매장 위세품의 등급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연 남원분지를 무시할 수 있는가이다. 지명 비정에 음의 유사성이 절대적은 아니어도 기본적인 맥락 속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관련 유적으로서 이렇다 할 것이 아직 없다고 해서 그것을 아예 무시하기 어렵다. 남원의 고명 古龍은 흑자의 비관과는 달리 己汝와 연관성이 짙다. 남원은 백제의 五方 중 南方의 유력한 후보지이기도 하며, 통일신라시대는 南原小京이기도 하듯, 남원은 상고시대 전통적 요지다. 운봉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尙州의 南原郡에 속하지 않고 康州의 速舍郡(지금의 함양)에 속하였다. 즉 소속 군과 소속 주를 달리하고 있었다.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남원 동부 운봉과 아영분지를,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남원 서부 남원분지와 엮어 함께 보는 것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필자는 기문이 『삼국사기』 지리지의 남원군(현재 남원군의 서부)과 임실군의 거사물(현재 장수군 번암면)을 기본으로 하여 비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 여기서 더 확장해야 한다면, 섬진강 수계 상에서 남원을 기준으로 위나 아래가 그 권역이 될 수 있다. 그보다 상류로는 순창을 거쳐 임실이고, 하류로는 구례가 있다.



### Ⅲ. 繼體紀 己汶과 帶沙에 대한 분석

기문과 대사에 관련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계체기 7~9년과 23~24년 기사에 등장한다.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문과 대사 그 주변을 탐색 정리할 수 있다.

□繼體天皇七年（癸巳五一三）◎七年夏六月。百濟遣姐彌文貴將軍。洲利卽爾將軍。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委意斯移麻岐彌。〉貢五經博士段楊爾。別奏云。伴跋國略奪臣國己汶之地。伏請。天恩判還本屬。

□繼體天皇七年（癸巳五一三）◎冬十一月辛亥朔乙卯。於朝廷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斯羅汶得至。安羅辛已奚及賁巴委佐。伴跋既殿奚及竹汶至等。奉宣恩勅。以己汶帶沙賜百濟國。

□繼體天皇七年（癸巳五一三）◎是月。伴跋國遣楫戢支。獻珍寶乞己汶之地。而終不賜國。

□繼體天皇八年（甲午五一四）◎三月。伴跋築城於子吞帶沙。而連滿奚。置烽候邸閣。以備日本。得築城於爾列比。麻須比。而緬麻且奚·推封。聚士卒兵器以逼新羅。駟略子女剝掠村邑。凶勢所加。罕有遺類。夫暴虐奢侈。惱害侵凌。誅殺尤多。不可詳載。

□繼體天皇九年（乙未五一五）◎九年春二月甲戌朔丁丑。百濟使者文貴將軍等請罷。仍勅副物部連〈闕名。〉遣罷歸之。〈百濟本記云。物部至至連。〉

□繼體天皇九年（乙未五一五）◎是月。到于沙都鳴。傳聞。伴跋人懷恨御毒。恃強縱虐。故物部連率舟師五百。直詣帶沙江。文貴將軍自新羅去。

□繼體天皇九年（乙未五一五）◎夏四月。物部連於帶沙江停住六日。伴跋興師往伐。逼脫衣裳劫掠所賚。盡燒帷幕。物部連等怖畏逃遁。僅存身命泊汶慕羅。〈汶慕羅。鳴名也。〉

□繼體天皇十年（丙申五一六）◎秋九月。百濟遺州利卽次將軍副物部連來謝賜己汶之地。別貢五經博士漢高安茂請代博士段楊爾。依請代之。

□繼体天皇二三年（己酉五二九）◎廿三年春三月。百濟王謂下哆唎國守穗積押山臣曰。夫朝貢使者恒避鳴曲〈謂海中鳴曲碕岸也。俗云美佐祁。〉每苦風波。因茲濕所賚。全壤無色。請以加羅多沙津爲臣朝貢津路。是以。押山臣爲請聞奏。

□繼体天皇二三年（己酉五二九）◎是月。遣物部伊勢連父根。吉士老等。以津賜百濟王。於是。加羅王謂勅使云。此津從置官家以來。爲臣朝貢津涉。安得輒改賜隣國。違元所封限地。勅使父根等因斯難以面賜。却還大鳴。別遣錄史果賜扶余。由是加羅結儻新羅。生怨日本。加羅王娶新羅王女遂有兒息。新羅初送女時。并遣百人。爲女從。受而散置諸懸。令着新羅衣冠。阿利斯等嗔其變服。遣使徵還。新羅大羞。翻欲還女曰。前承汝聘吾便許婚。今既若斯。請還王女。加羅已富利知伽〈未詳。〉報云。配合夫婦。安得更離。亦有息兒。棄之何往。遂於所經拔刀伽。古跋。布那牟羅三城。亦拔北境五城。

## 1. 계체 7, 8, 9년조 기사와 帶沙 기재의 돌출성

계체 7년은 513년으로 백제 무령왕(사마왕) 13년, 신라 지증왕 14년에 해당한다. 계체 7, 9, 10년조는 반파와 백제가 기문과 대사를 두고 쟁탈하는 일련의 기사다. 7년 6월조에서는 백제가 왜에게 기문 땅을 반파에게 빼앗겼으니 돌려달라는 내용이 고, 7년 11월조는 왜가 기문과 대사를 백제에게 주었다는 내용이다. 7년 11월 시월조는 반파가 왜에 사신을 보내서 기문 땅을 요청했지만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어 같은 8년 3월조에 반파가 자탄과 대사에 성을 쌓아 만혜와 이어서 봉수와 저각 즉 건물을 설치해 일본 즉 왜에 대비하고, 또 이열비와 마수비에 성을 쌓아 마차혜와 추봉에 걸치게 했다고 하였다. 다만 왜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 아니면 모종의 관여가 있었던 것인가는 고민해 볼 문제다. 완전 윤색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지만, 군사 원조라는가로 간접적 관여가 있었다거나 등이다. 7년조의 백제 주장에 따르면 원래 백제의 땅이던 것을 기문이 빼앗았다고 한다. 백제의 요청에 의해 9년조에서 왜는 이 땅을 백제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백제가 원래 자신의 땅이었는데 반파가 빼앗았다고 하는 백제의 주장이 사실의 반영인지, 영유를 위한

명분으로서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인지도 문제다. 위에 따라 (1)백제 땅 → (2)반과 땅 → (3)백제 땅이거나 (2)반과 땅 → (3)백제 땅이 된다.

7년 11월조는 왜가 백제와 사라(즉 신라), 안라와 반과의 사신들을 불러 모아 놓고, 기문과 대사를 백제에게 주는 조칙을 내렸다는 내용이다.<sup>17</sup>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보인다. 7년 7월조나 7년 11월 시월조에서 백제나 반과가 요청한 땅은 각각 기문이었는데, 7년 11월조에서 왜가 주는 땅은 기문과 대사다. 백제도 반과도 요청하지 않은 땅 대사를 왜가 백제에게 주었다는 점이다. 이 내용을 보면 그 이후 대사는 백제의 땅이어야 한다. 그 다음 기사인 9년 4월조에서 대사장은 긴장이 가득했다. 백제와 그의 대사 영유를 거둔, 혹은 주도한 왜는 대사장에서 반과의 공격을 받는다. 왜에서 백제로 가던 사절 중 물부련은 대사장에서 반과의 공격을 받고 도망하였다가 문모라에서 목숨을 부지하였고, 왜로 갔다 백제로 돌아가던 저미문귀 장군은 아예 대사장을 경유하지 못하고 신라를 경유하여 백제로 귀국하였다. 대사장이란 필시 대사의 장, 즉 섬진강 중 대사 앞의 강일 텐데, 대사는 영유했어도 강은 반과의 통제하에 있었던 것이 된다. 이 점에서 백제의 대사 영유는 약간 의문이 남기도 한다.

23년 3월조에서는 다사진을 백제가 왜에게 요청하는데, 이에 왜는 백제에게 다사진을 준다고 되어 있다. 계체기 7, 8, 9년의 기사와 23, 24년 기사는 동일 사실을 전하는 것이라는 지적들이 지배적이다.<sup>18</sup> 그러나 帶沙 기재의 돌출성, 즉 앞 기사에는 대사가 衍文처럼 기문에 문혀 기재되어 있고, 뒤 기사에서는 기문은 전혀 보이지 않고 대사만 보이는 점으로 볼 때, 그와 같이 간단히 정리하기 어렵다. 계체 23년을

---

17 이 기사는 실체를 단정하기 어려운데, 편자가 갖고 있던 인명 자료를 가지고 4국 사신이 온 것처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실제 다른 명분으로 왜에 온 것을 토지사여 관련으로 윤색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4국의 사신이 왜에서가 아니라 안라에서 모였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위가야, 「백제의 기문·대사 진출과정에 대한 재검토」, 『사림』 58, 수선사학회).

18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下卷)』, 2002, 221쪽.

529년으로, 백제 성왕 7년, 신라 법흥왕 11년이다. 滯沙, 帶沙와 多沙는 동일 지명이다. 대사(다사), 대사강, 다사진은 江이나 津이 붙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 지역으로 봐도 무리 없다.<sup>19</sup>

여기서 서기의 자체 모순이 생긴다. 이미 7년 11월에 왜가 백제에 하사한 대사를, 23년 3월에 다시 하사한 것이 된다. 또 바로 이듬해 8년 3월조에는 백제가 차지했다는 대사에 반과(가라)가 축성을 하고 있어 서로 모순된다. 8년 3월조의 반과의 대사 축성을 중시하면, 백제의 대사 영유는 그 이후가 되어야 한다. 다시 7년 6월과 7년 11월 시월조를 보면, 백제나 반과나 왜에게 영유를 주장한 것은 기문뿐이었고, 대사는 들어 있지 않다. 이 점에서 계체기 앞 기사에서 帶沙의 기재는 돌출적이다. 물부지지련과 물부이세련 부근은 이름이 다르다.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근거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기 찬자 자신이 양 기사를 별개의 사건, 별개의 인물로 다뤘기 때문에, 이들은 독립된 다른 계통의 사료에 의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sup>20</sup>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7년 11월조에서 왜가 백제에 기문과 대사의 하사를 선언한 기사는 문제가 많다. 이 기사에서 대사를 소거하면, 전체적으로는 모순이 사라진다. 즉 7, 8, 9년의 기사에서 백제는 기문만을 영유한 것이고, 대사는 아직 영유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견 맞을 것처럼 보인다. 아울러 후술하겠지만, 8년조의 축성 기사 역시 독립적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을 토대로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13년(계체 7년) 백제의 기문 영유

514년(계체 8년) 반과, 대사 등에 축성

515년(계체 9년) 물부련 대사강에 이르렀다가 문모라도로 퇴각, 저미문귀 장군이 신라를 경유 귀국

19 三品彰英, 위의 책, 222쪽.

20 三品彰英, 위의 책, 221쪽.

즉, 백제는 513년에 기문 즉 남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영유하게 되었다.<sup>21</sup> 이로써 백제는 섬진강 상류를 장악하게 되었고, 반과 즉 대가야의 배후 즉 함양, 거창 방면을 위협하게 되었다. 514년 가야의 맹주였던 반과(가라, 대가야)는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사 등에 축성을 하여 대사강 즉 섬진강 하구를 사수하려 하였다. 515년 왜의 견백제 사신이 대사강 즉 섬진강 하구에 도착하였으나 반과의 반발에 밀려 문모라도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왜에 갔던 백제 사신 장군 저미문귀는 대사강 즉 섬진강 하류를 경유할 수 없어, 액면 동맹관계에 있었던 신라를 통해서 백제로 귀국하게 되었다. 즉 이 무렵에 대사는 백제가 아직 영유하지 못했고, 반과의 장악 아래 있었다.

2. 기제 7, 8, 9년 기사와 23, 24년 기사의 重複性과 汶慕羅島의 위치  
 한편 다음과 같은 문제도 있는데, 7, 8년조와 23년조에는 너무도 同工이 많다.<sup>22</sup> 첫째, 백제가 땅을 요청하고 왜는 이에 응해 그 땅을 하사한다는 것, 둘째, 백제가 왜에 요청하기 전에 그 땅은 반과(가라)의 것이었다는 점, 셋째, 왜에서 백제로 간 사신으로서 물부씨가 등장하는 점과 그가 섬으로 물러나는 점, 넷째, 반과 혹은 가라가 일본 즉 왜를 대비하거나 원한을 사게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스토리의 구조가 닮아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일의 반복이라고 보기보다는, 같은 내용의 다른 기술, 즉 동일 내용의 중복 기사라고 볼 여지가 생긴다.

전체 구조는 같지만 서로 다른 부분도 있다. 첫째, 7, 8, 9년조는 백제가 사신을 왜국에 파견해서 땅을 요청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23년조는 백제가 국내에 있는

21 田中俊明은 백제의 기문 영유를 516년으로 하였다(田中俊明, 앞의 책, 142쪽).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7년조 즉 513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22 양자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지적되었으며 같은 기사의 重出이라고 주장되었다(三品彰英, 앞의 책, 226쪽). 이는 다수의 동의를 얻고 있다. 단 동일 사건이 아닌 것으로 봐도 좋다는 의견도 있다(平野邦雄, 『大化改新前代過程の研究』, 226쪽; 田中俊明, 앞의 책).

왜계 인물을 통해 땅을 요구한다. 둘째, 왜가 땅을 백제에게 주는 형식이 7, 8, 9년조는 왜 조정에서 백제, 신라, 안라와 반파의 사신을 모은 자리에서 조칙을 내리는 모습이고, 23년조는 왜가 사신을 백제에 보내서 내려 주는 모습이다. 셋째, 땅이 백제에게 사여된 이후에 반파(가라)의 대응 모습이 7, 8, 9년조는 반파가 왜에 사신을 보내 보물을 바치며 호소하는데, 23년조는 가라왕이 가야 방면에 온 왜의 사신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넷째, 국명과 지명 표기에 차이가 보이는데 7, 8, 9년조는 반파, 문모라(도), 백제, 물부련(물부지지련), 대사·대사강으로 되어 있는 것이, 23년조에서는 가라, 대도, 백제 외에 부여, 물부이세련 부근, 다사진으로 되어 있다. 다섯째, 7, 8, 9년조는 반파가 자탄과 대사, 또 이열비에서 추봉까지 축성하여 왜와 신라에 대비하고, 신라를 꺾박하는 기사가 이어진다. 23년조는 이와 달리 가라가 신라와 협력하여 일본, 즉 왜를 원망하였다고 나온다. 이어 가라와 신라 사이에 성을 놓고 무력 충돌이 서술된다.

이러한 요소에서 분명 중복적 부분이 있다. 중복의 시점에서 볼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문모라도의 위치 비정이다. 9년 2월 시월조에는 帶沙江이 보이고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帶沙 즉 하동 앞의 섬진강을 이르는 것일 게다. 이처럼 당시 섬진강은 좁게는 지류 혹은 지역마다 이름이 있었던 것이 된다. 기문하는 협의로는 기문 앞의 섬진강을 일컬었고 넓게는 한때 섬진강을 대변했었다고 볼 수 있다. 9년 2월조에 왜에게 백제로 향한 물부련이 대사강에서 정박했다는 것으로 볼 때, 대사강이란 동서로 광양과 하동을 끼고 있는 섬진강 하류역을 일컫는 듯하고, 이들이 머문 곳은 河邑(浦村) 같은 섬진강 하류 입구 항구였을 것이다. 汶慕羅島는 섬진강 하구 쪽의 어떤 섬일 텐데, 남해나 창선도, 사랑도 등이 모두 후보가 될 수 있다. 남해에는 삼국시대에 轉也山, 平西山과 內浦와 같은 이름이 남아 있다. 鮎貝는 창선도에 水山里라는 지명에 착안하여 창선도로 비정하였다.<sup>23</sup>

23 鮎貝房之進, 앞의 책, 487~488쪽.

아울러 삼품 역시 창선도에 동조하는 듯하다.<sup>24</sup> 한편 고성군 영현면의 삼국시대 명칭이 蚊火良여서 거기에 가까운 사량도를 蚊火良島로 불 여지도 있다. 삼품이 지적인 바와 같이 水村이란 배를 대는 선착장에 많은 지명이어서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sup>25</sup> 한편 중복 기사일 가능성이 높은 23년조에서는 “大島”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일반명사로 보인다. 삼품은 “大島”는 웅략기 7년조에도 보이는 점, 즉 백제가 제공하는 今來才伎를 “大島”에 모아 수개월 머물렀다는 기사에 주목하고, 이것을 대도가 창선도임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sup>26</sup>

그런데 섬진강 하류에서 일본으로 연결되는 섬 가운데, 환연해서 남해도, 창선도와 사량도 가운데 큰 섬이란 표현에 어울리는 것은 남해도다. 섬진강 하구에서 일본으로 연결되는 해로를 고려할 때, 주목되는 곳은 남해 內浦다. 內浦란 南海郡 三東面 蘭陰里의 삼국시대의 지명이므로, 이곳이 그 무렵 포구로서 기능하였음을 알려 준다. 이 점에서 문모라도 즉 대도를 남해도로 비정해 둔다. 웅략기 7년조 기사나 계체기의 기사에서 보여 주듯, 문모라도 즉 대도는 백제가 왜로 갈 때나, 왜가 백제로 갈 때 중간 기착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 점에서 신 朝貢路라는 표현은 적절하다. 교정하면 朝貢路는 외교언사거나 찬자가 손을 본 용어일 수 있는데, 바로 백제가 왜에 교통하는 해상통로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남해도는 섬진강 하류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가장 큰 섬이고, 해로상에 적절한 곳에 위치하였다.

### 3. 계체기 기사의 重複性和 多重사건의 混在

이론적으로 가라 다사건의 백제 영유는 계체 7년 즉 513년이거나 혹은 그로부터 522년 사이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관찰한 7, 8, 9년의 스토리와 23년의

24 삼품, 앞의 책, 222쪽.

25 삼품, 앞의 책, 222쪽.

26 삼품, 앞의 책, 222쪽.

스토리 구성에서 물부련의 등장, 섬으로의 퇴각 같은 요소가 공동되는 것으로 보아, 양지는 같은 사건의 다른 기술 즉 다른 계통의 사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듯하다. 고로, 백제의 기문과 대사(다사진) 영유는 513년으로 고정할 수 있다.

토지의 영유가 백제의 것이 되고 난 후, 반과 즉 가라의 군사적 대비에 관해서, 8년조에서는 자탄, 대사의 축성, 만해와의 연결, 이열비, 마수비에 축성하여 마차혜, 추봉에 연결하였다고 했다. 이어 반과가 신라를 난폭하게 공격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이 부분 해당 지명은 기존설 가운데 자타는 거창, 이열비는 의령, 마수비는 삼가가 적합할 듯하다.<sup>27</sup> 마차혜에 대해서는 지명 비정이 어렵다. 추봉은 밀양으로 비정되고 있으나, 낙동강 북안으로 보기는 무리고 남안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곳을 비정하기는 어렵다. 확인되는 지명만으로 보면, 신라 방면으로는 반과 즉 고령 대가야 후방의 거창 - 하동을 잇는 방어선과, 의령 - 삼가를 잇는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다. 기사에서는 일본 즉 왜를 대비했다고 하는데 함양 - 하동 축성은 반과의 서쪽 배후, 즉 기문 쪽을 대응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28</sup> 그만큼 백제의 기문 영유는 반과 등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령 - 삼가 - 낙동강 남부 동부경남의 라인이라면, 반과에게는 남부 후방 방어선이고 안라 등에게는 대신라 방어선이 된다.<sup>29</sup> 이와 대응되는 기사를 굳이 23, 24년조에서 찾는다면, 후술할 23년조 기사의 [마]에 해당하는데, 양 기사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양 기사군에서 독립적 부분 즉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해 둔다. 따라서 기년을 그대로 적용하여 8년조 즉 514년에 둘 수 있다.

앞서 서술한 계통기 앞 기사와 뒤 기사에서 상호 용어의 차이가 대변하듯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사료 계통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sup>30</sup> 7, 8, 9년조와

27 지명 비정의 제설에 대한 정리는 김태식, 『가야연맹사』, 1993, 128~129쪽.

28 김태식은 이것을 백제에 대한 자기 세력권을 공고히 한 것이라고 하였다(위의 책, 128쪽).

29 김태식은 이를 신라와의 대립이라고 해석하였다(위의 책, 130쪽).

30 三品은 이것을 앞의 기사는 백제 계통의 기사, 뒤의 것은 일본 쪽 전승 기사로 간주하였다(三品彰



23년조는 같은 내용에 대한 다른 계통의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앞의 계통은 백제의 기문 영유를 중심으로, 뒤의 계통은 대사 즉 다사진 영유를 중심으로 기술된 것이다. 여기에 다른 자료들이 착종된 것인데, 7, 8, 9년조는 백제가 왜에 사신을 보낸 기사가, 23년조는 왜가 백제 혹은 가야에 사신을 보낸 기사가 부가된 것으로 보인다. 위 다섯째 차이 부분은 약간 상세히 논할 필요가 있다. 23년조에서는 가라 즉 반파가 신라와 결합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이어 가라와 신라 간의 왕실 혼인에서 3성과 북경 5성의 점령이 기술되었다. 23년 3월 시월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A](왜가 백제에 토지 하사 + 가라왕의 호소 + 왜 사신의 섬으로 퇴각) + [B](가라와 신라 결합 + 가라왕과 신라 왕녀의 혼인, 출산 + 신라의 여종 파견과 변복에 따른 가라의 송환 요청 + 이에 반발하여 신라가 왕녀 송환 요구와 가라의 거부 + 도가 등 3성과 북경 5성의 탈취)

크게는 왜, 가라, 백제 사이에 토지의 수수 기사와 가라와 신라의 결합 기사로 나눠 볼 수 있다. 가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왜가 다사진을 백제에 하사하였기 때문에 가라가 일본에 원한을 품고 신라와 결합하였고, 이에 가라왕이 신라 왕녀와 혼인하였다는 전개다. 즉 서기 편자는 가라와 신라의 결합 기사를 백제의 가라 다사진 영유 기사와 결합시킨 것이다.<sup>31</sup> 일본에 원한을 가졌다는 표현은 기사 내용에서 이질적이다. 가라의 영토를 왜가 백제에 하사한 것으로 설정한 과정에서 부가된 어구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러한 요소를 소거하고 기사를 분리해서 보게 되면, 계체 23년조에 편제되어야 마땅한 것은 [B]쪽이 아닌가 한다. 실제 『삼국사기』에

英, 앞의 책).

31 三品은 별개 사료를 편찬자가 “由是加羅結儻新羅。生怨日本。”는 어구를 부가하여 연결했다고 하였다(三品, 앞의 책, 36쪽).

가라와 신라의 왕실 혼인은 법흥왕 9년조 즉 522년에 편제되어 있다. 계체 23년은 529년으로 그로부터 7년 뒤다. 23년조 기사는 가라와 신라 간의 혼인, 군사적 갈등 등 여러 사건이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품이 지적한 것과 같이 다년에 걸쳐 전개된 사건을 집적시킨 것이다.<sup>32</sup>

(가)혼인 : 가라왕과 신라 왕녀의 결혼

(나)출산 : 가라왕과 신라 왕녀 사이에 아이 생김

(다)왕녀의 종인 파견 : 신라 왕녀와 함께 여종 백 인이 따라와 여러 현에 분산 배치됨

(라)의복 갈등 : 여종들이 신라 의관을 입고 있다가 변복하여 가야가 항의, 신라가 반발

(마)무력 충돌 : 왕녀 송환 요청에 가야가 반발하면서, 도가 등 3성과 북경 5성 탈취

(가) 즉 혼인은 522년으로 상정할 수 있고, (마)를 23년 즉 529년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가 이전의 사건이라는 것은 “初”란 용어에서도 간취된다. 그러므로 (다) 역시 529년보다 이전의 사건이다. (가) 혼인은 계체 23년보다 이전의 일이고, 『삼국사기』를 근거로 하면 7년 전인 522년의 일이다. 따라서 가라와 신라의 결합 즉 가라와 신라 왕실 혼인의 배경이 된 가라 다사진의 백제 하사 즉 [A]기사는 522년으로 환산하면 계체 16년보다 그 이전이 되어야 한다.<sup>33</sup>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대사에 반과가 축성한 것이 516년이었으므로 백제의 대사 영유는 그보다 더 뒤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2 삼품, 앞의 책, 36쪽.

33 구체적인 설명을 결여하였지만, 田中俊明가 연표와 지도에서 각각 백제가 대사에 진출한 기년을 “516년, 그 후”, “~522”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田中俊明, 위의 책, 142, 236쪽).

516년보다 이후 ~ 522년보다 이전, 백제의 대사 영유

(517 ~ 521)

즉 백제는 513년에 기문 즉 남원 지역을 손에 넣어 섬진강 상류를 장악한 이래,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뒤에 대사 즉 하동을 영유하여, 섬진강 하류까지 완전히 영유하게 된 것이다.

#### IV. 梁職貢圖의 上己文과 그 주변에 대한 이해

한편 남경본 「양직공도」 백제국사조에 기문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 주목된다. 백제의 “旁小國… 等附之”의 “…” 부분에 다음의 3그룹 9국이 열거되었다.

(a) 叛波, 卓, 多羅, 前羅, (b) 斯羅, (c) 止迷, 麻連, 上己文, 下枕羅

이에 관해서는 필자의 前稿가 있다. 개괄적인 부분은 이를 바탕으로 서술하고자 한다.<sup>34</sup> 附庸國이라 함은 예기에서는 천자에 직속되지 않고 대국에 부속된 小國을 일컫는다. 소국은 大國, 次國을 잇는 최하위 등급의 나라였다. 실제 양서 제이전의 滑國使조에는 3개의 방소국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들은 활국을 따라 梁에 입조하였다.<sup>35</sup> 백제의 경우 (b) 斯羅 즉 新羅가 梁에 동반 입조하였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아 백제의 부용국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재 순서로 볼 때 (a)가 낙동강 유역의 가야제국이며, (c)는 섬진강 혹은 그 이서 전라도의 제국들로 이들은 南韓 혹은 下韓으

34 李鎔賢, 「梁職貢圖百濟國使條の旁小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7, 1999. 이들 방소국의 위치 비정은 179~180쪽.

35 李鎔賢, 위 논문, 184쪽.

로 개념 되던 곳들이다.<sup>36</sup> 이들이 동반 입조한 형적은 찾을 수 없다. 叛波는 앞서 계체기 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와 기문과 대사 등을 두고 쟁패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를 백제의 부용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521년 무렵까지의 사정을 기록한 것인데, 계체기의 기록을 따르면 이 무렵은 백제가 기문을 영유하고 그에 대해 반파가 대사 등에 축성하여 서로 대치하는 긴장관계였다. 곧이어 혹은 이미 대사도 백제의 영유가 될, 혹은 된 상태였을 것이다. 여기에 己文이 보인다. 실은 己文으로 되어 있지만 己文의 誤寫로 보고 있다. 상기문과 하침라의 상하는 서로 호응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즉 상중하의 기문 중에 상기문, 또 상하 침라 중 하침라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침라가 탐라를 가리키는 점, 또 상하가 국어에서 위아래를 일컫는 점에서 지리적으로 “위쪽(뒤, 북쪽)의 기문, 그 아래(남쪽, 앞)쪽의 탐라”라는 표기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sup>37</sup> 『일본서기』 백제계 사료에 탐라는 南蠻, 南海가 관칭되는 경우가 많아 그와도 호응된다.<sup>38</sup> 이렇게 보면 「양직공도」의 상기문은 계체기의 기문으로 대치할 수 있다. 521년 단계에서 기문은 이미 백제의 영유가 되었으므로 속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백제의 영유가 되긴 하였지만 지방행정단위로 편제되지 않고 속국의 일정한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39</sup> 하침라 즉 하탐라의 경우는 耽羅 즉 제주인데, 계체 2년조에

36 李鎔賢, 위 논문, 187쪽.

37 박천수는 「양직공도」의 상기문을 기문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하 기문으로 분리된 상기문으로 이해한 위에, 521년 단계에 『일본서기』의 “기문”은 이미 백제의 영유가 되었는데 그것은 하기문이고, 직공도의 상기문은 그 “기문”과는 달리 생존하고 있던 세력으로, 월산리와 두락리고분군 등 아영운봉분지의 세력인 상기문이라고 하였다(박천수, 앞의 논문). 확실히 우륵 12곡에는 상기문(상기물)과 하기문(하기물)이 나뉘어져 있는데, 계체기에서는 기문으로 통칭되고 있어서 기문 전체라는 인상이다. 대사(다사) 역시 지리지에는 한다사(대다사)와 소다사가 있는데, 계체기에서는 대사로 통칭되고 있다. 이 점에서 계체기의 기문과 대사는 일부 세력이 아니라 각국 혹은 각 세력을 全稱하는 것으로 보인다.

38 李鎔賢, 위 논문, 187쪽.

39 吳吉煥, 「百濟熊津時代の領域支配體制旁似について」, 『朝鮮學報』 189, 2003, 49쪽. 또는 속국의 수를 불리기 위해 최근 이미 영역화된 지역을 속국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

백제와 처음으로 교통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양직공도」에서 방소국으로 기재된 지명 혹은 국명이 거의 예외 없이 계체기에 보이는 점이다. (a)의 가야제국은 4국과 (b)의 신라, 거기에 (c) 4개국 중에 기문과 탐라도 그에 해당된다. 거기에 用字 역시 흡사하다. 叛波와 伴波(각각 「양직공도」와 계체기 : 이하 생략). [下]枕羅와 耽羅, 前羅와 安羅, [上]己文과 己汶, 卓과 卓淳과 같이 흡사한 것, 斯羅(「양직공도」, 계체기 같음 : 이하 생략), 多羅와 같이 아예 일치하는 것도 있다. 특히 叛波와 斯羅는 백제의 否定, 蔑視적인 용어로<sup>40</sup> 사용된 시기 역시 「양직공도」나 계체기 백제계 사료는 유사하다. 이 점에서 나머지 미상 혹은 불확실한 두 소국 역시 계체기에서 찾아볼직하다.

먼저 麻連은 前稿에서 牟婁에 링크하였는데, 이 역시 계체기에 등장한다. 이는 특히 이른바 4縣에 해당한다. 한 걸음 나아가 止迷에 대해 재론해 둔다. 전고에서는 지미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지리지 중 기문과 대사의 이서 지역 즉 武州조에서 찾았다. 본고에서는 이 역시 계체기에서 찾아보기로 하고, 이를 다리 哆唎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 한다.

다리는 4현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다. 旁小國 역시 지역에서 비중이 큰 나라들이었고, 지미는 (c) 그룹의 필두다. 발음으로도 止와 哆는 유사하다. 『일본서기』 통석에서도 哆는 그 음을 ta로 기록하고 있다. 또 중국 중고음에서는 각각 [t-]Aj?와 \*tə? 다. 직공도의 지미(발음 터미)가 『일본서기』의 다리(타리)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哆唎 \* [t-]Aj?/, /\* [t-]aj? lī lei1 다(차?)리, 다(차?)레이

止迷 \*tə? \*m<sup>s</sup>ij 더미 ?

40 李鎔賢, 위 논문, 183~184, 187쪽.

4현은 계체기 6년(512년)에 哆唎國守가 보이고 上哆唎, 下哆唎, 娑陀와 牟婁가 보인다. 이해에 이 지역이 백제의 영유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4현 중 다리에 대해서는 말송보화의 영산강 서안설,<sup>41</sup> 전영래의 여수반도설,<sup>42</sup> 田中俊明의 상다리 영암, 하다리 광주설,<sup>43</sup> 이근우의 전남장흥설,<sup>44</sup> 백승충의 하동설,<sup>45</sup> 박천수의 여수 설<sup>46</sup> 등이 제시된 바 있다.<sup>47</sup> 제설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나 백제의 해당 시기 실질적 영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섬진강의 2지에서 가까운 곳 이틀테면, 마로(광양)나 동음(강진) 등이 후보가 될 수 있겠다. 상징적인 의미라면 넓게 잡을 수 있을 듯하다.

---

41 末松保和, 앞의 책.

42 전영래, 앞의 논문.

43 田中俊明, 앞의 책.

44 이근우, 앞의 논문.

45 백승충, 앞의 논문.

46 박천수, 앞의 논문.

47 4현의 기존설 정리는 백승욱, 위의 논문.

## 「己汶·帶沙와 그 주변-지명 비정과 사료 분석을 중심으로-」에 관한 토론문

윤 용 구(인천도시공사)

발표 잘 들었습니다. 論題에서 보는 대로 이용현 선생님의 발표는 ‘己汶’의 위치는 섬진강 연안설과 낙동강연안설 그리고 최근의 남강연안설 가운데 섬진강 연안설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섬진강 상류의 기문과 하류의 ‘帶沙’와 관련한 『일본서기』 계체기, 『양직공도』 백제국기의 旁小國 기사를 검토하면서 백제는 513년(남원 지역) 기문을 손에 넣어 섬진강 상류를 장악한 이래, 짧게는 4년(516) 길게는 8년(522) 뒤에 섬진강 하류의 대사(하동)까지 완전히 영유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대체의 논지에 이견은 없으나, 몇 가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것으로 토론을 같음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문의 위치를 낙동강 방면으로 보는 주된 근거는 『신찬성씨록』의 기록입니다. 任那의 동북에 기문이 있다는 점에서 ‘임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찬성씨록』 내에서 임나의 用字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체기 전반부(7~9)의 伴跋와 계체기 후반부(加羅)를 동일체(대가야)로 보고 논지를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발표자가 동조한 三品彰莢의 견해대로 반파와 가라가 표기가 다른 이유를 사려 계통이 다른 데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반과와 가라로 표기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직공도』 백제국기의 旁小國 가운데 斯羅와 상기문, 하침라 사이의 ‘止迷’와 ‘麻連’과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어디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과 침라를 남원과 제주 혹은 남원과 강진으로 보는 일반적 견해로 본다면 그에 앞서 기재된 ‘止迷’와 ‘麻連’은 斯羅와의 사이로 볼 수 있는지요?

넷째, 『양직공도』 백제국기의 旁小國에 기재된 9개국을 附庸國으로 銘記하였지만, 사라와 반과를 부용국으로 볼 수 없다면 나머지 정치체는 어떤 존재양태로 보아야 하는지요?



## 반과국 위치 재론

---

백 승 옥 | 국립해양박물관

- I. 머리말
  - II. 연구사
  - III. 사료의 검토와 위치 비정
  - IV. 맺음말
-

## I. 머리말

伴跋國은 加耶의 한 나라이다. 『日本書紀』 繼體紀 7, 8, 9년조에 伴跋國 또는 伴跋, 伴跋人의 형태로 6번 보이고 있다. 일본 음으로는 하헤노쿠니(伴跋國; はへのくに) 또는 하헤(伴跋; はへ)로 읽는다. 이외의 기록에는 『梁職貢圖』에 叛波라고 보이는데, 伴跋와 동일한 나라로 보아 문제없을 것이다. 그 외 기록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필자는 2007년에 반파의 위치에 대해서 간단히 논한 바 있는데, 반파를 원래 경북 성주 지역에 존재한 가야국이었다가 521년 이후 529년 사이에 고령의 가라국에 복속된 國으로 생각했다.<sup>1</sup> 그러나 당시의 검토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再論의 이유이다.

재론의 필요성은 또 있다. 현재 반파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학계의 중론은 반파를 가라의 이칭으로 보아, 현 경북 고령에 위치 비정하는 것이다. 이 설의 입론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자들이 이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반파의 위치를 전북 동부지역에 비정하는 몇 편의 논고들이 학계에 제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현 전북 장수 지역에 비정하는 설이다. 이 설 또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반파=고령설’과 ‘반파=장수설’, 그리고 성주설, 남원설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연구사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논점 및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III장 1절에서는 II장의 정리를 바탕으로 논점이 되는 사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각 설에서 주장하는 논점을 검토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절에서는 문헌상에 반파가 보이는 6세기 초 당시 가야를 둘러싼 정세와

---

1 백승욱, 「己汶·帶沙의 위치비정과 6세기 전반 대 加羅國과 百濟」,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도서출판 서울기획, 2007, 222쪽.

백제의 남진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반파의 위치는 己汝과 帶沙의 위치와 연동되어 비정되는바, 백제에 귀속되는 이들 2地가 어디인가에 따라 반파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백제가 낙동강 유역의 가야 북부지역으로 남침해 왔는지, 섬진강 유역을 선택하여 남진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절에서는 반파의 위치 비정에 필요한 조건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그 위치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영세한 자료와 非才로 인해 많은 오류가 예상된다. 편달을 바란다.

## II. 연구사

### 1. 성주설

‘伴跋=高靈說’이나, 장수설 이전에 반파를 경북 성주에 비정하는 설이 있어 왔다. 今西龍은 伴跋를 星州郡의 옛 이름인 本彼에 근거하여, 성주를 제2 중심으로 하고 고령을 제1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국이라 하였다.<sup>2</sup> 鮎貝房之進 또한 本彼의 음상사에 근거하여 반파를 성주에 비정했다.<sup>3</sup> 末松保和도 반파를 성주로 비정하고 있다.<sup>4</sup> 이들은 모두 『삼국사기』 지리지 성주군조의 ‘新安縣 本本彼縣 景德王改名 今京山府’에서 ‘本彼’와 ‘伴跋’의 음상사에 근거한 것이다.<sup>5</sup> 그리고 반파의 위치 비정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기문을 경북 김천에 비정하고 있다. 이는 김천의 옛 지명 ‘甘文’에 근거한 것이다.

2 今西龍, 「加羅疆域考」, 『史林』 제4권 제3·4호, 1919; 「加羅疆域考補遺」, 『史林』 제5권 제1호, 1920; 「己汝伴跋考」, 『史林』 제7권 제4호, 1922;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937에 실려 있음.

3 鮎貝房之進, 「日本書紀朝鮮地名攷」, 『雜攷』 第7輯 下卷, 1937, 53~58쪽.

4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1949; 吉川弘文館 增訂5版, 1971, 125~126쪽.

5 『三國史記』 卷34, 雜志3, 地理1, 星州郡條, “星山郡, 本一利郡【一云里山郡】, 景德王改名, 今加利縣, 領縣四, 壽同縣, 本斯同火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谿子縣, 本大木縣, 景德王改名, 今若木縣, 新安縣, 本本彼縣, 景德王改名, 今京山府, 都山縣, 本狄山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이에 대해 김태식은 성주와 고령에서 출토되는 유물 양상으로 보아 6세기 초 양 지역은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반과=성주설’을 반박하였다.<sup>6</sup>

김현구는 반과의 위치를 기문 대사 2지에 근접해 있고, 이들 2지를 섬진강이 아닌 낙동강 유역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반과=가라(고령가야)’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과=本彼’에 의거 반과를 성주로 비정했다.<sup>7</sup> 대사는 『三國史記』 권34 잡지3의 壽昌郡(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대)條의 “河濱縣이 본래 多斯只縣”을 근거로 대구 달성군으로 비정하고 있다. 기문 또한 『新撰姓氏錄』 左京皇別下 吉田連條의 “任那國이 아뢰기를 臣의 나라 동북에 三己汝…”를 근거로 섬진강 유역일 수 없다고 하면서 낙동강 유역에서 찾았다. 그는 『三國史記』 지리지의 “開寧郡 古甘文小國也”를 근거로 기문을 감문국인 개녕, 즉 지금의 경북 김천에 비정했다. 또한 반과가 일본에 대한 방비를 위해 城을 연결하는 子呑도 경북 慶山에 비정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그의 이해는 神功紀에 보이는 백제의 가야 지역으로의 진출과 계체기의 진출 루터가 모두 낙동강을 연한 북부 가야 지역으로부터라고 보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논지의 출발점은 伴跋와 加羅는 동일 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하고 있다.

그는 6세기 전반 신라에 대한 伴跋와 加羅의 태도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두 세력을 동일 세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繼體紀 7년 6월조의 기사를 보면, 백제가 穗積臣押山을 통해서 야마토 정권에게 己汝을 요구하자 야마토 정권은 같은 해 11월에 百濟 姐彌文貴將軍, 斯羅 汶得至, 安羅 辛已奚 及 賁巴委佐, 伴跋 既殿奚 及 竹汶至 등을 모아 놓고 己汝 帶沙를 백제에 주었다는 점에서 新羅(=斯羅)는 反伴跋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백제에 동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6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97~98쪽.

7 金鉉球, 「百濟의 加耶進出에 관한 一考察」, 『東洋史學研究』 70, 2000, 130쪽.

8 김현구, 위의 논문, 123쪽.

것이다. 그런데 계체기 7, 8, 9, 10년조와 중출기사인 계체기 23년조에는 加羅<sup>9</sup>가 신라에 접근하여 혼인을 맺는 것으로 보아 가라는 신라와 우호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既殿奚와 古殿奚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既殿奚가 등장하는 것은 계체기 7년인 513년이고, 古殿奚가 등장하는 것은 흙명기 2년인 541년과 동 5년인 544년이란 점에서 연대상으로 30년 이상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동일 인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sup>10</sup>

필자도 ‘반과=가라국’으로 보는 입장에는 동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김현구의 논증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계체기 7, 8, 9, 10년조와 계체기 23년조가 중출기사 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의 논의대로 중출기사라 하더라도 따르기 어려운 점이 있다. 『日本書紀』, 계체기 7년 6월조와 11월조의 기사에서 기문과 대사가 결과적으로 백제의 영역으로 되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반과와 신라는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보기는 어렵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이때 동참하는 安羅의 경우 친백제적이라는 것인데, 계체 23년조의 이른바 安羅高堂會議에서 백제는 안라에 의해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sup>11</sup> 그리고 ‘既’와 ‘古’의 차이를 인정해 既殿奚와 古殿奚를 다른 인물로 보기도 어렵다.<sup>12</sup> 또한 30년이란 세월은 동일 인물이 활동할 수 없을 정도의 隔絶의 인 기간은 아니다.

최근 홍성화 또한 기문 대사의 위치를 낙동강 유역으로 비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김현구와 같은 입론이지만, 주변 유적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9 김현구의 논문에는 ‘伴跋’로 되어 있다(김현구, 위의 논문, 132쪽). 이는 ‘加羅’의 誤記로 보인다.  
 10 金鉉球, 「百濟의 加耶進出에 관한 一考察」, 『東洋史學研究』 70, 2000, 133~134쪽. 그는 “만약 동일 인물이라고 상정했다면 흙명기의 古殿奚는 편자가 자의적으로 등장시킨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였다.  
 11 백승옥, 「安羅高堂會議의 성격과 安羅國의 위상」, 『지역과 역사』 14, 2004.  
 12 既殿奚와 古殿奚는 모두 キテンケイ와 コテムケイ로 각각 발음하도록 주석하고 있다.

논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의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북부의 죽곡동산성과 주변의 산성 분포 및 분구묘 양상 등으로 논리를 강화하였다. 帶沙江을 낙동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sup>13</sup>

필자도 반파를 성주에 비정한 바 있다. 『梁職貢圖』의 叛波는 繼體紀의 伴跋와 동일한 國인데, 이는 加羅일 수 없다고 보았다. 479년에 이미 독자적으로 南齊에 견사하여 ‘輔國將軍本國王’을 제수받은 경험이 있는 加羅가 百濟의 傍小國으로 기록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당시 기 제출된 전영래의 ‘반파=운봉설’의 경우는 충분한 납득이 되지 않았다. 가라의 주변에 있으면서 백제와 신라와도 접촉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면서 음상사도 찾아지는 곳이 성주라고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파는 521년대까지 존재하고 있다가 529년 이전에 가라에 복속된 것으로 보았다.<sup>14</sup> 성주는 『삼국유사』 5가야조에 ‘星山伽耶’라는 가야의 일국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반파로 비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 2. 고령설

‘伴跋=加羅’라고 보는 논자들은 그 주요 근거로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繼體紀 7, 8, 9년조에는 伴跋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繼體紀 23년 3월조에는 加羅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근거는 계체기 7년 11월조에 보이는 伴跋의 既殿奚가 欽明紀 2년 4월조와 5년 11월조에는 加羅의 上首位 古殿奚로 나온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반파가 사서상 등장하여 활동하는 시기가 6세기 전반인데, 이 시기 백제와 영역 다툼을 벌일 수 있는 가야국으로 는 고령의 가라국(=대가야)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고고학적 상황 논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13 홍성화, 「己汝, 帶沙 지명 비정에 대한 일고찰」, 『史叢』 82, 2014, 191~196쪽.

14 백승욱, 앞의 논문, 2007.

今西龍이 ‘本彼=伴跋’에 입각하여 ‘반파=성주설’을 주창했지만, 그 후의 추론에서 반파는 성주를 제2 중심으로 하고 고령을 제1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국이라 하였으니 ‘반파=가라설’의 최초 주창자는 今西龍일 수 있다.<sup>15</sup> 그러나 최근 대세를 이루는 가라설의 경우 김태식의 논고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김태식은 성주와 고령 출토의 5세기 대 토기 형식으로 보아 동일 세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반파=성주설’을 반박한 후 ‘반파=가라’, 즉 고령설을 주장하였다. 그의 ‘반파=고령설’ 주요 논점의 하나는 계체기 7, 8, 9년조의 기사와 23년 3월조의 기사를 모두 백제가 기문 대사 2지를 차지하는 유래를 설명하는 기사로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 이유의 첫째는 반파와 백제가 영역 다툼을 벌이는데 倭가 개입하여 백제가 승리한다는 사건의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 둘째는 穗積臣押山과 物部連 등 등장인물이 동일한 점, 셋째는 결국에 가서는 기문과 대사를 백제에게 할양한다는 사건의 결말이 동일한 점 등을 들고 있다.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만 사료의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채록한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sup>16</sup>

또한 『삼국지』 위서 동이전 韓條의 ‘半路國’은 ‘路’ 자가 ‘跋’ 자의 誤記로 半路國은 곧 伴跋國이라는 견해를<sup>17</sup> 받아들여 고령의 옛 이름을 변진반로국 즉 반파국이었다고 추정하였다.<sup>18</sup> 고령은 원래 伴跋(半路·叛波)國을 칭하면서 변한연맹 또는 전기가야연맹의 한 후진 세력으로 남아 있으면서,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치는 변란기에는 김해·함안과는 달리 심한 타격을 입지 않은 채로 자기 세력을 유지시키면서 실력을 축적해 나가다가, 5세기 후반에 들어 大加耶라는 이름으로 예전의 김해 중심 가야연

15 今西龍, 앞의 논문, 1919; 앞의 책, 1937, 391~397쪽.

16 김태식, 「5C 후반 大加耶의 발전에 대한 研究」, 『韓國史論』 1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5, 54~66쪽; 앞의 책, 1993, 97~104쪽.

17 李丙燾, 「三韓問題의 新考察」(6), 『震檀學報』 7, 1937.

18 김태식, 위의 책, 1993, 103쪽.

맹의 판도를 복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추측하였다.<sup>19</sup> 이러한 ‘半路=伴跋=加羅(=大加耶)說’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견지하고 있다.<sup>20</sup>

김재홍은 김태식의 설에 동조하면서 반파를 고령에 비정하였다. 그는 반파와 가리는 고령에 있는 소국을 일컫는 국가명이지만 반파국이 주변 소국으로 영향력을 넓히면서 가야 북부와 서부를 아우르는 加羅로 성장하였으며, 반파가 발전하면서 가라로 국명을 바꾸었다고 하였다.<sup>21</sup>

### 3. 남원설

全榮來는 반파를 남원시 月山里(阿英面)에서 함양군 上柏里 일대로 비정하였다. 남원 월산리고분군의 묘제를 제Ⅰ형 석관, 제Ⅱ형 무개식 석곽, 제Ⅲ형 수혈식석실로 나누고 각각 4세기 말 전후, 5세기 중반 전후, 5세기 후반 내지 6세기 초라는 연대를 부여하였다. 이 가운데 제Ⅰ형 석관과 제Ⅱ형 석곽 단계의 월산리 세력이 곧 반파이며, 제Ⅲ형 석실 단계에 고령의 가라국에 병합된다고 하였다. 제Ⅲ형 석실의 축조가 이전 단계의 묘제를 파괴하고 축조된다는 점과 그 묘제와 유물이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양상과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리고 계체기 7, 8, 9년조 기사와 23년조 기사는 동일 사건의 서술이 아닌 별개의 사건을 기술한 것이라 하고, 8, 9년조의 반파가 23년조에서 加羅로 대체된 것은 그 사이(515~529년)에 반파국이 가라국에 병합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sup>22</sup>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 문헌 기사를 활용하여 한 지역의 정치체 모습을 그려낸

19 김태식, 앞의 책, 1993, 104쪽.

20 김태식, 『사국시대의 사국관계사 연구』, 서경문화사, 2014, 125~137쪽: 「가야의 공간적 범위 재론」,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9, 67~77쪽.

21 김재홍, 「기문과 반파의 역사적 위치 및 성격」,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국립나주·가야문화재연구소 2019년 가야사 기획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9, 216쪽.

22 全榮來, 『南原月山里古墳群發掘調查報告』, 1983, 73~79쪽: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85, 148~151쪽.



점은 충분히 평가할 만하며 학계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 묘제가 보인다고 해도 소백산맥을 가운데 두고 그 좌우에 동일 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가 들고 있는 고고학적 양상에 대한 설명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는 제Ⅱ형의 무개석 석곽이 제Ⅲ형의 수혈식 장방형 대형 석실에 의해 (무참하게) 파괴되고 축조된 점을 들어 두 축조집단을 전혀 이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있다.<sup>23</sup> 이를 근거로 반파가 가라에 의해 점령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축조된 분묘의 파괴 행위만을 가지고 해당 지역을 정복했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계체기에서 보이는 伴跋는 상당한 힘을 가진 세력으로 보이는 만큼, 남원 月山리고분군과 함양 上柏리고분군 축조세력 정도의 역량을 가진 집단이 伴跋로 보기는 어렵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 4. 장수설

곽장군은 반파를 전북 장수 지역에 비정하고 이를 ‘장수가야’라 칭하였다. 반파(=장수가야)의 입증을 위해 제철유적과 봉수유적에 주목하였다. 진안고원 내 장수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80여 개소의 봉수가 장수군을 여러 겹으로 에워싸듯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이기 때문에 이 봉수들의 운영 주체는 장수가야와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를 『일본서기』 계체기 8년(514) 3월조에, 반파가 “烽候와 邸閣을 설치하여 日本에 대비하였다.”라는 기록과 연관시켜 장수 지역을 반파로 비정하는 것이다.

봉수 발굴을 통하여, “산봉우리의 정상부에는 대체로 할석으로 장방형의 단을 만들고 돌로 쌓은 석성을 한 바퀴 돌렸는데, 돌로 연대를 쌓고 그 위에 연조를 설치했던 조선시대 봉수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여 봉수를 삼국시대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확보된 유물은 적갈색 연질토기편과 거친 승석문이 시문된 회청색

23 全榮來, 위의 논문, 1985, 148~151쪽.

경질토기편만 나왔는데, 토기류의 속성은 장수 삼봉리·동촌리 등 가야계 고총에서 나온 토기류와 상통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수가야의 실체에 대해서는 20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장수군에 밀집 분포된 점과 더불어 제철유적을 강조하고 있다. 봉수의 역할도 장수군 제철유적을 방어하는 데 목적을 두고 배치된 것으로 추정하였다.<sup>24</sup>

이도학은 최근의 논고에서 ‘반파=가라설’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반파는 가라일 수 없으며 전북 장수 지역의 고고학적 자료와 『일본서기』 계체기의 ‘烽候邸閣’ 기사를 연계시켜 반파를 장수에 비정하였다. 加羅는 이미 479년에 南齊의 황제로부터 ‘輔國將軍·本國王’에 책봉된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백제에 附庸된 ‘旁小國’인 叛波와 같은 나라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직공도』의 방소국들은 백제가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설정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백제가 자신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반파보다는 가라라는 표현을 쓸 것인데, 그렇지 않은 점으로 보아서도 반파는 가라와는 별개의 나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25</sup>

이외에 최근 최연식은 반파와 관련하여 독특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고구려 광개토태왕릉비문 제1면 9행 13번째 글자를 ‘泝’로 석독하고, 이는 ‘泝’의 이체자이므로 1-9-14자인 破와 붙여 ‘泝破’로 읽었다. 그리고 이 ‘泝破’를 叛波 또는 伴跛를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반파의 위치를 남해안에 연한 國으로 보았다. 이에 더 나아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등장하는 浦上八國과 연결시켜, 반파를 포상팔국의 중심 세력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保羅國 혹은 포상팔국 연맹과 동일한 정치세력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sup>26</sup> 아주 기발한 생각이긴 하다. 그러나 입론의 가장 기초적

24 박장근,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호남고고학보』 57, 2017; 조명일, 「금강상류지역의 산성과 봉수의 분포양상」,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한국상고사학회, 2011, 69~90쪽; 군산대학교 박물관·장수군, 『장수 영취산·봉화산 봉수』, 장수군 관내 봉수 2개소 문화재 시·발굴조사 보고서, 2016.

25 이도학, 「伴跛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 호서사학회, 2019, 72~73쪽.

26 최연식, 「영락 6년 고구려의 백제 침공 배경과 역사적 의미-광개토태왕비 영락 6년 기사의 판독과

근거 설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비문의 I-9-13字에 대한 석독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이 글자는 기존에 ‘海’로 석독하거나 읽기 어려운 글자, 또는 ‘溟’, ‘泗’, ‘泐’ 등 다양하게 읽어 왔다. 그런데 글자의 오른쪽 기역자 모양의 획은 대부분의 원석 탁본에서 확인되는 확실한 획이다. 이를 무시한 석독은 인정하기 어렵다.

〈표 1〉 任那 4縣과 2地 및 伴跋에 대한 기존의 위치 비정

| 연구자   | 任那 4縣의 비정        |            |               |                           | 2地의 비정                    |                  | 伴跋 | 출전                  |
|-------|------------------|------------|---------------|---------------------------|---------------------------|------------------|----|---------------------|
|       | 上哆喇              | 下哆喇        | 娑陀            | 牟婁                        | 己汶                        | 帶沙               |    |                     |
| 今西龍   | 晋州               | 熊川         | 河東?           | 固城·泗川                     | 南原                        | 河東               | 星州 | 今西龍 (1922)          |
| 鮎貝房之進 |                  |            |               |                           | 김천                        | 河東               | 星州 | 鮎貝房之進 (1937)        |
| 末松保和  | 榮山江<br>東岸(光州-靈巖) |            | 구례            | 전남<br>서부지방(영광,<br>고창, 무안) | 섬진강 유역                    | 河東               | 星州 | 末松保和 (1949)         |
| 三品彰英  |                  |            | 沙坪(사<br>천 서남) | 泗川                        | 南原                        | 河東               | 星州 | 三品彰英 (2002)         |
| 金廷鶴   | 咸陽·山淸            |            |               |                           | 河東郡 일대                    |                  |    | 金廷鶴 (1977)          |
| 丁仲煥   | 경남의 서남 방면        |            |               |                           | 南原                        | 河東               |    | 정중환 (1978)          |
| 千寬宇   | 義城郡 多仁           |            | 漆谷郡<br>仁同     | 낙동강 상류의<br>醴泉             | 金陵郡 開寧                    | 達城郡<br>多斯·河<br>濱 | 星州 | 千寬宇 (1991)          |
| 全榮來   | 麗水半島             | 여수<br>突山島  | 順天            | 光陽                        | 南原                        | 河東               |    | 全榮來 (1985)          |
| 延敏洙   |                  |            |               |                           | 남원·임실                     | 河東               |    | 연민수 (1998)          |
| 田中俊明  |                  |            |               |                           | 長水郡<br>蟠岩(상기문)<br>南原(하기문) | 河東               |    | 田中俊明 (1992)         |
| 金泰植   | 전남<br>여수시        | 여수시<br>돌산읍 | 전남<br>순천시     | 전남 광양시<br>광양읍             | 임실·장수,<br>남원              | 河東               | 고령 | 金泰植 (1993)          |
| 李永植   |                  |            |               |                           | 남원                        | 河東               |    | 李永植 (1995)          |
| 李根雨   | 전남 장흥            |            | 순천            | 광양 또는 보성                  | 남원                        | 河東               |    | 李根雨 (1997,<br>2003) |

재해석-], 『한국목간학회 춘계발표회 자료집』, 2019.

|     |                  |     |    |                           |                    |    |               |
|-----|------------------|-----|----|---------------------------|--------------------|----|---------------|
| 郭長根 | 섬진강 상·중류지역       |     |    | 남강 수계<br>상류~남원시<br>동부지역   | 南原市<br>帶江面~<br>谷城邑 | 장수 | 郭長根<br>(1999) |
| 白承忠 | 河東(哆唎=達已=帶<br>沙) | 남원? |    | 남원                        | 하동                 |    | 白承忠<br>(2000) |
| 金鉉球 |                  |     |    | 김천시 開寧                    | 대구시<br>달성군         | 성주 | 金鉉球<br>(2000) |
| 박천수 | 여수지역             | 순천  | 광양 | 구례, 곡성,<br>순창, 남원,<br>임실  | 河東                 |    | 박천수<br>(2006) |
| 백승옥 |                  |     |    | 김천,<br>섬진강 유역             | 河東                 | 성주 | 백승옥<br>(2007) |
| 홍성화 |                  |     |    | 김천-선산                     | 낙동강<br>유역<br>(달성)  |    | 홍성화<br>(2014) |
| 김재홍 |                  |     |    | 장수(상),<br>임실(중),<br>운봉(하) | 하동                 | 고령 | 김재홍<br>(2019) |
| 이도학 |                  |     |    |                           |                    | 장수 | 이도학<br>(2019) |

### Ⅲ. 사료의 검토와 위치 비정

#### 1. 사료 검토

다음은 伴跋(叛波)의 위치 비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료들이다.

<사료 1> 백제가 사신을 보내 調를 바쳤다. 별도로 表를 올려 任那의 國, 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 四縣을 청했다. 哆唎國에 파견된 사신인 穗積臣押山이 주청해서 말하기를 “이 4현은 백제의 땅에 가깝고 日本에서는 먼 곳입니다. 조석으로 통행하기 쉽고 닭과 개의 주인도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且暮易通 鷄犬難別] 지금 백제에게 주어 한 나라로 만들면 보전의 책이 이것보다 나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중략) 表를 올린 대로 임나 4현을 주었다.<sup>27</sup>

27 『日本書紀』卷17, 繼體 6년(512) 12월조,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 下哆唎 娑陀 牟婁

<사료 2> 백제가 姐彌文貴將軍과 州利卽爾將軍을 穗積臣押山(『百濟本記』에 의하면 ‘倭의 意斯移麻岐彌’라고 한다.)에게 달려 보내 오경박사 段楊爾를 바쳤다. 따로 주청하여 “伴跋國이 신의 나라인 己汶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천은으로 판단하여 본래의 소속으로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하였다.<sup>28</sup>

<사료 3> 조정에서 백제의 姐彌文貴將軍, 斯羅의 汶得至, 安羅의 辛已奚, 賁巴委佐, 伴跋의 旣殿奚, 竹汶至 등을 나란히 세우고 은칙을 받들어 선포하고, 己汶, 帶沙를 백제국에 주었다. 이 달에 伴跋國이 戢支를 보내 珍寶를 바치고 기문의 땅을 달라고 하였으나, 끝내 주지 않았다.<sup>29</sup>

<사료 4> 伴跋는 子吞·帶沙에 성을 쌓아 滿奚에 연결하고 烽候와 邸閣을 설치하여(置烽候邸閣) 일본에 대비했다. 다시 爾列比·麻須比에 성을 쌓아 麻且奚·推封에까지 뻗치고, 사졸과 병기를 모아서 신라를 꺾박했다. 자녀를 약취하고 촌읍을 약탈하였다. 흉적이 가는 곳에 남는 것이 드물었다. 무릇 포악하고 사치스럽고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살상이 너무 많아 상세히 적을 수가 없었다.<sup>30</sup>

<사료 5> 백제사자 문귀 장군 등이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이에 조칙을 내려 物部連[이름을 잃었다.]을 달려서 돌아가게 하였다.『백제본기』에는 ‘物部至至連’이

---

四縣 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 近連百濟 遠隔日本 且暮易通 鷄犬難別 今賜百濟 合爲同國 固存之策 無以過此 (中略) 依表賜任那四縣.”

28 『日本書紀』卷17, 繼體 7년(513) 6월조, “百濟遣姐彌文貴將軍 州利卽爾將軍 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 委意斯移麻岐彌] 貢五經博士段楊爾 別奏云 伴跋國略奪臣國己汶之地 伏願 天恩判還本屬.”

29 『日本書紀』卷17, 繼體 7년(513) 11월조, “於朝廷 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及賁巴委佐 伴跋旣殿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帶沙賜百濟國 是月 伴跋國 遣戢支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

30 『日本書紀』卷17, 繼體 8년(514) 3월조, “伴跋築城於子吞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復築城於爾列比 麻須比 而桓麻且奚 推封 聚士卒兵器 以逼新羅 駢略子女 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

라고 쓰여 있다.] 이달에 沙都島에 이르러 전해 들으니 伴跋人이 한을 품고 독을 머금어 강한 것을 밟고 포악하다 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物部連이 수군 5백 명을 거느리고 帶沙江으로 직행했다. 문귀 장군은 신라로부터 떠났다.<sup>31</sup>

<사료 6> 物部連이 대사장에 6일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伴跋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공격했다. 압박해서 옷을 벗기고 위협해서 물건을 약탈하고 머무는 처소를 모두 불 질렀다. 物部連 등이 겁을 먹고 놀라 도망갔다. 겨우 목숨만 건져 汶慕羅에 정박했다.[汶慕羅는 섬의 이름이다.]<sup>32</sup>

<사료 7> 백제왕이 下哆唎國守 穗積押山臣에게 일러 말하였다. “무릇 조공하러 가는 사자들이 섬의 島曲[바다 가운데 섬의 후미진 崎岸을 일컫는다. 속칭 美佐禰라고 한다.]을 피할 때마다 매번 풍파에 시달립니다. 이로 인하여 가지고 가는 것을 적시고 망가지게 됩니다. 가라의 多沙津을 신이 조공하는 길로 삼을 것을 청합니다.” 압산신은 그 청을 들은 대로 전하여 주었다. 이달에 物部伊勢連父根, 吉士老 등을 보내 다사진을 백제왕에게 주었다. 이에 가라왕이 칙사에게 “이 항구는 관가를 둔 이래 신이 조공할 때 기항하는 곳입니다. 어찌서 쉽게 이웃 나라에 주십니까? 원래 지정한 경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칙사 부근 등이 이로 인하여 눈앞에서 주는 것이 어려워서 大島로 물러가고, 따로 錄史를 보내 扶余에게 주었다. 이 때문에 加羅가 新羅와 결당하고 일본에 원한을 품었다. 加羅王이 新羅王女를 취해 (중략) 가는 길에 刀伽·古跋·布那牟羅의 3城과 北境 5城을 취해 갔다. 이달에 近江毛野臣을 安羅에 보내 (중략) 이때 安羅는 새로이 高堂을 세웠다.<sup>33</sup>

31 『日本書紀』卷17, 繼體 9년(515) 2월조, “百濟使者文貴將軍事請罷 仍勅副物部連[闕名] 遣罷歸之 [百濟本紀云物部至至連] 是月 至于沙都島 傳聞伴跋人 懷怨銜毒 恃強縱虐 故物部連率舟師五百 直詣帶沙江 文貴將軍自新羅去”

32 『日本書紀』卷17, 繼體 9년(515) 4월조, “物部連於帶沙江停住六日 伴跋興師往伐 逼脫衣裳劫掠所資 盡燒帷幕 物部連等怖畏逃遁 僅存身命泊汶慕羅[汶慕羅 鳴名也]”

33 『日本書紀』卷17, 繼體 23년(529) 3월조, “百濟王請下哆唎國守穗積押山臣曰 夫朝貢使者 恒避島

<사료 8> 安羅의 次早岐 夷吞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의 上首位 古殿奚, 卒麻의 早岐, 散半奚의 早岐의 兒, 多羅의 下早岐 夷他, 斯二岐의 早起의 兒, 子他의 早岐 등과 任那日本府 吉備臣[이름자를 잃었다.]이 백제에 가서 조서를 들었다.<sup>34</sup>

<사료 9> 普通 2년(521)에 그 왕 여류이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말하기를 (중략) 백제 인근의 소국에는 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가 있다.<sup>35</sup>

반과 관련 기사는 계체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계체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서기』의 한반도 관계 기사가 집중적으로 보이는 곳이 계체·흠명기이다. 특히 계체기는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반도 관계 기사로 채워져 있다. 6년 하 4월조의 임나 4현 할양 기사로부터 시작해서 2지와 반과 관련 기사(7년 6월, 11월, 同 是月, 8년 3월, 9년 2월, 동시월, 4월, 10년 5월, 9월조 기사 등), 近江毛野臣의 남가라 지역에서의 활동 기사(21년 6월, 23년 3월, 4월, 24년 9월, 10월조 기사), 가라국 동향 기사(23년 3월, 4월, 9월조 기사) 등이다. 문제는 이들 기사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는

---

曲(謂海中島曲碕岸也 俗云美佐祢) 每苦風波 因茲濕所資 全壤無色 請以加羅多沙津 爲臣朝貢津路 是以 押山臣爲請問奏. 是月 遣物部伊勢父根 吉士老等 以津賜百濟王 於是 加羅王請勅使云 此津從置官家以來 爲臣朝貢津涉 安得輒改賜隣國 違元所封限地 勅使父根等 因斯難以面賜 却還大島 別遣錄史 果賜扶餘 由是 加羅結儻新羅 生怨日本 加羅王 娶新羅王女 (중략) 遂於所經 拔刀伽·古跋·布那牟羅三城 亦拔北境五城. 是月 遣近江毛野臣 使于安羅 (중략) 於是 安羅新起高堂”

34 『日本書紀』卷19, 欽明 2년(541) 4월조, “安羅次早岐夷吞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早岐 散半奚早岐兒 多羅下早岐夷他 斯二岐早岐兒 子他早岐等 與任那日本府吉備臣[關名字] 往赴百濟 俱聽詔書”

35 『梁職貢圖』, 百濟國使臣圖經, “普通二年(521)其王餘隆遣使奉表云 -(中略)- 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附之”

점이다. 그 원인은 허구의 한반도 남부 支配像을 얹어냄에 있어서, 한반도계 사서(아마도 백제계 사서인 『백제본기』가 중심)와 家傳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내에 전해져 오는 기록들을 혼합시켜야 함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사료 1>은 백제가 왜(일본)의 官家인 임나 4현을 줄 것을 청하자 이를 허락하는 내용이다. 고대 일본 중심주의 변국사관이 적용된 상태의 내용이지만, 백제의 임나 4현으로의 진출로 보아야 좋을 것이다. 사료들을 통해서 보면 이후 백제는 기문, 대사로도 진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과와 충돌한다.

<사료 2>를 통해서 보면 기문은 원래 백제의 땅이었는데, 반과가 차지하자 백제가 이를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백제 측의 주장이기에 기문이 원래 백제 땅이었던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백제 측의 수사일 가능성이 있다. 2지의 귀속 문제를 두고 논의하는 모습이 <사료 3>이다. 왜의 조정에서 백제와 반과를 포함한 5개국 사신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己汝과 帶沙는 백제에 귀속되게 된다. 그러나 이 회의는 왜의 조정이 아닌 안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36</sup> 이후 반과는 기문을 되돌리고자 외교적 노력을 펼치지만 실패하고 만다.

기문 상실은 반과가 왜(또는 백제)에 대비하여 축성해야 했다. 그리고 ‘烽候와 邸關’도 설치하였다. <사료 4>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반과를 ‘포악하고 사치스러운 흉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사료 5>와 <사료 6>에서도 보이고 있다. 모두 백제 측의 입장이 반영된 사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원 사료의 제공은 백제계 사료일지라도 편찬 과정에서의 윤색은 『일본서기』 편찬자들에 의해 가해졌다.

小島憲之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서기』 편찬 당시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윤색에 사용한 漢籍은, 『史記』·『漢書』·『後漢書』·『三國志(吳志, 魏志)』·『梁書』·『隋書』·『藝文類

36 백승욱, 「영·호남 경계지역 가야 정치체의 성격」,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국립나주·가야문화재연구소 2019년 가야사 기획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9.



聚』、『文選』、『金光明最勝王經』、『淮南子』 등이다.<sup>37</sup> 이 중에서도 권14 응락기부터 권 19 흠명기까지는 漢籍의 語句를 가장 많이 인용하여 윤색이 현저한 곳이라 한다.<sup>38</sup> 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 아래 <표 2>이다.

<표 2> 『日本書紀』(권14~19) 出典 書名 분류표<sup>39</sup>

| 卷名<br>出典書名    | (권14) 雄略紀 | (권15) 清寧紀<br>顯宗記 仁賢紀 | (권16)<br>武烈紀 | (권17) 繼體紀 | (권18) 安閑紀<br>宣化紀 | (권19) 欽明紀 |
|---------------|-----------|----------------------|--------------|-----------|------------------|-----------|
| 『漢書』          | ○         | ○                    |              | ○         | ○                | ○         |
| 『後漢書』         |           | ○                    | ○            |           |                  |           |
| 『三國志』         | ○         |                      | ○            | ○         |                  | ○         |
| 『梁書』          |           | ○                    |              |           |                  | ○         |
| 『隋書』          | ○         | ○                    |              |           |                  |           |
| 『文選』          | ○         | ○                    |              |           |                  | ○         |
| 『藝文類聚』        | ○         | ○                    | ○            | ○         | ○                | ○         |
| 『金光明最勝<br>王經』 |           | ○                    | ○            | ○         |                  | ○         |

『日本書紀』 권14에서 권19 사이에 중국 한적 인용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서기』의 편찬 과정과 그 성격에 대한 연구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森博達은 『일본서기』의 음운과 문장을 분석하여 그 표기의 성격 차이를 바탕으로 α群(권14~21·24~27), β群(권1~13·22~23·28~29), 권30의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나아가 α群은 持統朝(687~696)에 續守言과 薩弘恪이 正音에 의한 正格漢文으로 述作했으며, β群은 文武朝(697~707)에 山田史御方이 倭音을 바탕으로 한 일본식 한문으로 찬술하였다고 하였다. 권30은 元明朝(708~714)에 紀朝臣清人이 찬술하였다고 한다.<sup>40</sup>

37 小島憲之, 『上代日本文學と中國文學』 上, 塙書房(東京), 1962, 402~404쪽, 別表 1 참조.

38 小島憲之, 위의 책, 1962, 460쪽.

39 小島憲之, 위의 책, 1962, 461쪽.

이러한 연구 성과는 『일본서기』에 적용된 元嘉曆과 儀鳳曆의 실태 등으로 보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권17 계체기는 森博達의 a群에 속하는데 정격한문에 의해 찬술되었다는 점이다. 최초의 정사를 정격한문에 의해 편찬해야 하는 부담은 대단했을 것이다. 이에 한적 출전의 양이 많아짐은 당연하다. 이 경우 그 윤색의 정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이러한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반과=장수설’의 중요 근거가 되는 <사료 4>에 보이는 ‘置烽候邸閣’ 때문이다. 이는 『三國志』 권15, 魏書15, 張既傳의 ‘置烽候邸閣’을 그대로 따온 문구이다.<sup>41</sup> 전후의 문맥도 같다. ‘築城於子吞帶沙’는 장기전의 ‘築鄣塞’의 구조와 같다. 뒷부분 ‘以備日本’은 장기전의 ‘以備胡’에서 ‘胡’ 대신 ‘日本’을 넣어서 윤색한 것이다. 이러한 윤색은 <사료 1>에서도 보인다. “조석으로 통행하기 쉽고, 닭과 개의 주인도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巨暮易通 鷄犬難別]”라는 표현은晉 陶淵明의 『桃花源記』<sup>42</sup> 가운데, “밭고랑이 서로 통해 있고,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阡陌交通 鷄犬相聞]”에서 빌려 와 윤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임나 4현의 위치가 어디든 간에 개와 닭이 서로 섞일 정도의 거리에 백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거리가 가깝다는 것에 대한 과장된 수사를 한적을 빌려 윤색한 것이다.

이외에도 雄略紀 8년 2월조와 9년 3월조에, “新羅王 夜聞高麗軍 四面歌舞”,<sup>43</sup>

40 모리 히로미치 지음·심경호 옮김, 『일본서기의 비밀』, 황소자리, 2006.

41 『三國志』卷15 魏書15, 張既傳, “張既字德容 馮翊高陵人也 年十六 爲郡小史 (중략) 酒泉蘇衡反 與羌豪鄴戴及丁令胡萬餘騎攻邊縣 既與夏侯儒擊破之 衡及鄴戴等皆降 遂上疏請與儒治左城 築鄣塞 置烽候邸閣以備胡”

42 陶淵明(365~427), 『桃花源記』, “晉太元中(376~395) 武陵人捕魚爲業 緣溪行 忘路之近遠 忽逢桃花源林 (중략) 從口入 初極狹 纔通人 復行數十步 豁然開朗 土地平曠 屋舍儼然 有良田美池桑竹之屬 阡陌交通 鷄犬相聞 (하략)”

43 『日本書紀』卷14 雄略 8년 2월조, “惟有遣高麗一人 乘間得脫逃入其國 皆具爲說之 高麗王卽發軍兵 屯聚筑足流城[或本云 都久斯岐城] 遂歌舞興樂 於是 新羅王 夜聞高麗軍 四面歌舞 知賊盡入新羅地”

“新羅王 夜聞官軍 四面鼓聲”는 저 유명한 『史記』 項羽本紀의 “夜聞漢軍 四面皆楚歌”을<sup>44</sup> 빌려 와서 윤색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료 4>의 ‘置烽候邸閣’의 사실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 어구는 사실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敵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다’라는 정도의 내용을 『삼국지』 장기전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꾸민 문학적 윤색이라고 볼 수 있다.

예부터 산봉우리에烽燧臺를 설치하고 봉화 불을 올려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통신수단 가운데 가장 유효한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후 곧장 사용되었을 것이다. 중국에서 봉수에 의한 전달 방법은 이미 周나라 때부터 시작하여 前漢시대에 봉수가 있었다고 한다. 점점 발달하여 제도화된 것은 唐代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허황옥이 도래하는 것을 봉화를 올려 알리는 모습이 보인다. 보다 확실한 자료는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5 흑산조에 보이는 ‘明火於烽燧’이다. 고려 인종 때 송나라에서 온 사신을 수도 개경으로 안내할 때 봉수를 사용했던 것이다.

계체기 8년(514)의 ‘置烽候邸閣’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최초의 봉수 기록이 된다. 필자는 고고학 전공이 아니어서 유구와 유물에 대한 지견이 부족하다. 따라서 장수군에서 시·발굴된 봉화유구가 삼국시대 6세기 초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자신이 없다. 다만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의 유구 상황이라면 그 유구가 삼국시대 유구로 단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비교할 수 있는 유구가 없는 까닭도 있지만, 문화층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출토 토기 편들도 출토 문화층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지 않다. 전문 고고학자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 다만 심한 윤색이 가해져 역사적 사실성이 의심되는 ‘置烽候邸閣’의 어구에 얽매어 장수군의 봉화 유적을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44 『史記』 卷7 項羽本紀 第7, “項王軍壁垓下 兵少食盡 漢軍及諸侯兵圍之數重 夜聞漢軍四面皆楚歌”

필자가 ‘반파=가라’로 보지 않는 이유는 『梁職貢圖』의 百濟國使臣圖經에 보이는 이른바 旁小國기사(앞의 <사료 9>) 때문이다. 旁小國들은 중국의 南朝에 직접 遣使하지는 못하고 백제 사신에 붙어서 견사했던 나라들이다.<sup>45</sup> 이 점은 『梁書』 新羅傳과<sup>46</sup> 『三國史記』 新羅本紀 法興王 8년(521)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新羅는 法興王 8년(521)에 백제 사신을 따라 梁에 使者를 보내어 方物을 바친 것이다.<sup>47</sup> 백제의 세계관이 가미되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6세기 초 당시 다른 8국의 국력에 비해 신라가 결코 뒤지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旁小國의 9개국에 521년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도 백제와의 관련 속에서 遣使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叛波가 보이는데 이를 계체기의 伴跋로 봄에는 이견이 없다.

加羅國의 경우 479년에 南齊에 견사하고 있다. 이를 가라국이 독자적으로 견사했다고 보기도 하고,<sup>48</sup> 백제의 도움으로,<sup>49</sup> 또는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견사했다고 보기도 한다.<sup>50</sup> 5세기 후반 대 백제의 政情은 매우 불안했다.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3만 군대에 의해 수도 한성은 함락되고 왕인 蓋鹵도 살해되었다.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문주왕도 解仇에 의해 시해되고 13세의 三斤王 또한 재위 3년 만에 薨去한다. 479년은 동성왕 즉위년이다. 동성왕이 즉위하자마자 가라를 도와서 남제에 견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즈음 백제가 남조에 견사하고자 하였으나 고구

45 李鎔賢, 『『梁職貢圖』百濟國使條의‘旁小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7, 1999, 184~185쪽. 이용현은 旁小國 기사를 백제의 세계관이 가미된 것으로 보고, 그 행위를 백제가 梁朝에서 행한 ‘포퍼먼스’, ‘데먼스트레이션’ 등으로 보고 있다.

46 『梁書』, 新羅傳, “普通二年(521)……使隨百濟奉獻方物”

47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法興王 8년(521)조, “遣使於梁奉貢方物”

48 김태식, 앞의 책, 1993, 108쪽; 田中俊明,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71쪽;李文基, 「大伽耶의 對外關係」, 『加耶史研究』, 경상북도, 1995, 220~226쪽.

49 이용현, 「가야의 대외관계」,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 혜안, 2001, 368쪽; 이형기, 『大加耶의 형성과 발전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94쪽; 李根雨, 「熊津·泗泚期の 百濟와 大加羅」,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편, 2003, 304~308쪽.

50 백승충, 『가야의 지역연맹사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151쪽 및 185쪽; 유우창, 「대외관계로 본 가라국의 발전-5세기 대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16호, 195~199쪽.

려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삼국사기』는 전하고 있다.<sup>51</sup> 신라는 481년에 백제, 가야(=가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고 있다.<sup>52</sup> 이는 479년에 가라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남제에 견사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이다.

『梁書』新羅傳의 경우를 보면, “신라왕이 처음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백제를 따라와 방물을 바쳤다.”<sup>53</sup>라고 되어 있어 ‘隨遣使’의 경우 隨遣使란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南齊書』加羅國傳에는 “建元 元年(479)에 국왕 荷知가 사신을 보내와 방물을 바쳤다. 이에 詔書를 내렸다.”라고 되어 있다. 隨遣使의 표시가 없다. 이에 가라국은 독자적으로 遣使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라국의 견사는 齊의 다음 왕조 梁에도 그대로 이어졌을 것이다. 가라국이 梁朝에 견사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견사한 경험이 있는 가라로서는 적어도 백제에 빌붙어 隨遣使하지는 않았을 것이다.<sup>54</sup> 또한 기본적으로 南朝의 경우 東夷에 대한 정책은 이전 왕조를 이어서 그다지 변동이 없었다. 다만 그 號를 더 높여 줄 뿐이었다. 梁의 加羅에 대한 입장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그리고 加羅傳이 입전되어 있는 『南齊書』는 梁代에 蕭子顯이 썼다.<sup>55</sup> 이 책은 江淹·檀起 등의 『齊史』에 의거해서 만들었다고 하나, 소자현 자신의 의견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梁代에는 가라가 중국에 알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같은 시대 梁에서 만들어진 『양직공도』에 가라를 반파로 표기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직공도』 백제 방소국의 9국은 백제에 ‘附之’한다고 되어 있다. 『禮記注疏』卷 11, 王制에 의하면, 邦國은 諸侯國을 말하는데, 公, 侯, 伯, 子, 男의 5등급이 있다. 이들 등급 이외의 국들을 제후국의 附庸國이라 하였다. 이들은 封地도 차이가 있었

51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4, 문주왕 2년(476) 3월조: 동성왕 6년(484) 7월조.

52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3, 소지마립간 3년(481) 3월조.

53 『梁書』, 新羅傳, “普通二年(521)……使隨百濟奉獻方物”

54 이에 대해서는 최근 이도학도 언급하고 있다. 이도학, 앞의 논문, 2019.

55 『梁書』 및 『南史』 蕭子顯傳.

다. 西周 초기 제후들의 봉지는 그렇게 넓지는 않았다. 공과 侯는 100리, 伯은 70리, 子和 南은 50리였다. 50리가 부족한 곳은 모두 제후국에 부용하였는데, 이들은 天子를 직접 알현할 수 없었다. 또한 직접 공납하는 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위의 나라에 의탁해 알현, 조공할 수 있었다.<sup>56</sup> 이러한 내용이 비록 周代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본은 후대에도 적용되었을 것이다. 이는 『양서』의 내용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sup>57</sup> 齊代에 천자를 직접 만난 바 있는 加羅는 제후국이었지 부용국은 아니었다. ‘附之’로 표현될 수 없는 國이었다. 그러나 叛波는 부용국이었다.

이러한 추론이 틀리지 않다면, 『梁職貢圖』의 百濟 旁小國의 하나인 叛波와 加羅를 동일국으로 볼 수 없다. 필자는 ‘반파=가라’는 아니지만 반파국은 결국 가라국에 복속되어진 것으로 본다.<sup>58</sup> 그 시기는 521년 이후 529년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5세기 7, 8, 9년의 기사들에는 伴跋가 보이고 있다. 『梁職貢圖』의 百濟國使는 521년에 梁朝에 간 사신이므로 그의 정보에 의해 방소국들이 기재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521년까지는 반파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세기 23년(529)조에 비로소 ‘加羅多沙津’이 보인다(<사료 7> 참조). 帶沙와 多沙는 동일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료 4>에서는 대사가 반파가 축성하는 곳으로 등장하지만 <사료 7>에서는 가라의 다사진으로 등장한다. 514~529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既殿奚와 古殿奚는 동일 인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5세기 7년(513) 11월조(사료 3)에는 伴跋의 既殿奚로 나오고 欽明紀 2년(541) 4월조(사료 8)와 5년(544) 11월조에는 加羅의 上首位 古殿奚로 나오는

56 『禮記注疏』卷11, 王制(漢鄭氏注·唐陸德明音義·孔穎達疏), “不能五十里者 不合於天子 附於諸侯 曰附庸....[注]皆象星辰之大小也 不合謂不朝會也 小城曰附庸 附庸者以國事附於大國未能以其名通也”

57 『梁書』列傳 第48, 諸夷 海南 東夷 西北諸戎, “東夷之國 朝鮮爲大 得箕子之化 其器物猶有禮樂 云 魏時 朝鮮以東馬韓 辰韓之屬 世通中國 自晉過江泛海東使 有高句驪百濟而宋齊間常通職貢 梁興 又有加焉”

58 이러한 견해는 이미 전영래가 피력한 바가 있다. 전영래, 앞의 논문, 1985.

까닭도 이러한 이유, 즉 반과가 521년 이후 529년 사이에 가라에 복속되었기 때문이었다.

## 2. 6세기 전반 가야 주변 정세

반과 위치 비정의 전제가 되는 기문과 대사가 섬진강 유역인지 낙동강 유역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기문은 반과의 위치 비정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6세기 전반 대 가야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문 대사 2지는 결국 백제에 속하게 됨으로 당시 백제의 가야 지역으로의 진출 경로와도 관련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백제의 남진과 가야제국의 대응 과정 속에서 반과의 위치를 糾明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백제는 475년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수도 漢城이 함락된 후 熊津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후 무령왕과 성왕 대에 이르러 중흥의 시기를 맞이한다. 북쪽으로의 국토 회복에 힘쓰는 물론 남방으로의 진출도 모색되어졌다. 그러나 5세기 후엽 이래 6세기 전반 대에도 고구려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이에 백제와 신라는 對고구려 군사동맹을 맺어 남북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백제는 중국 南朝의 諸國과 交聘하면서 우호를 다지는 한편 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친선책을 펼친다. 그리고 倭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경에 접한 가야제국을 점령해 간다. ‘任那 4縣’과 己汝·帶沙로의 잠식도 이러한 과정인 것이다. 『일본서기』 계체기에 의하면 원래 백제의 땅이었던 己汝을 伴跋가 차지하자 백제는 倭의 힘을 빌려 기문과 대사를 차지한다. 반과는 이에 대해서 반발하였지만 결국 2地는 백제에 귀속되고 만다.<sup>59</sup>

529년 백제에 접수된 대사가 낙동강 유역인지 섬진강 유역인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 백제의 진출지가 어디인지에 의해 추정이 가능하다.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59 『日本書紀』 卷17, 繼體紀 6년(512) 12월조, 동 7년(513) 6월조, 동 8년, 9년조.

25년(531) 12월 分註에서는 백제본기를 인용하면서 “其文云 太歲辛亥三月 師進至于安羅 營乞屯城”이라고 하고 있다. 531년 백제는 대사에서 좀 더 남하하여 安羅 근처의 乞屯城에 군대를 주둔시킨다. 안라는 함안이다. 걸탁성은 현 진주 지역 주변으로 비정함이 일반적이다. 이로 보아 6세기 초 백제의 남진 루터는 섬진강을 내려와 동진하는 루터, 또는 서해안을 남하하여 동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백제의 가야 잠식 과정 속에서 당시 가야제국 가운데 최강국인 가라국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4세기 중엽 이후 친백제적이었던 洛東江 以西의 가야제국은 5세기 후반이 되면 고구려의 압력에 의한 신라와 백제의 對加耶 지역 힘의 공백을 틈타 백제 세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다. 建元 원년(479)에 加羅國王 荷知는 南齊에 遣使하여 輔國將軍本國王을 제수 받는다.<sup>60</sup> 이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라국의 성장을 보여 주는 일례이기도 하다. 『三國史記』 卷3, 照知麻立干 18年(496)條에 보이는 “加耶國이 꼬리가 다섯 척 되는 흰 평을 보냈다.”라는 기사는 당시 가야제국의 주축이었던 加羅國이 신라와 연계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백제 영향력의 일시 공백기를 틈타 신라와 밀착하여 우호관계를 수립함으로써 對百濟 牽制 및 자립책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야제국의 자립책은 529년대까지 이어진다.<sup>61</sup> 그러나 이러한 가야의 노력들은 自主化가 아니라 오히려 신라에 복속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백제의 남진과 신라의 서진에 의해 가야제국은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가야제국이 취할 수 있는 자존책은 국제회의를 통한 외교적 노력이었다. 529년 안라에서 개최된 안라고당회의는 안라국 주동의 회의였다. 이미 신라 쪽으로 경도

60 『南齊書』 東南夷傳 加羅國條, “加羅國은 三韓의 한 계통이다. 建元 원년(479, 신라 照知麻立干 1년)에 국왕 荷知가 사신을 보내와 방물을 바쳤다. 이에 詔書를 내렸다. 널리 헤아려 비로소(조정)에 올라오니, 멀리 있는 夷가 두루 德에 감화됨이라. 加羅王 荷知는 먼 동쪽 바다 밖에서 폐백을 받들고 關門을 두드렸으니, 輔國將軍本國王의 벼슬을 제수함이 합당하다.”

61 『日本書紀』 卷17, 繼體 23년(529) 3월조.



된 남가라, 탁기탄의 復建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였다. 이 회의에 가라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결국 가야제국 전체를 아우르는 힘의 구심체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41년과 544년 백제의 수도 사비에서 열리는 회의에 안라국과 가라국 사신을 비롯한 가야제국의 대표들이 모이지만 실효는 없었다.<sup>62</sup> 가야 부흥을 위한 회의였지만 백제의 야욕만 확인될 뿐 가야제국의 복건과 자존을 위한 방안은 모색되지 않았다.

〈표 3〉 5~6세기 전반 가야 주변 정세

| 시기(년)   | 내용   | 출전                              |
|---------|--|---------------------------------|
| 433     | 羅·濟同盟 結成   | 新羅本紀 訥祇麻立干 17년 7월조              |
| 450     | 高句麗 邊將 掩殺 事件   | " 34년 7월조                       |
| 468~474 | 新羅 對高句麗 방어를 위해 築城  | 新羅本紀 慈悲麻立干 11, 13, 14, 16, 17년조 |
| 475     | 고구려 백제 한성을 점령함, 백제 웅진 천도   | 高句麗本紀 長壽王 63년조                  |
| 507     | 大伴金村 越前에서 男大迹王을 맞이해 즉위시킴 → 繼體天皇                                    | 繼體紀 원년조                         |
| 509     | 任那의 日本縣邑에 있는 百濟 백성들을 백제로 옮김  | " 3년조                           |
| 512     | 任那4縣을 백제가 차지함  | " 6년 12월조                       |
| 513~515 | 伴跬가 百濟와 己汶·帶沙을 두고 각축 결과 백제가 차지함                                    | " 7~9년조                         |
| 513     | 百濟, 斯羅, 安羅, 伴跬, 倭 회의 개최  | " 7년 11월조                       |
| 521     | 百濟, 新羅 중국 梁에 遣使  | 梁職貢圖<br>新羅本紀 법흥왕 8년조            |
| 522     | 加羅-新羅 결혼 동맹  | 繼體紀 23년조<br>新羅本紀 9년조            |
| 527     | 筑紫國造 磐井의 亂   | 繼體紀 21년조                        |
| 529. 3  | 백제 다사진 점령으로 加羅-新羅와 결당(가라왕이 신라왕녀와 결혼) → 신라인들의 對加耶 간섭활동에 대해 결혼 동맹 파탄 | " 23년조                          |
| "       | 가야(남가라, 탁기탄)의 復建과 안라국의 自存과 독립을 위한 안라고당회의 개최, 이 회의에서 백제사신 홀대 당함     | " 是月條                           |
| 529. 9  | 安羅는 倭(毛野臣으로 상징)의 횡포를 막고자 함. 倭 세력의 축출을 위해 신라와 백제에 군사 요청             | " 9월조                           |
| 531     | 백제 안라 주변의 乞毛城 진주   | " 25년조                          |
| 532     | 남가라(=금관가야) 신라에 복속  | 新羅本紀 법흥왕 19년조                   |

62 『日本書紀』 卷19, 欽明 2년(541) 4월조, 동, 欽明 5년(544) 11월조.

|     |   |               |
|-----|---|---------------|
| 537 | 신라가 임나를 침공함으로 倭가 大伴大連金村의 아들인 狹手彦을 임나에 보냄  | 宣化紀 2년조       |
| 538 | 백제 사비 천도  | 百濟本紀 성왕 16년조  |
| 539 | 繼體 사후 야마토정권은 安閑·宣化天皇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欽明天皇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으로 분열, 전자를 지지한 大伴金村, 후자를 지지한 蘇我稻目. ⇒ 2朝 병립.   | 『일본서기』 권18~19 |
| 540 | 大伴金村 가야문제로 인해 실각  | 흙명기 원년조       |
| 541 | * 安羅 次早岐 夷吞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의 上首位 古殿奚, 卒麻의 早岐, 散半奚의 早岐의 兒, 多羅의 下早岐 夷他, 斯二岐의 早岐의 兒, 子他の 早岐 등과 任那日本府 吉備臣 백제에 감 → 1차 사비회의<br>* 백제 성왕 下部 中佐平 麻鹵, 城方 甲背味奴 등 加羅에 파견 任那日本府와 會盟케함. | 흙명기 2년 4월조    |
| 544 | 日本(府)吉備臣, 安羅의 下早岐 大不孫과 久取柔利, 加羅의 上首位 古殿奚와 率麻君과 斯二岐君과 散半奚君의 아들, 多羅의 二首位 訖乾智, 子他の 早岐, 久嗟 早岐 백제에 감 → 2차 사비회의   | 〃 5년 11월조     |

### 3. 위치 비정

반과 위치 비정의 전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기문의 위치 비정이다. 『翰苑』 蕃夷部 百濟條의 “基汶河가 나라에 있는데 源이 나라 안에 있다. 源은 나라의 南山으로부터 나오고 동남쪽으로 흘러 大海에 이른다.”<sup>63</sup>와 관련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강을 대부분 섬진강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최근 곽장근은 이를 남강으로 이해해 기문의 위치를 남강 상류 지역인 운봉고원의 남원 유곡리, 두락리고분군과 연계하여 비정하고 있다.<sup>64</sup>

당시 백제인들의 방향감각이 어느 정도 정확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백제의 수도에서 보았을 때 섬진강과 남강 모두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보면 섬진강은 거의 남쪽으로만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반면 남강은 남으로 흐르다가 진주 부근에서 동쪽으로 흘러 경남

63 『翰苑』 蕃夷部 百濟條, “括地志曰‘熊津河出國東界 西南流經國北百里 又西流入海 廣濶(處)三百步 其水至清 又有基汶河在國 源出其國 源出其國南山 東南流入大海 其中水族與中夏同”

64 곽장근, 「운봉고원의 제철유적과 그 역동성」, 『百濟文化』 52, 2015, 13쪽.

의령 지정면과 함안 대산면 사이에서 낙동강 본류와 만난다. 그 후 동으로 흐르다가 삼랑진에서 다시 남으로 흘러 부산과 김해 사이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어쨌든 기문은 섬진강 수계의 전북 동부지역 혹은 남강 수계의 경남 서부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영호남 경계 가야 지역이 된다.

『新撰姓氏錄』, 左京皇別下, 吉田連 관련 기사를 보면 기문은 上·中·下己汶이 있으며, 이곳을 두고 新羅國과 더불어 서로 다투는 곳으로 되어 있다.<sup>65</sup> 상·중·하의 三己汶은 지리적으로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문의 비정에 있어서 國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유적이 2~3개 붙어 있는 지역을 후보지로 하여야 할 것이다.

성주설에 대한 김태식의 비판은 5세기 대 토기 양상으로 보아 성주는 고령과는 전혀 다른 문화 양상이므로 반파는 성주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반파가 520년대까지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했으며 그 이후에 가라에 편입되었다면 이러한 비판은 그 효용성이 없어진다. 적어도 6세기 중엽 이후 성주의 유물 양상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성주 지역은 이미 5세기 대부터 6세기 대까지 신라 양식의 유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부산, 창녕 등 이른바 낙동강 동안 가야 지역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성주 지역 또한 전반적으로는 신라 양식이지만 그 속에서 독자적 요소의 문화 양상을 보인다면 독립국의 존재를 상징할 수 있을 것이다.

반파는 6세기 초까지는 독자적 세력으로 있으면서 백제와 기문 지역을 두고 세력 다툼을 벌인다. 그러나 결국 백제에게 밀린다. 그리고 백제에게 있어서는 (상)기문과 더불어 '附庸國'으로 인식되는 나라였다. 그러다 521~529년 사이 고령의 加羅國에 복속되는 나라이다.

앞의 <사료 3>과 <사료 7>로 보아 513~529년 사이 기문과 대사가 백제에

65 『新撰姓氏錄』, 左京皇別下, “吉田連~ 任那國 奏曰臣國東北有三巴汶地[上巴汶·中巴汶·下巴汶] 地方三百里土地人民亦富饒與新羅國相爭 彼此不能攝治 兵丈相尋 民不聊生 臣請將軍令治此地 卽爲貴國之部也”

귀속되자, 가라는 이 때문에 일본(아마도 백제도 포함되었을 것이다.)에 원한을 품고 신라와 결당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 9년(522)조 기사와<sup>66</sup> 아울러 보면 가라와 신라가 결당하는 것은 522년이다. 가라와 신라가 결당하여 신라가 얻은 것은 <사료 7>에 보이는 가라와 신라 사이의 3성과 北境 5城이었다. 가라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반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라의 반과 병합은 신라와의 약속하에 이루어졌으며, 신라는 반대급부로 3성과 북경 5성을 차지하였다. 그렇다면 반과는 일찍부터 신라와 관련 깊은 나라로서 신라의 암묵적 동의가 있어야 가라가 정복할 수 있는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정에 합리성이 있다면 전북 동부지역이나 경남 서부지역에 반과를 비정함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성주 지역이 주목된다. 성주는 고려 때 京山府로 신라 때 本彼縣이었다.<sup>67</sup> 신라가 外地를 장악한 다음 처음 지역 명을 정할 때는 그 지역의 원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本彼는 伴跋와 음통한다. 伴跋는 백제가 本彼를 비하해서 붙인 국명일 가능성이 높다. 본피는 교통의 요지였다. 『고려사』 권82 병지2 참역(站驛)에, 보면 “京山府道는 25개의 역을 관할하는데…”라고 보인다. 25개 역을 통하면 거의 사통팔달하게 되어 있다.

『三國遺事』 五伽耶條에 의하면 星州는 ‘星山伽耶’ 혹은 ‘碧珍伽耶’가 있었던 곳이다.<sup>68</sup> 현재 학계에서는 이 지역이 가야 지역이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66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9年(522), “春三月 加耶國王遣使請婚 王以伊滄比助夫之妹送之”

67 『三國史記』 卷34, 雜誌3, 地理1, 星州郡條, “星山郡, 本一利郡【一云里山郡】 景德王改名, 今加利縣, 領縣四, 壽同縣, 本斯同火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谿子縣, 本大木縣, 景德王改名, 今若木縣, 新安縣, 本本彼縣, 景德王改名, 今京山府, 都山縣, 本狄山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68 『三國遺事』 卷1 紀異1, “五伽耶[按駕洛記贊云 垂一紫纓 下六圓卵 五歸各邑 一在茲城 則一爲首露王 餘五各爲五伽耶之主 金官不入五數 當矣 而本朝史略 竝數金官 而濫記昌寧 誤]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 古寧伽耶[今咸寧] 大伽耶[今高靈] 星山伽耶[今京山 一云碧珍] 小伽耶[今固城] 又本朝史略云 太祖天福五年庚子 改五伽耶名 一 金官[爲金海府] 二 古寧[爲加利縣] 三 非火[今昌寧恐高靈之訛] 餘二 阿羅·星山[同前 星山或作 碧珍伽耶]”

강하다. 그러나 『삼국유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가야라는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과는 가야의 한 나라였지만 자체 기록도 남기지 못한 채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일말의 흔적이 流傳되다가 『삼국유사』에 “星山伽耶(지금(고려 때)의 京山이니 혹은 碧珍이라고도 한다.)”라는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IV. 맺음말

앞의 논의에서 장수설의 근간이 되는 봉수의 경우 신증론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반과=고령설’의 주요 논점인 『양직공도』의 반과가 가라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과=장수설’과 고령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반과 비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기문은 백제가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적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반과는 이 지역을 두고 백제와 다툰다. 반과는 이러한 기문과 지리적으로 통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기문은 전북 동부, 혹은 경남 서부지역에서 3개체의 정치세력이 연이어 존재할 만한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三己汶은 붙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라가 백제로부터 반과를 지키고 자기 영역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522년 신라와의 결혼동맹에 의한 것으로 추측해 보았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반과는 신라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지역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성주 지역은 그 유물 양상이 이미 5세기 대부터 신라계였다. 신라가 5세기 대에 이 지역을 차지하였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이 강하게 미친 지역으로 생각된다.

백제의 기문 대사 장악과 남부가야로의 진출, 가라의 반과 소유, 신라의 3성과 북경 5성 차지, 6세기 전반 가야를 둘러싼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이후 각국들의 향방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세기 중엽 이후 가야제국들은 점차

신라와 백제에 병합되어 간다. 반파는 가야 후기 가야제국 중 최강국인 가라에 병합되지만, 가라도 562년 신라에 강제 병합됨으로써 가야제국의 역사는 끝을 맺게 된다.

본고의 주제인 반파의 위치를 경북 성주 지역에 비정해 보지만, 확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 추정에 의한 논리 전개가 많다. 사료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硏鑽, 地理的 고찰, 고고학적 자료에 대한 탐구 등을 통해 보다 확신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군산대학교 박물관·장수군, 『장수 영취산·봉화산 봉수』, 장수군 관내 봉수 2개소 문화재 시·발굴조사 보고서, 2016.
- 郭長根, 『湖南 東部地域 石槨墓 研究』, 書景文化社, 1999.
- \_\_\_\_\_, 「湖南 東部地域 高塚의 分布相과 그 意味」, 『百濟研究』 제31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 \_\_\_\_\_,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호남고고학보』 57, 2017.
- \_\_\_\_\_,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 『가야고분군』Ⅲ,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4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8.
- 今西龍,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937.
- 김재홍, 「전북 동부지역 백제, 가야, 신라의 지역지배」, 『한국상고사학보』 제78호, 2012.
- \_\_\_\_\_, 「전북 동부지역 가야 고분의 위세품과 그 위상」, 『호남고고학보』 제59호, 2018.
- \_\_\_\_\_, 「기문과 반파의 역사적 위치 및 성격」,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국립나주·가야문화재연구소 2019년 가야사 기획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9.
- 金泰植, 「5C 후반 大加耶의 발전에 대한 研究」, 『韓國史論』 1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5.
- \_\_\_\_\_,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 \_\_\_\_\_, 「백제의 가야 지역 관계사 시고」, 『백제의 중앙과 지방』, 충남대 백제연구소, 1996.
- \_\_\_\_\_, 『사국시대의 한일관계사 연구』, 서경문화사, 2014.
- \_\_\_\_\_, 「가야의 공간적 범위 재론」,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교 한국학연구원, 2019.
- 金鉉球, 「百濟의 加耶進出에 관한 一考察」, 『東洋史學研究』 70, 2000.
- 노중국, 「4~6세기 나제동맹의 성격과 의미」, 『나제동맹』,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8.
-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1949(吉川弘文館, 1971; 增訂 5版).
- 백승욱, 『가야 각국사 연구』, 해안출판사, 2003.
- \_\_\_\_\_, 「安羅高堂會議의 성격과 安羅國의 위상」, 『지역과 역사』 14, 부산경남역사연구소, 2004.
- \_\_\_\_\_, 「己汝·帶沙의 위치비정과 6세기 전반 대 加羅國과 百濟」,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7(a).
- \_\_\_\_\_, 「加耶 ‘縣’의 성격과 省熱縣의 위치 -于勒의 출신지에 대한 재검토」, 『韓國民族文化』 30,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7(b).
- \_\_\_\_\_, 「영·호남 경계지역 가야 정치체의 성격」,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국립나주·가야문화재연구소 2019년 가야사 기획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9.

- 백승충, 「6세기 전반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百濟研究』 제31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 \_\_\_\_\_, 「계체·흙명기 ‘임나(국) 4현 할양’ 기사의 성격」, 『지역과 역사』 31호, 부경역사연구소, 2012.
-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下卷, 天山舎, 2002.
- 小島憲之, 『上代日本文學と中國文學』上, 塙書房, 1962.
- 小林伸二, 「春秋時代の‘取’國について; 附庸小國の存在形態」, 『集刊東洋學』 74, 中國文史哲研究會, 1995.
- \_\_\_\_\_, 『春秋時代の軍事と外交』, 汲古書院(東京), 2015.
- 양숙자, 「호남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분포 현황조사의 성과와 과제」, 『2018 가야문화유산 최신조사 성과 자료집』,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 유우창, 「6세기 加羅의 對羅·濟관계」, 『韓國古代史研究』 88, 2017.
- 위가야, 「백제의 기문·대사 진출과정에 대한 재검토-513년 국제회의의 실상을 중심으로-」, 『史林』 58, 2016.
- 이도학, 「伴跋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 호서사학회, 2019.
- 이동희, 「전남동부지역 가야계 토기의 역사적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46집, 2004.
- \_\_\_\_\_, 「全南 東部地域 加耶文化의 起源과 變遷」, 『百濟文化』 제45집, 2011.
- 이영식, 「백제의 가야진출 과정」, 『한국고대사논총』 7, 1995.
- \_\_\_\_\_, 『가야제국사연구』, 생각과종이, 2016.
- 李鎔賢, 「‘梁職貢圖’百濟國使條의‘傍小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7, 1999.
- 전영래, 「百濟南方境界의 變遷」, 『천관우선생환력기념한국사논총』, 정은문화사, 1985.
- 田中俊明,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加耶琴だけが残った』, 吉川弘文館, 1992.
- \_\_\_\_\_, 「日本書紀의 ‘任那’-가야사의 공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고려군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9.
- 鮎貝房之進, 「日本書紀朝鮮地名攷」, 『雜攷』 第7輯 下卷, 1937.
- 丁仲煥, 『加羅史研究』, 혜안, 2000.
- 정재윤,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에 대한 고찰」,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2008.
- 조명일, 「금강상류지역의 산성과 봉수의 분포양상」,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 지역』, 한국상고사학회, 2011.
- \_\_\_\_\_, 「호남 동부지역 제철 및 봉수 최신 조사 성과」, 『2018 가야문화유산 최신조사 성과 자료집』,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 주보돈,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한국상고사학회, 2011.
- \_\_\_\_\_, 「6세기 전반 나제동맹 관계의 향방」, 『신라와 백제, 소통과 갈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8.
- 주성지, 「웅진시대 백제의 蟾津江 水系 진출」, 『慶州史學』 제22집, 2003.



- 千寬宇, 『加耶史研究』, 一潮閣, 1991.
- 홍성화, 「己汶, 帶沙 지명 비정에 대한 일고찰」, 『史叢』 82, 2014.

## 「반과국 위치 재론」에 관한 토론문

이 도 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표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가야사 연구의 일급 전문가이다. 여러 권의 저서와 논문을 통해 입증해 주었다. 본 발표문은 발표자가 지금까지 지지했던 성주=반과국설의 새로운 위협 요인이기도 한, 장수=반과국설의 문제점을 적출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본 토론문에서는 이러한 발표자의 견해를 재검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1. 본 주제가 ‘전북 지역 고대 정치세력과 가야’ 학술대회이므로 ‘가야’ 국호와 관련해 질의하겠다. 현재 ‘加耶’로 표기하고 있지만, 금석문과 당대와 근접한 史書에는 ‘加羅’로 표기하고 있다. 414년에 작성된 「광개토왕릉비문」의 ‘任那加羅’, 『남제서』에서 479년에 遣使하여 책봉받은 ‘加羅王’, 720년에 저술된 『일본서기』에 적힌 ‘加羅’ 등이 보이고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加羅’는 당시의 표기요 自號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加耶와 加羅 중 어떤 표기를 따르는 게 합당한지 묻고 싶다. 但, 본 토론문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지금도 통용하는 ‘가야’ 표기를 사용한다.

2. 발표자는 평소 지지해 온 星州=반과국설을 다시금 제시했다. 물론 발표자는 발표문 맨 끝에서 “본고의 주제인 반과의 위치를 경북 성주 지역에 비정해 보지만, 확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 추정에 의한 논리 전개가 많다. 사료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研鑽, 地理的 고찰, 고고학적 자료에 대한 탐구 등을 통해 보다 확신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발표자가 성주=반파국설을 견지하고 있는 관계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발표자가 견지하는 성주=반파국설의 요체는 첫째, 신라 때 本彼縣이었던 성주의 本彼와 伴跛가 음통한다는 것이다. 둘째, “성주는 『삼국유사』 5가야 조에 ‘星山伽耶’라는 가야의 일국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반파로 비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三國遺事』 五伽耶條에 의하면 星州는 ‘星山伽耶’ 혹은 ‘碧珍伽耶’가 있었던 곳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 지역이 가야 지역이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삼국유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가야라는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발표자의 견해를 집중 검증해 보기로 한다.

### 3. <音相似 접근의 위험성>

본피와 반파가 음상사하다는 것은 兩者를 일치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증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증도 여타 정황이 뒷받침되어야만 힘을 얻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耳懸鈴鼻懸鈴의 소지마저 있다. 예를 들어 성주의 古名인 本彼縣의 ‘本彼’는, 신라 경주 6부의 하나인 本彼部の ‘本彼’와 字形까지 동일하다. 명활산성작 성비와 울진봉평신라비를 비롯한 중고기 신라 금석문에는 本彼部가 ‘本波部’로도 기재되어 있다. 本波部の ‘本波’는 오히려 伴跛國의 ‘伴跛’나 「양직공도」의 ‘叛波’와도 近似하다. 그렇다고 本彼部가 伴跛國과 연결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상사에 기초한 접근은 유력한 방증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沙上樓閣에 불과할 수 있다. 참고로 伴跛는 일본 음으로 ‘ハヘ’였다. 『일본서기』에서 安羅는 ‘アラ’, 加羅는 ‘カラ’로 음을 적어 놓았다. 안라와 가라에 대한 일본 음 표기가 근사하다면, 반파의 ‘ハヘ’ 음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伴跛를 本彼와 결부 짓는 견해는 더욱

설득력이 없어진다.

4. 발표자의 소견대로 520년까지 星州가 반과국이라는 이름의 독립국으로 존속했다면,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신라에 정복당한 경위가 적혀 있어야 한다. 즉 “咸安郡 法興王以大兵 滅阿尸良國 一云阿郡(那)加耶 以其地爲郡(安羅)”, “高靈郡 牟大加耶國 自始祖伊珍阿豉王 一云內珍朱智 至道設智王 凡十六世 五百二十年 眞興大王 侵滅之 以其地爲大加耶郡(대가야)”, “開寧郡 古甘文小國也 眞興王十八年 梁永定元年 置軍主爲靑州 眞平王時州廢(감문국)”, “獐山郡 祗味王時 伐取押梁[一作督]小國 置郡(압독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라에 점령당해 郡縣으로 편제되거나 독립小國의 존재가 명시된 경우가 많다. 星州=반과국이 6세기 초까지도 위세를 떨치다가 신라에 복속되었다면, 앞에서 인용한 구절과 유사한 양식으로 『삼국사기』에 수록되는 게 자연스럽다. 물론 누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본 사서와 『양직공도』에도 수록될 정도의 운동력과 존재감을 감안한다면, 신라 정복 관련 기사에 수록되지 않은 게 의아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성주는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新安縣 本牟彼縣 景德王改名 今京山府”라고만 적혀 있다.

5. 신라는 468년~490년에 걸쳐 대규모 산성 축조와 개축을 단행했다. 대략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泥河城：江陵/ 三年山城：報恩/ 芑老城：軍威郡 孝令面/ 一牟山城：燕岐郡/ 沓達城：尙州市 化寧面/ 仇伐城：義城郡 北쪽/ 屈山城：沃川郡 靑山面/ 刀那城：尙州市 牟西·牟東面/” 이와 같이 신라는 진한연맹의 범위를 넘어 강원도 방면 동해안과 충청북도 쪽으로도 팽창하였다. 이러한 정황에서 구미와 대구 사이에 소재한 성주를, 신라가 520년까지도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6. 星山伽倻를 가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신라토기를 주로 사용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발표자 역시 “성주 지역은 이미 5세기 대부터 6세기 대까지

신라 양식의 유물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성주에서는 가야토기의 사용을 비롯한 가야적인 요소가 고고학적으로 크게 입증되지 않고 있다. 이 점도 성주=반과국설의 크나큰 맹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발표자는 “성주 지역 또한 전반적으로는 신라 양식이지만, 그 속에서 독자적 요소의 문화 양상을 보인다면 독립국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발표자는 성주 지역의 ‘독자적 요소의 문화 양상’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순전한 ‘희망 가정’에 불과하였다.

7. 발표자는 “반과가 521년 이후 529년 사이에 가라에 복속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성주 지역에 그 이후 가야 계통의 토기나 문화 양상이 보여야만 한다. 나타나거나 보이는가?

8. 발표자는 基汝河의 위치를 “기문은 섬진강 수계의 전북 동부지역 혹은 남강 수계의 경남 서부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영호남 경계 가야 지역이 된다.”고 했다. 발표자는 기문하를 섬진강과 남강 모두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차후 논지 전개와 관련해 기문하의 비정은 몹시 중요하다. 그럼에도 그 비정을 유보한 것은 논지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북 내륙의 성주 세력이 고령의 대가야 등을 제치고 어떻게 섬진강이나 남강 유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는지 부연 설명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불가사의하게만 느껴질 뿐이다.

9. 발표자는 “반과는 6세기 초까지는 독자적 세력으로 있으면서 백제와 기문 지역을 두고 세력 다툼을 벌인다.”고 했다. 그러면 성주=반과가 ‘독자적 세력’으로 있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물적 증거는 있는지? 가령 성주 지역의 독자 토기문화가 주변 諸國에 영향을 미친 물증이라도 있는지?

10. 발표자는 성주 지역은 5세기 대부터 6세기 대까지 물적 양상은 신라계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성주는 신라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통의 요지에 입지했다고 발표자가 주장하는 성주를, 신라가 가라에 넘긴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발표자는 “본피는 교통의 요지였다. 『고려사』 권82 병지2 站驛에 보면 “京山府道는 25개의 역을 관할하는데,…”라고 보인다. 25개 역을 통하면 거의 사통팔달하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 그럼에도 발표자는 “가라의 반파 병합은 신라와의 약속하에 이루어졌으며, 신라는 반대급부로 3성과 북경 5성을 차지하였다. 그렇다면 반파는 일찍부터 신라와 관련 깊은 나라로서 신라의 암묵적 동의가 있어야 가라가 정복할 수 있는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 발표자의 논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조가 아닐까 싶다.

11. 발표자는 『삼국유사』에 성산가야가 적시되었으므로, 가야 지역이 분명하고, 나아가 반파국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국유사』에서 성산가야 혹은 벽진가야라고 하였지, 반파가야라고 하지는 않았다. 본피가야 혹은 반파가야라고 할 수 있는 국호가 유전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성산가야와 반파국을 직결시켜 주는 橋梁 역의 보완재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12. 말이 나온 김에 발표자가 “『삼국유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가야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일 것이다.”고 한 言辭를 상기해 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대사와 관련한 兩大 사서에 분명히 등장하는 고녕가야는 왜 배제되는지 묻고 싶다.

13. 『삼국유사』 6가야 조는 말할 것도 없고, 『삼국사기』 지리지(권34)에서도 “고녕군은 본래 고녕가야국인데, 신라가 이곳을 취하여 고동랍군을 삼았다(혹은 고통현이라고도 한다). [古寧郡 本古寧加耶國 新羅取之爲古冬攬郡(一云古陵縣)]”고 했다. 여기서 고녕군은 고려 때 咸寧郡이고, 지금은 상주시 함창읍이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모두 함창을 고녕가야 故地로 적어 놓았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古寧伽耶의 위치를 晉州로 비정하여 “나로서는 晉州의 古名인 ‘居列’과 古寧이 音近할 뿐더러, 지리적 중요성(雄州巨牧)에 비추어 보아 진주에 비정하고 싶다(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313쪽).”고 했다. 그러나 居列은 발표자의 고향인 居昌의 고지명일 뿐 진주와는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두계의 견해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삼국유사』는 근거 없이 기록을 남긴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본 토론자가 짚은 몇 가지 요소만 놓고 보더라도 성주=반과국설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 토론자는 반과국의 소재와 관련해 성주설의 입지를 넓혀 줄 생각을 지녔었다. 그러나 도무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점 몹시 아쉽게 생각하면서 계속 토론을 이어 가겠다.

14. 발표자는 대사강을 명확하게 비정하지 않았다. 대사강과 기문하의 관계는 몹시 중요하다. 자칫 양자의 비정 지역이 충돌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대사강에 대한 비정 없이 논지를 전개한다는 게 의아하다. 발표자는 기문하의 비정도 兩端을 쥐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사강 비정마저 放棄한 듯한 인상마저 준다.

15. 발표자는 “그리고 계체기에서 보이는 伴跋는 상당한 힘을 가진 세력으로 보이는 만큼, 남원 月山리고분군과 함양 上柏리고분군 축조세력 정도의 역량을 가진 집단이 伴跋로 보기는 어렵다고 필자는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야계 고총에서 최초로 계수호와 철제초두가 출토된 곳이 남원 월산리고분이었다. 월산리 세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은 아닌지?

16. 반과=장수설의 중요 근거가 되는 ‘置烽候邸閣’ 등의 기사는 중국 고전 등에 의해 윤색되었을 수 있으므로, 발표자는 “置烽候邸閣’의 사실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광개토왕릉비문」에도 중국 고전에 의해 가탁된 글귀들이 상당히 보이고 있다. 문장의 격을 높이기 위해 『일본서기』에서도 由緒를 간직한 高雅한 문장으로 꾸며진 사례들이 등장한다. 문제는 潤色이 팩트, 즉 사실 자체를 창작했느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별개의 성질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유의하여 접근하는 게 좋을 듯하다. 윤색의 사전적 의미는 “1. 본디의 내용보다 과장되게 꾸며지거나 미화되다. 2. 어떤 사실을 본디의 내용보다 과장되게 꾸미거나 미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과장과 미화가 덧붙여지지만 실체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置烽候邸閣’ 기사 역시 꾸며져 품격 있게 치장은 했을 수 있지만, ‘烽候’가 설치된 자체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17. 발표자는 “置烽候邸閣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최초의 봉수 기록이 된다.”고 하면서, “장수군에서 시·발굴된 봉화유구가 삼국시대 6세기 초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자신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삼국시대 봉수유구가 아니기를 바라는 ‘희망 기대’를 걸었다.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봉수 기록’은 발표자가 언급했던 허황옥 도래 기록 속에 등장한다. 물론 이 기록을 발표자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단서를 달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兩者 기록이 충돌한다. 분명한 것은 삼국시대에 봉화가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6세기 대 한씨 미녀와 고구려 안장왕과의 로맨스를 담고 있는 王逢縣과 達乙省縣 지명 유래가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즉 『삼국사기』 지리지, 한산주 달을성현 조에서 “達乙省縣 漢氏美女 於高山頭點烽火 迎安臧王之處 故後名高烽”라고 하여 봉화를 올린 기록이 보인다.

18. 여기서 ‘최초의 봉수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봉수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발표자가 평가할 능력이 없음을 실토하였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사실은 장수군에서 발견된 유구가 삼국시대 조성된 봉수인지의 여부를 떠나 왜 대가야 본부인 고령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장수군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동부지역의 봉수지 자리에서 가야토기들이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과, 한곳의 구심을 향하여 방사상으로 에워싸고 있다는 것이다.

검증이 용이하지 않은 봉수지의 조성 시기인 6세기 초의 타당성 여부 확인이 지역적이라면,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봉수지의 배치 상태와 가야토기 등과 같은 물증 확인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선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19. 발표자는 “既殿奚와 古殿奚는 동일 인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계체기 7년(513) 11월조[사료 3]]에는 伴跛의 既殿奚로 나오고 欽明紀 2년(541) 4월조[사료 8]]와 5년(544) 11월조에는 加羅의 上首位 古殿奚로 나오는 까닭도 이러한 이유, 즉 반과가 521년 이후 529년 사이에 가라에 복속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 정도의 논조는 오히려 반과와 가라가 동일하다는 논거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양자를 동일 인물로 지목하면서 반과가 가라에 복속되었음을 보태 주는 근거나 방증을 제시하지 못한 게 아쉽다. 차라리 “양자가 설령 동일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加羅가 伴跛를 병합했다면 국적이 달라진다. 일본에 병합된 조선인들의 상황을 연상할 수도 있다. 이와 동일한 사례로 발해인 裴璆는 907년과 919년에 2회나 일본에 사신으로 온 바 있었다. 발해가 멸망한 뒤인 929년에 그는 東丹國 사신으로 일본에 왔다. 이때 그는 ‘발해가 이미 멸망하여 東丹國의 신하가 되었다’고 했다. 이 같은 국적 변동 변수 요인도 작용하므로, 伴跛와 加羅를 동일한 국가로 단정하는 일은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李道學, 「伴跛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 2019, 64~65쪽).”는 토론자의 견해보다 진척되지 못했다.

20. 참고로 발표자는 “既殿奚과 古殿奚는 모두 キテン케이와 コテム케이로 각각 발음하도록 주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토론자가 소지한 岩波書店本에는 모두 ‘코テム케이’로 적혀 있다. 어느 사본과 주석서에서 既殿奚를 ‘키텐케이’로 음을 달았는지 발표자에게 묻고 싶다.

